

第218回國會 農林海洋水産委員會會議錄 第4號
(臨時會)

國會事務處

日 時 2001年2月21日(水)
場 所 農林海洋水産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1. 農業·農村基本法中改正法律案(계속)
2. 農漁業災害對策法中改正法律案
3. 農漁業災害對策法中改正法律案
4. 農漁業災害對策法中改正法律案
5. 農漁業災害對策法中改正法律案(대안)
6. 사료관리법개정법률안(계속)
7. 수목원조성및진흥에 관한법률안(계속)
8. 수산물품질관리법개정법률안(계속)
9. 船員法中改正法律案(계속)
10. 현황보고
 - 가. 농업기반공사
 - 나. 농수산물유통공사
 - 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
 - 라. 산림조합중앙회

審査된案件

1. 農業·農村基本法中改正法律案(鄭長善 의원 대표발의)(鄭長善·權五乙·元喆喜·金文洙·金龍學·金元雄·金宅起·朴承國·朴是均·朴容琿·朴在旭·朴燾太·孫泰仁·申榮國·沈奎燮·吳長燮·元裕哲·尹鐵相·李康斗·李方鎬·李相培·張誠源·張正彦·鄭東泳·鄭義和·鄭鎮碩·鄭哲基·崔善榮·咸錫宰·文錫鎬 의원 발의)(계속) 2
2. 農漁業災害對策法中改正法律案(이상배 의원 대표발의)(이상배·박희태·신경식·김기춘·권오을·주진우·박재욱·손태인·허태열·이방호·김용학·서정화·정창화·이상득·김광원·김영일·박헌기·신영국·김동욱·이해봉·박주천·유홍수·김태호·박시균·김성조·박승국·이인기·황승민·권기술·강신성일 의원 발의)(계속) 2
3. 農漁業災害對策法中改正法律案(송석찬 의원 대표발의)(송석찬·강성구·권기술·김용갑·김원웅·문석호·박주선·배기선·송광호·심규섭·유재규·윤경식·원철희·이강래·이인기·이인제·이정일·전용학·정병국·정세균·한화갑 의원 발의)(계속) 2
4. 農漁業災害對策法中改正法律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김영진·강현욱·김경천·김덕규·김원기·김택기·김효석·문석호·박용호·배기운·안대륜·오장섭·원철희·유재건·윤철상·이낙연·이미경·이완구·이재선·이정일·장성원·장정연·전갑길·정장선·정세균·정철기·조부영·최선영 의원 발의)(계속) 2
5. 農漁業災害對策法中改正法律案(대안)(농림해양수산위원장 제출) 2
6. 사료관리법개정법률안(정부제출)(계속) 2
7. 수목원조성및진흥에 관한법률안(정부제출)(계속) 2

8. 수산물품질관리법중개정법률안(이방호 의원 대표발의)(이방호·원철희·김영진·김동욱 의원의 22인 발의)(계속)	7
9. 船員法中改正法律案(정부제출)(계속)	7
10. 현황보고(계속)	9
가. 농업기반공사	
나. 농수산물유통공사	
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라. 산림조합중앙회	

(14시32분 개의)

○**委員長 咸錫宰**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국회 임시회 제4차 농림해양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農業·農村基本法中改正法律案**(鄭長善 의원 대표발의)(鄭長善·權五乙·元喆喜·金文洙·金龍學·金元雄·金宅起·朴承國·朴是均·朴容琿·朴在旭·朴燾太·孫泰仁·申榮國·沈奎燮·吳長燮·元裕哲·尹鐵相·李康斗·李方鎬·李相培·張誠源·張正彦·鄭東泳·鄭義和·鄭鎮碩·鄭哲基·崔善榮·咸錫宰·文錫鎬 의원 발의)(계속)
2. **農漁業災害對策法中改正法律案**(이상배 의원 대표발의)(이상배·박희태·신경식·김기춘·권오을·주진우·박재욱·손태인·허태열·이방호·김용학·서정화·정창화·이상득·김광원·김영일·박헌기·신영국·김동욱·이해봉·박주천·유홍수·김태호·박시균·김성조·박승국·이인기·황승민·권기술·강신성일 의원 발의)(계속)
3. **農漁業災害對策法中改正法律案**(송석찬 의원 대표발의)(송석찬·강성구·권기술·김용갑·김원웅·문석호·박주선·배기선·송광호·심규섭·유재규·윤경식·원철희·이강래·이인기·이인제·이정일·전용학·정병국·정세균·한화갑 의원 발의)(계속)
4. **農漁業災害對策法中改正法律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김영진·강현욱·김경천·김덕규·김원기·김택기·김효석·문석호·박용호·배기운·안대륜·오장섭·원철희·유재건·윤철상·이낙연·이미경·이완구·이재신·이정일·장성원·장정언·전갑길·정장선·정세균·정철기·조부영·최선영 의원 발의)(계속)
5. **農漁業災害對策法中改正法律案 (대안)**(농림해양수산위원장 제출)
6. **사료관리법개정법률안**(정부제출)(계속)
7. **수목원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안**(정부제출)(계속)

속)

○**委員長 咸錫宰** 의사일정 제1항 鄭長善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업·농촌기본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항 李相培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항 宋錫贊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항 金泳鎭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항 우리 위원회 대안인 농어업재해대책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항 정부에서 제출한 사료관리법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7항 정부에서 제출한 수목원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안 이상 7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權五乙 법률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小委員長 權五乙** 법률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 權五乙 의원입니다.

당 소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던 농림부 및 산림청 소관 법률인 농업·농촌기본법, 사료관리법 및 수목원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 등 5건의 법률안과 지난 2월 19일 제218회국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에서 회부된 3건의 농어업재해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鄭長善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업·농촌기본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1999년2월5일 제정된 농업·농촌기본법은 제6조에서 국민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규정하고 있으나 국민식량의 안정적 공급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식량자급률에 대한 별다른 규정이 없는 바 정부로 하여금 식량안보를 위한 기본방침, 주요 품목별 식량자급률에 대한 목표 제시, 그리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시책 등을 포함한 식량안전보장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러한 식량안전보장계획이 수립되면 지체없이 중앙농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하도록 현행 제6조를 개정하고자 제안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당 소위원회가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업·농촌기본법 제6조에서는 식량자급수준의 목표설정 및 유지, 식량재고량 확보 노력을 명시하고 있으나 이 규정은 선언적 규정으로서 개정안의 식량자급률 목표와 제반시책 강구 등 구체적인 집행사항을 규정하기에는 다소 부적절하다고 보아 식량자급률 목표 설정의무 등 개정안 제6조의 내용을 다소 보완하여 농업·농촌발전기본계획을 규정하고 있는 제42조로 이관조치하였습니다.

다음 李相培 의원, 宋錫贊 의원 및 金泳鎭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중개정법률안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3건의 법률안은 병합 심사하여 각 개정법률안의 주요한 내용을 반영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키로 합의하였습니다. 따라서 대안의 모체가 된 3개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농어업은 자연의 의존도가 높아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농어의 경제적 손실이 막대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지원수준은 매우 낮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농어업재해를 입은 농가 및 어가에 대한 보조와 지원의 범위 등을 확대함으로써 농어가 경영안정에 도움을 주고 신속히 재해를 극복하여 농어업에 지속적으로 종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현행 농어업재해대책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는 첫째, 재해지원 대상 농가 및 어가의 범위를 확대하여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을 추가하였습니다.

둘째,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에 의하여 지원되고 있는 임업분야의 재해지원을 농어업 분야와 같이 이 법에 의한 체계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임업용 시설 및 산림작물의 정의규정을 신설하여 임업분야의 재해지원 제도를 정비하였습니다.

셋째, 농림어업용 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지원에 대하여 현행 시설비 이외에 철거비도 지원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원활한 재해복구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복구소요 자금의 일부를 복구이전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되 선급금을 지원받은 농가는 30일 이내에 복구에 착수하도록 하며 동기간내에 복구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해당 지원농가는 당해 선급금을 반환하도록 하였으며 선급금

을 지원받은 농어가 부득이한 사유없이 기간내에 복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선급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복구이전 선지급 지원문제에 대하여는 화성군과 용인군의 담당직원을 불러 집행시 예상되는 제반문제를 점검하는 등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선지급금을 받은 농어가 일정기간내에 복구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 동 자금을 반납토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어의 복구소요자금을 조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사료관리법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수정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수정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사료 제조업자 등에 대한 안전관리인의 지도·감독 및 관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사실을 알았을 때는 제조업자에 대한 시정요구와 함께 그 내용을 시·도지사에게 보고토록 하고 당해 시·도지사는 제조업자에게 이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사료의 종류·성분 및 성분량 등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규제 완화한 정부안에 대하여 사료의 품질 및 안전성 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감안하여 현행대로 등록제를 계속 유지토록 하였습니다.

셋째, 광우병 발생예방과 예기치 못한 질병감염의 개연성이 있다고 우려되는 동물 부산물 등을 반추가축 사료의 원료로 사용 또는 급여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최근 농정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동물성 사료에 대한 관리·감독대책을 이 법에서 정비하였습니다.

넷째, 농림부장관이 사료별 우수제조관리및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만을 정하고 있던 정부 원안에 대하여 동 기준을 정하는 때에는 제조업자가 이를 준수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벌칙규정을 마련하여 그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수목원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목원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안은 21세기 생물자원 확보 경쟁시대에 대비하여 우리나라 수목유전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수집 및 보전관리와 민간부문의 수목원 조성사업을 활성화시키고 국립수목원을 중심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민간부문 수목원간의 상호연계체제를 구축하여 식물유전자원 정

보의 교류와 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등을 규정한 제정법으로서 이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법안 제12조제1항의 등록수목원의 연간 개원일수를 명확히 정하거나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내용이 없이 산림청장이 정하도록 규정한 것을 농림부령으로 정하도록 그 개원일수를 분명히 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재 산림청소관 법안으로서 법률안심사소위에 계속 심사하기로 한 산림기본법안과 사방사업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선 산림기본법안은 동 법안이 산림법을 전문분야별로 분법화 하는 것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산림법의 전체 분법화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받아 본 후에 심의토록 하였으며 사방사업법은 산림청과 산림조합간의 의견이 충분히 조정된 후에 심의토록 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당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고 제안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咸錫宰** 수고 많으셨습니다.

權五乙 법률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에서 심사보고한 사항 중에 의사일정 제6항 사료관리법개정법률안은 전문개정법률안이고 의사일정 제7항 수목원 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안은 제정법률안으로 축조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축조심사할 2개 법률안을 제외한 나머지 법률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權五乙** 소위원장님이나 농림부장관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元喆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元喆喜委員** 농업·농촌기본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아주 필요한 법안이고 발의를 할 적에 **權五乙** 의원님하고 같이 발의한 의원입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42조의 내용을 볼 것 같으면 농업·농촌발전계획에 관한 그런 조항이 들어있는데 농업발전계획이라는 것은 농림부장관이 물론 당연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바로는 농촌지역의 균형개발을 위한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과연 농림부장관 혼자서 이것이 가능하냐 하는 데 여기에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의 과출소라든지 치안에 대한 문제, 보건복지부의 소위 농촌지역의 복지에 관한 문제, 교육부의 교육에 관한 문제들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지 않으면 농촌

에 대한 진흥과 기본발전계획이라는 것은 대단히 사실상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우루과이라운드를 대비한 그런 특별법을 만들어서 세금을 거둔 다음에도 그것이 각 부처에 의해서 다 집행이 되었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2001년도에 농촌학교는 지금 약 200학교가 넘게 폐교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폐교됨으로써 국가가 예산절감을 얼마 할 수 있느냐 하면 2,000억 정도를 절감할 수 있는데 상대적으로 도시지역에 몇 학교를 늘리느냐 하면 금년에 25개 학교를 늘리면서 돈이 얼마가 들어가느냐 하면 1조2,000억이 들어갑니다.

이런 문제들이 종합적으로 같이 논의가 되지 않을 적에 과연 농촌의 발전을 위한 그런 기본계획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느냐 여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조정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小委員長 權五乙** 법안심사소위원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元喆喜** 위원께서 지적하신 농업·농촌발전계획은 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인 계획에 의해서 수립, 집행되어야 된다는 그 취지의 말씀에 대해서 저희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미처 논의를 하지 못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의 농림부장관 나와 계시지만 이 자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논의할 점이 있으면 장관 답변도 듣고 꼭 보완을 해야 될 내용이 있으면 보완을 하는 방향으로 방향을 잡든지 이렇게 하면 합니다.

○**農林部長官 韓甲洙** 농업발전기본계획은 당연히 농림부장관이 관련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수립시행을 해야 되는 것이고 농촌발전계획도 금년도 농림부의 업무계획에도 들어 있습니다마는 농촌발전계획에는 **元喆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비단 농업뿐만이 아니고 농촌경제내부에 있는 교육, 문화, 복지 이런 모든 부분이 다 포괄되는 농촌에 관한 의미이기 때문에 금년도 지금 저희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상반기 중에 이런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조사를 해서 관련부처와 협의를 거쳐 가지고 농촌발전종합계획을 정부계획으로 만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주신 농촌발전기본계획도 그런데두리와 그런 방법으로 해서 앞으로 만들어 갈 계획입니다.

○**元喆喜委員** 사실상 제가 농림부의 능력을 폄하

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경제장관회의를 몇 년동안 읍서버멤버로서 봤던 바로서는 농림부장관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잘못되는 문제가 농림부로 귀결이 되고 이렇게 하는 데 이 문제는 지금 법안이 이렇게 통과되더라도 우리가 계속해서 보완을 해서 여기에 대한 보다 나은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노력을 우리 위원회가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委員長 咸錫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小委員長 權五乙** 元喆禧 위원님 질의하신 요지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조금 유보시켜서 더 보완을 해서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키자는 그런 취지로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일단 오늘 전체회의에서 통과를 시키고 난 다음에 후에 보완하자는 것인지 그 점을 분명히 해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元喆禧委員** 다시 보완하려고 하면 시간이 또 걸리니까 일단 문제를 제가 지적을 해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전부 이해하는 가운데 이 문제는 일단 법안을 만들고 그 다음에 사후로 보완해 나갈 수 있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金淇春委員**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元喆禧 위원께서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하셨는데 농업발전기본계획이라는 것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법에 본문이 되어 있습니다라는 이런 것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칩니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내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부처에서 국회에 내는 것입니까?

여기 보면 명료하지 않은데 만약에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다면 거기에서 내각차원에서 논의를 하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가령 이 조항의 어느 항에다가 농림부장관이 농업발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유관부처장관과 협의해서 그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적절히 넣으면 元喆禧 위원님이 말씀하신 앞으로 보완하자는 것을 안 해도 되고 아예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에서 여쭙어 보는 것입니다.

○**農林部長官 韓甲洙** 농업발전기본계획 같은 것이 라든지 앞으로 만들게 될 농촌발전기본계획 같은 것은 어차피 정부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고 문화시설이라든지 교육시설이라든지 교육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 계획의 성안과정에서는 관련 부처의 협의를 전부 필요합니다.

또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획예산처하고도 협의가 되어서 경제부처 내부에서 이것이 협의가 되고 협의된 상태에서 농정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국회에다 제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내각의 국무회의를 통과하지는 않습니다라는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과 거의 같은 그런 협의과정을 거쳐서 국회에 보고 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委員長 咸錫宰**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元喆禧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문제는 농림부장관께서 농업과 농촌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실 때 관련장관들의 의견도 수렴하셔서 충분히 지원을 받아서 그래서 그 계획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것을 촉구하는 그런 의미가 담긴 것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및 7항은 국회법 제58조4항의 규정에 의해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2건에 대해서는 이미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충분한 축조심사가 이루어진 조문인 점을 감안해서 수 개 조문을 한데 묶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료관리법개정법률안에 대한 축조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제1조부터 제3조까지의 총칙규정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辛卿植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咸錫宰** 辛卿植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辛卿植委員** 그 전에 제가 다른 상위에 있을 때 보면 이 소위원회가 어느 한 당이 하는 것이 아니고 각당이 같이 모여서 합의하고 된 것이기 때문에 대개 소위에서 합의된 것이면 상위 전체회의에서 특별한 이의가 없으면 그냥 통과되었지 이렇게 조항별로 축조심의하는 예가 없었어요.

한번 위원님들한테 의견을 들어 가지고 이미 각 당 간사들이 합의를 한 사항인데 굳이 여기서 또 항목마다 축조심사를 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咸錫宰** 알겠습니다.

그 말씀 뜻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국회법 58조4항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문을

묵어서 의견을 듣는 형식으로 과정을 거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또 다음 제2장 사료의 수급안정 규정인 제4조부터 6조까지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다음은 3장 사료의 품질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인 제7조부터 15조까지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제4장 사료검사 등 규정인 제16조부터 제23조까지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제5장 보칙규정인 제24조부터 30조까지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제6장 벌칙규정인 제31조부터 34조까지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부칙규정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사료관리법개정법률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목원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법률제명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서는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제1장 총칙 규정에 관한 사항으로 제1조부터 제6조까지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제2장 수목원의 조성에 관한 사항으로 제7조부터 제8조까지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제3장 수목원의 등록·운영 등에 관한 사항인데 제9조부터 제18조까지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다음은 제4장 보칙규정으로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부칙 조항에 대해서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수목원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농업·농촌기본법중개정법률안을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농어업재해대책법중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의사일정 제5항 농어업재해대책법중개정법률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사료관리법개정법률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수목원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법률안 통과에 즈음해서 韓甲洙 농림부장관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農林部長官 韓甲洙 존경하는 威錫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여러 가지 바쁘신 일정에도 농업·농촌기본법중개정법률안, 사료관리법개정법률안, 수목원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안, 농어업재해대책법중개정법률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림

니다.

특히 농업·농촌기본법의 근간이 되는 식량의 적정자급목표를 수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시고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빚었던 광우병 예방을 위해서 동물 부산물을 반추가축의 사료원료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사료관리법안을 의결해 주시는 한편 농어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농어업재해대책법중개정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의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정부는 그동안 법률안심사 과정에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하고 염려하여 주신 바를 유념해서 농림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법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咸錫宰 감사합니다.

그러면 韓甲洙 장관을 비롯한 농림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8. 수산물품질관리법중개정법률안(이방호 의원 대표발의)(이방호·원철희·김영진·김동욱 의원의 22인 발의)(계속)

9. 船員法中改正法律案(정부제출)(계속)
(14시59분)

○委員長 咸錫宰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李方鎬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수산물품질관리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9항 정부가 제출한 선원법중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그러면 張誠源 법률안심사소위원회 위원님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小委員長代理 張誠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의 張誠源 위원입니다.

2월20일과 21일 두 차례 개최된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해양수산부 소관 4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소위원회는 權五乙 소위원장을 비롯해서 본 위원과 金龍學 위원, 李方鎬 위원, 文錫鎬 위원, 崔善榮 위원 등 6인의 소위원과 해양수산부차관 등 정부관계관이 참석한 가운데 계류된 법률안 4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수산물품질관리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李方鎬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였으며 그 주요골자는 굴패각 매립으로 조성된 국·공유지를 굴양식 어업인에게 대부하는 때에는 그 토지

외에 굴껍질 제거를 위한 용도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대부기간은 20년의 범위 내로 정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법과 지방재정법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법안의 내용이 굴양식 어업인들의 오랜 민원사항으로 입법을 원하는 사항이고 또 이 법안 내용에 대해서 해양수산부가 관계부처인 재정경제부와 협의를 거쳤다고 하므로 이 법률안의 취지를 원안대로 수용키로 하되 일부 문안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수정사항을 말씀드리면 본 개정안에서는 굴패각 매립으로 조성된 국·공유지를 굴양식 어업인에게 대부하여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기 위하여 국유재산법과 지방재정법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으나 굴패각으로 조성된 매립지는 모두 국유지이므로 공유재산을 제외한 국유재산 중 잡종재산에 대해서만 국유재산법의 특례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아서 국유재산 중 행정재산과 보존재산과 관련한 조항인 국유재산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관리하는 공유지에는 적용할 필요가 없다고 보아서 공유재산과 관련한 조항인 지방재정법 제82조제2항 및 제83조제2항의 규정을 본 개정안에서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부가 제출한 선원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우리나라의 육상근로자의 복지문제는 근로복지공단이 종합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나 선원은 그동안 근로복지전담기관이 없어서 복지혜택에서 소외됨에 따라서 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를 설립하여 선원의 복지증진과 고용촉진을 도모하고 선원의 승·하선 절차와 퇴직금제도를 개선하여 선원 및 선박소유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내용입니다.

이 법률안을 소위에서 심사한 결과 개정내용이 선원과 선박소유자의 권익증진과 편의를 도모하려는 내용이므로 원안의 대체적인 내용을 수용키로 하되 부칙부분에서 두 가지 사항을 수정하였습니다.

수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선원복지고용센터의 설립준비를 위해서 개정안 부칙에서는 동 센터의 설립위원 6인을 위촉하여 동 위원들이 센터의 설립사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는 바 동 센터의 원활한 설립과 발족을 위해서 설립위원들이 설립

사무 외에 설립 당시의 이사 및 감사의 선임까지를 담당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동 센터의 설립 당시의 신입 이사장은 센터의 설립등기 이전에 선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아서 설립위원들이 선임한 이사들이 이 법 시행 전에 미리 이사회를 개최하여 신입 이사장을 선출한 후 해양수산부 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어업협정에 따른 어업인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중개정법률안 두 건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중간보고 올리겠습니다.

이 가운데 鄭文和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어업협정으로 인한 피해를 입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관련산업의 범위에 도매시장과 수산물위판장을 포함시키는 내용으로서 현재 도매시장과 수산물위판장에 대해서는 농안기금에서 약 500억원 정도 융자지원을 해주고 있고 또 수산물유통업 중 도매시장과 수산물위판장만 이 법의 지원대상인 관련산업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문제는 타 업종과의 형평성 문제 등이 제기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기 때문에 좀더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신중히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金泳鎭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수산업발전기금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감척어선 매각대금, 공유수면 점·사용료, 해양오염부담금제도 신설 등 몇 가지 방안을 입법화하고 있는 내용으로서 이 내용의 실현을 위해서는 정부 내에서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와 협의가 필요합니다.

현재 이에 대한 관계부처와의 협의가 진행 중에 있으므로 그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면 다음 임시 국회에서 그 결과를 보고 받은 후에 처리키로 하였습니다. 점을 보고 올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올렸습니다만 좀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咸錫宰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심사보고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위원님들께서 張誠源 위원님이나 해양수산부장관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수산물품질관리법중개정법률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선원법중개정법률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법률안 통과에 즈음해서 盧武鉉 해양수산부장관께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海洋水産部長官 盧武鉉 존경하는 咸錫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 소관 법률안인 선원법중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의사일정 중에서도 우리 부 소관 법률안의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權五乙 법률심사소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신 선원법중개정법률안은 열악한 해상근무 여건에서도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선원 등 해양수산 분야 종사자에게 너무도 중요한 법안만큼 당초 개정취지대로 차질 없이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특히 위원님들께서 법안심사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관해서는 해양수산 행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委員長 咸錫宰 감사합니다.

盧武鉉 장관을 비롯한 해양수산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權五乙委員 위원장님,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법이 법사위원회 심사를 받게 됩니다. 혹시 참고가 될까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식적인 심사를 떠나 가지고 조금 구체적인 것을 심사를 하기 때문에 특히 의원입법으로 상임위를 통과한 법에 대해서는 발의한 의원께서 충분히 준비를 하셔서 가지고 가셨으면 합니다.

가끔은 그 자리에서 같은 동료의원들끼리 얼굴 붉히는 일이 자주 있습니다. 법사위원들은 묻고 발의한 의원들은 답하는 과정에서 같은 의원끼리 그렇게까지 하느냐 하고 얼굴 붉히는 일이 종종 있

기 때문에 충분히 준비해 가지고 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0. 현황보고(계속)

가. 농업기반공사

나. 농수산물유통공사

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라. 산림조합중앙회

(15시12분)

○**委員長 威錫宰**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현황보고를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도 4개 기관에 대한 현황보고를 먼저 들은 다음에 위원님들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文東信 농업기반공사사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農業基盤公社社長 文東信** 존경하는 威錫宰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농업과 농촌, 농업인들의 앞날을 위해 애쓰시며 저희 공사가 올바르게 나아가도록 염려와 격려를 아끼지 않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공사 출범 첫해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음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작년 초 공사 출범 당시만 하더라도 한 지방 세 가족이라는 우려와 경영에 대한 많은 염려가 있었습지만 경영안정을 조기에 정착하기 위하여 900여명의 인력을 추가감축하고 업무혁신과 정보화 등을 통한 고효율·저비용 조직으로 탈바꿈하기 위하여 전 임직원이 합심하여 경영개혁을 추진하는 등 농업인을 위한 참신한 공기업으로 거듭 태어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결과 2000년도 사업목표를 무난히 달성하고 공사 출범 원년에 적자요인 극복으로 흑자경영 실현이 예상되고 있으며 그 결과 기획예산처로부터는 공기업 경영혁신실천 우수 모범기관으로 선정되는가 하면 국무조정실로부터는 공직기강 확립 및 부패방지대책 추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한편 지역별·수계별로 분산되어 관리되어 오던 물관리 체계를 전국단위의 단일 조직체계로 개편하고 물관리발전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1만 2,000여 수리시설물을 전수조사를 완료하고 노후 수리시설에 대한 안전진단과 재해 취약 시설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서 중장기 개·

보수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며 재해대책본부와 재해대책종합상황실을 연중 가동하고 홍수통제소와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한해와 풍·수해 등 자연재해에 적극 대처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고 연속 풍년농사를 달성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관통합에 따른 사업추진체계 일원화 정비로 정책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은 물론 모든 사업의 조사·설계·시공분야에 환경친화적인 개발기법을 확대하기 위해서 친환경적인 농업생산기반정비 설계지침을 제정·시행하는 등 사업추진방식도 새로이 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농업인과 일선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하여 고품질의 농업생산기반 정비와 고객지향의 농촌생활환경 개선에도 관심을 갖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사의 축적된 기술력과 현장경험을 핵심역량으로 강화하여 공사의 비전인 세계적 수준의 농어촌 개발·물관리 전문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을 다져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조직문화와 사업시행 및 인사관리체계가 상이한 조직의 통합과 공사의 열악한 경영구조로 아직도 경영안정과 조직 효율화 등의 현안과제들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존경하는 여야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결의해 주신 새만금간척사업에 대한 정부대책안이 아직 발표되기 이전입니다마는 공사의 모든 역량을 모아 환경친화적인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대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김포매립지도지역이용계획안에 대한 사항도 각계의 의견수렴 결과에 따라 성실히 관리해 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존경하는 威錫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농업은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미래를 책임진 산업으로서 우리의 농업을 보호하고 농업기반을 튼튼히 하여 경쟁력을 갖추게 하는 것만이 공사가 존립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저희 육천여 임·직원은 깊이 인식하고 농업인에 대한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공사가 출범 초기에 경영기반을 조속히 다지고 농업발전에 총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공사 임원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 張南珍입니다.

기획이사 李柱石입니다.

기반조성이사 張正秀입니다.

기술지원이사 林炳鎬입니다.

유지관리이사 裴榮活입니다.

구조개선이사 白顯基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임원 소개를 마치고 금년도 업무계획을 유인물을 통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咸錫宰** 보고하실 때 통상적인 업무는 간결하게 해주시고 현안에 대한 추진사항이라든지 우리가 지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만 좀 자세히 해주세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간결하고 중점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農業基盤公社社長 文東信** 알겠습니다.

○**金泳鎮委員** 18페이지 현안사항부터 해주세요. 그 외에는 우리가 이미 보고를 받았어요.

○**農業基盤公社社長 文東信** 그러면 18페이지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만금간척사업입니다.

추진현황은 작년말까지 방조제가 66% 진척되어서 1조1,385억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금년까지는 보상비가 100% 집행되고 전체공정의 72%가 추진될 계획입니다.

민·관공동조사 내용에 대한 관계부처의 검토의견이 총리실에서 종합되어 물관리정책조정위원회회의 심의를 거쳐 3월 중에는 정부안이 확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정부대책이 확정되면 우리 공사로서는 관련기관과 협력해서 정부나 민·관공동조사단이 제시한 대책안에 대한 후속조치를 수립해서 사업을 조기에 정상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동안 일부 신문에서 보도되었던 화용간척개발사업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까지 20년간입니다. 총사업비는 7,463억원으로서 작년말까지 외곽공사가 81% 진척된 상황입니다.

담수호에 대한 수질개선대책 추진상황은 학계와 공동으로 수립한 대책안을 경기도에서 심의·확정해서 지난해에 환경부에 제출하였으며 금년 3월이면 확정·승인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화용호는 시화호에 대비해 불 때 오염원이 축산 폐수로 국한되어 있고 오염량이 많지는 않습니다. 유역면적이 넓어서 물순환주기도 시화호보다는 거의 배가 빠릅니다. 유입수질 또한 매우 양호한 상태로서 수질개선대책이 시행되면 수질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김포매립지 관리사항입니다.

정부의 토지이용방안이 확정되는 대로 세부실시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관리기간 중 차입금 이자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금년에는 수도작을 500ha로 확대하고 녹비작물은 570ha를 목표로 해서 영농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덧붙임 2001년 사업별 세부추진계획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1년 업무계획보고는 부록에 실음)

○**委員長 咸錫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金東泰 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農水産物流通公社社長 金東泰** 평소 우리 농정의 발전을 위해 진력하고 계시는 咸錫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공사의 금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공사는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자 금년도의 경영방침을 농가소득품목 수출확대 총력지원, 수매·비축 효율화를 통한 가격안정 효과 제고, 그리고 고객만족경영과 지식경영기반 조성으로 정하여 정책사업 수행기관으로서 맡은 바 역할을 다해 나가하고자 합니다.

우리 농정에 대해 소상히 파악하고 계시고 경륜이 높으신 위원님들의 충고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경영에 성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공사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朴判吉 감사입니다.

河昌正 관리이사입니다.

李東熙 유통담당이사입니다.

曹芳煥 수출담당이사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공사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委員長 咸錫宰** 요약해서 중점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農水産物流通公社社長 金東泰** 7페이지 수출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업의 활로개척과 수출농업 육성을 위해서 공사는 수출지원 전담기관으로서 해외시장 개척과 무역정보 제공 등 수출진흥을 위한 종합지원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농수산물 수출동향을 보고드리면 2000년 농수산물 전체 수출실적은 30억 3,600만불로 전년보다 5% 감소하였으나 농산물은 농가소득과 직결되는 채소, 화훼, 과일 등의 수출이 크게 증가해서 돼지고기를 제외할 경우 8.7%가 신장되었으며 수산물은 전년 수준을 유지하였습니다.

금년도 수출목표는 32억5,000만불로서 수출목표 달성을 위해 수출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 금년도 사업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품목의 수출이 증대되도록 집중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채소류는 1억3,000만불을 목표로 소량 다품목 틈새시장을 공략하고 수출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김치는 전년 대비 27% 증가한 1억불을 목표로 정하였으며 한국산 김치의 우수성을 홍보하여 일본산 김치와의 차별화를 기하고 현지 대량 소비처에 대한 판촉활동을 강화하며 일본 권역별 특성을 감안한 김치 홍보사업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과실류는 5,000만불의 목표달성을 위해 프랑스 까르프 등 해외 대형유통업체와 연계해서 과실 판촉·홍보행사를 실시하고 파렛타이징 시범수출을 지원해서 수출물류체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화훼류는 3,800만불을 목표로 정해서 수출 가능성이 높은 시클라멘, 산호수 등 소형 분화류의 대일 수출을 확대하고 양란의 대미 수출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축산물은 구제역 청정지역 선포 후 돼지고기의 대일 수출이 조기에 재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며 신규 수출전략품목으로 닭고기 수출을 집중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전통식품은 경쟁력 확보가 가능한 인삼주, 고추장 등 전통식품을 발굴해서 정보제공에서 바이어알선까지 일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수산물 수출확대를 위해 박람회참가 및 시장개척단 파견과 포장디자인 개선 및 포장재 개발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해외시장 개척활동을 강화해서 수출수요를 창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제박람회와 특판전을 통해 2억2,800만불의 수출계약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홍보활동 강화를 통한 수출수요 확산을 위해서는 현지의 TV, 라디오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김치

CODEX규격 제정을 계기로 일본시장 중심에서 동남아, 유럽 등으로 수출시장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주 수출대상국인 일본시장 개척에 역점을 두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대일 농산물 수출목표 8억3,000만불 달성을 위해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채소, 화훼 등에 대한 수출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 틈새시장을 집중공략하여 일본시장점유율을 확대하며 권역별 대형유통업체를 통한 시장개척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출지원제도를 개선하여 수출경쟁력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수출현장의 애로 해소를 위해 수출이동컨설팅을 60회 실시하고 해외농업무역관은 수출상담과 현지 정보수집 기능을 강화하여 수출업체의 현지지사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수출자금은 금년도에 2,204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농가 소득품목의 수출물류비는 지원규모를 212억원으로 확대하여 수출경쟁력을 제고하고 물류비 지원제도를 개선하여 지원효과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무역정보 수집·전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 무역정보 운영은 정보지원체제를 인터넷 지원환경으로 개편하여 화상, 음성 등 다양한 정보매체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무역거래알선 시스템 운영은 일본바이어 전용 일어시스템을 추가로 개발하고 거래유치를 위한 국내외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서울농업무역센터는 2002년10월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건설공사를 추진하겠으며 수출지원 종합기로서로서의 운영준비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자회사 민영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투자회사 관리입니다.

공사의 투자회사인 한국냉장 및 노량진수산시장은 정부의 공기업 경영혁신 계획에 따라 2001년 말까지 민영화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민영화추진 계획을 보고드리면 2000년까지는 조직 및 인력감축 등 민영화 기반조성에 주력하였으며 노량진수산시장은 기업매각방식으로 금년 상반기까지 민영화를 추진할 계획으로 기업설명회를 3월에 가질 예정이며 매각대금은 한국냉장의 경영정상화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한국냉장은 무수익 자산 매각 등 기업가치를 증

진시켜 하반기 중에 민영화를 추진할 계획이며 지난해의 국정감사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의 말씀을 참고해서 정부와 협의 추진할 것임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咸錫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鄭大根**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農業協同組合中央會長 鄭大根** 농협중앙회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농림해양수산위원회 **咸錫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금년도 농협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해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농어가부채경감특별법 제정으로 농가의 부담을 덜어 주시고 구축협의 경영부실과 통합비용이 지원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데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몇 십년 만에 내린 폭설로 과수와 시설채소농가의 피해가 막심하고 광우병 여파로 축산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농협에서는 오늘 노동조합 등과 함께 3,000여명이 서울 명동과 전국 주요지역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한우고기, 쌀, 과일 등의 소비촉진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신속한 폭설피해 복구를 위해서 자재와 자금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업인들의 요구와 여러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통합농협의 내실을 다지는 데 실질적인 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임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약속 드립니다.

다음으로 우리 농업과 농촌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농정에 높으신 식견을 겸비하신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농협의 부족한 부분을 지적해 주신다면 앞으로 농협의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다음 보고에 앞서 임원진을 소개하겠습니다.

농업경제부문 **盧義鉉** 대표이사입니다.

축산경제부문 **宋錫禹** 대표이사입니다.

신용부문 **玄義松** 대표이사는 오늘 은행장회의에 참석했기 때문에 **趙又鳳** 상무가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간부인사)

그럼 지금부터 저희 농협의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요약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시간관계상 2000년 주요성과는 보고를 생략하고 2001년 주요업무추진계획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咸錫宰** 그렇게 해 주십시오.

○**農業協同組合中央會長 鄭大根** 8쪽입니다.

저희 농협은 금년을 통합농협 기반 확립의 해로 정하고 역점 추진과제 여섯 가지를 선정하여 중점 추진하고자 합니다.

9쪽입니다.

첫째로 경영협약제와 평가시스템을 확립하여 대표이사 책임경영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대표이사 중심의 인사관리체계 확립과 관리회계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책임경영체제를 실현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조직 재정비 및 지속적인 구조조정 방안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9일에 조직개편과 정원조정을 단행해서 중앙본부 4개 부서 등을 축소하였고 이와 함께 추가로 명예퇴직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경영 안정기반 확보를 위해서 조합원 출자 증대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지난해에 도입한 임직원들의 500억원 우선출자와 내부적립을 확대코자 합니다.

12쪽입니다.

다음은 협동조합 계획과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통합 이후 2001년 말까지 총 27건의 개혁 추진과제를 선정하여 현재까지 8건을 추진 완료하였으며 내실 있게 개혁과제를 완결하기 위해서 회장직속으로 농협구조개혁분부를 설치·운영함으로써 개혁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농업인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법률구조기금을 확충하는 등 법률구조지원사업을 확대하여 농업인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소비자와 농업인 피해에 대응하는 등 농업인과 소비자보호사업을 더욱 활성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14쪽의 생산자·소비자단체의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증진 활동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농·축산물 생산지원 강화를 통한 농업경쟁력 제고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비자 기호변화에 부응하여 고품질 쌀 생산 확

대를 추진하고 쌀 작목반 3,600개소를 육성하여 고품질 쌀 생산주체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봄철 영농자재 종합서비스운동을 추진하여 비료, 농약 등 영농자재에 대한 적기 지원태세를 확립하고 농촌인력은행 운영 등으로 농촌의 부족한 일손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또한 RPC에 대한 경영관리를 강화하여 건전경영을 도모하고 소비지 쌀 판매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7쪽의 폭설피해 복구대책 추진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난 1월에는 임직원들의 성금으로 피해복구용 농기계를 구입하여 전달하는 한편 피해농가에게 복구자금과 자재를 적기에 지원하였습니다.

2월15일의 폭설피해에 대해서는 피해상황을 조속히 파악해서 각종 자금 지원 및 임직원 일손 돕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다음은 안전 농축산물 생산 지원입니다.

선진국 수준으로 출하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며 원산지표시 및 유전자변형 농산물 식별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구제역 재발방지과 광우병 예방대책에도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19쪽입니다.

최근의 광우병 우려에 대한 농협의 조치사항 및 향후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축농가에 대하여 남은 음식물사료 등을 사용금지토록 사전지도를 강화하였으며 임직원들을 홍보요원화하여 대국민홍보를 이미 실시하였고 오늘 쇠고기 소비 촉진 캠페인을 전국에서 일제히 개최하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자연과 상생하는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친환경농산물 생산작목반을 확대 육성하며 흙 살리기 운동과 연계하여 친환경농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1쪽입니다.

농업·농촌 정보화 추진을 위해서 농촌정보화 시범 마을 및 회원조합을 각각 30개씩 육성하여 농협의 자체브랜드인 반딧불이 PC를 금년 중에 2만대 목표로 보급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수입개방에 대비하여 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을 확대함으로써 한우사육기반을 유지하겠습니다. 또한 농업인 관련 추가 조세감면을 추진하여 농업인에

게 실익이 제공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지난해와 같이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23쪽입니다.

다음은 농·축산물유통개선으로 농가 소득지입니다.

유통개선 선도농협 171개 조합에 5,716억원의 자금을 지원하여 산지유통개선의 핵심주체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기존의 유통시설을 산지유통센터화하여 물류비용도 절감해 나갈 계획입니다.

24쪽입니다.

농·축산물수급안정사업 추진으로 농업인 소득 지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채소수급안정사업 물량을 80만t으로 확대하며 시설채소에 대해서는 출하조절약정사업을 신규도입하겠습니다. 특히 사과, 배를 대상으로 금년에 처음 도입되는 농작물재해보험 시범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코자 노력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소비지 유통망 재구축을 위해서 전국 공판장을 단일 분사화하여 책임경영체제를 구축하고 종합유통센터도 단일자회사 추진을 위해서 계속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축산물 소매유통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국내산 축산물 소비기반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26쪽입니다.

금년도 농·축산물 수출목표를 1억6,000만불로 설정하여 수출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조합당 수출액이 50만불 이상인 수출선도농협을 집중 육성하며 농협김치, 고려인삼을 수출전략 상품화하고자 합니다.

27쪽입니다.

다음은 농산물 디지털 유통기반 확충입니다.

인터넷하나로클럽 운영을 활성화하여 농산물 전자상거래 1,000억원 돌파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인터넷하나로클럽을 확대 개편하여 경제사업 전 부분의 전자상거래시장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28쪽입니다.

범국민 농산물 소비촉진대책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실류는 산지조합과 기업체·단체를 연계하여 산지와 소비지간 과일택배사업을 활성화하며 채소 및 축산물도 소비촉진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다음은 농협금융혁신으로 농업인 지원 역량을 확충하는 계획입니다.

농업자금을 차질 없이 공급하기 위해서 총수신 150조원 달성을 추진하고 회원조합에 대한 금리운용 지도를 강화함으로써 상호금융 대출금 중 순수영농자금은 금리를 조정해서 농업인 금융비용 경감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0쪽입니다.

농업경영종합자금제도 정착을 위해서 취급사무소를 확대하고 지원분야와 규모를 늘려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농업인 편익위주의 신용보증 지원체제를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31쪽입니다.

다음은 정부의 농가부채경감대책 추진지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해말 농업인들의 각별한 관심 속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제정한 농가부채대책특별법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임직원에 대해서 실무교육을 이미 실시하였으며 국민과 농업인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신청을 못하는 농업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건진경영 및 선진경영시스템을 구축하여 경쟁력을 높여 가겠습니다.

채권관리를 강화하여 고정이하 여신비율을 감축함으로써 크린뱅크-농협을 구현하고 인터넷뱅킹을 확대하여 금융을 디지털화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다음은 회원조합 건진육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원조합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구조조정 추진입니다.

조합의 합병 추진은 자율합병을 원칙으로 하되 자체경영의 정상화가 어려운 조합을 대상으로 추진코자 하며 지사무소를 2002년 말까지 500개 통합합을 추진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다음은 부실조합의 정리·정상화 추진과 사전예방체제의 구축입니다.

경영지도대상 조합을 선정하여 부실조합의 단계별 정상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부실조합 정리를 위한 기반을 구축코자 정

부와 공동으로 부실조합정리자금을 조성해 나가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35쪽입니다.

회원조합 경영건전화 지도·지원 강화입니다.

자기자본 확대를 통한 재무건전성을 높이며 고정투자 기준을 강화하여 경영의 효율성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각종 자금지원과 경영지도를 확충함으로써 회원조합의 경영지도 목표를 반드시 달성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조합의 경영투명성 제고를 위해 운영평가자문위원회 및 사외이사제도는 경영평가우수조합을 대상으로 중점 도입하고 상임이사제 도입으로 조합의 경영전문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조합장 선거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금년 말까지 472개 조합에서 실시될 예정입니다. 공명선거를 위한 선거관리지도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서 명실상부하게 공명정대한 선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WTO 등 농업협상 대응과 대외협력 확대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농협 내에 통상대책반을 구성해서 농산물 시장개방을 저지함으로써 우리 농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WTO국민연대 등 국내외 NGO단체들과 유기적인 공조체제를 강화하고 농업인의 의견을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금년 10월에 서울에서 개최되는 ICA총회는 ICA 회장 등 세계 100개국 250개 협동조합대표 2,000여 명이 참가하는 국제행사로서 성공적 개최를 통해서 세계협동조합 등과 연대체제를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9쪽의 일반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를 생략하여 자료로 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저희 농협의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咸錫宰 아주 간결명료하게 잘 하셨습니다.

○辛卿植委員 중앙회장님, 자료를 하나 부탁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순서가 끝입니다. 그때까지 자료 준비가 될 것으로 알고 부락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

에 있는 농협의 대형유통센터를 전부 단일 자회사로 만들겠다고 25쪽에도 나와 있고 말씀하셨는데 모두들 반대하는데 굳이 이렇게 강행하려고 하는데 현재 이것을 농협유통으로 단일 자회사하는 것의 장점과 단점 또 지금 같이 그대로 각 지역별로 대형유통센터로 두는 것의 장점과 단점을 자료로 만들어서 이따 질의 때까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農業協同組合中央會長 鄭大根** 그러겠습니다.

○**委員長 咸錫宰** 다음은 **李允鍾** 산림조합중앙회 회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山林組合中央會長 李允鍾** 존경하는 **咸錫宰** 위원장님 그리고 평소 우리 산림조합의 발전과 육성을 위하여 각별하신 배려와 지원을 베풀어주신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산림조합은 임업협동조합에서 산림조합으로 전환된 이래 전 임직원이 하나가 되어서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배전의 격려와 지도 있으시기를 바라며 보고드리기에 앞서 저희 상임임원과 집행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張一煥 상임감사입니다.

朴正植 상임이사입니다.

金正明 조합감사위원장입니다.

崔正鉉 관리상무입니다.

鄭喆仁 지도상무입니다.

朴旻 개발상무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임원과 집행간부 소개를 마치고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과 작년도 실적에 대해서는 작년 말 국정감사에서 보고드린 바 있어 8쪽의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은 회원조합 육성을 비롯한 8개항의 중점추진사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회원조합 육성입니다.

회원조합 가입을 확대하여 협동조직으로서의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동조합의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사업 전담기관으로서 건설한 조합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유림경영 기술지도입니다.

현장위주의 기술지도로 사유림 경영의 활성화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영세산주에 대한 협업경영지도로 효율적인 임업경영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전문임업 기술인력 확보를 위한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기능을 홍보 강화하여 대국민 관심을 제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자원조성 사업입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합원과 산주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체계적인 기술지도로 산림자원의 증대를 도모하겠습니다. 숲가꾸기 사업을 통하여 산림의 환경과 가치를 증진시켜 지역경제 개발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수림의 시범적 경영으로 사유림경영의 활성화를 유도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경영의 기반구축입니다.

산림의 효율적 경영관리를 위한 임도시설과 구조개량을 실시하겠습니다. 산림재해 예방을 위한 방사업의 완벽한 실행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내 휴양공간 조성 및 산촌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임업기능인 양성을 위한 임업기계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임산물 유통구조 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하여 산지와 소비자를 직결하는 유통구조를 형성해서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임산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권역별 종합유통센터 설치·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임산물유통센터는 현재의 문제점을 보완·개선해서 앞으로 적자운영이 되지 않도록 운영하겠으며 제2임산물유통센터는 2002년까지 강원도 동해시에 설치하여 연간 4만㎡의 목재를 문화재 내지는 사찰보수 등의 용재로 공급하겠습니다.

임산물 수집·공급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품질의 단기 소득임산물 생산을 지도하여 조합원의 소득증대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정기관 배정 및 수입권공매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생산농가에 피해가 없도록 적기에 공매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산물 수출증대를 위한 물류비 지원을 적기에 실시해서 생산자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원조합 금융업무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호금융 지원사업은 타금융기관과 차별하여 산지담보 등 조합원의 편의를 제공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책자금 용자 역시 적기에 대출하도록 해서 생산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녹색복권 발행입니다. 산림환경기능증진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녹색복권 발행을 실시함에 있어서 작년도 실적보다도 약 100% 정도를 초과달성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임지개발은 지금 베트남 현지에 조립하고 별채해서 수입하는 것 외에 인도네시아에 협동조합을 설치하는 등 해외 임지개발에도 최선을 다해서 성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咸錫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시간은 10분으로 제한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각 위원님의 질의가 끝난 후에 추가질의하실 수 있음은 물론입니다.

그러면 먼저 元喆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元喆喜委員** 어려운 가운데 우리 농업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시는 농림부 관계 단체장 여러분들의 노고를 먼저 치하드립니다.

그래도 이런 것은 좀 짊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농업기반공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기반공사는 최근 얘기를 들어보면 정부의 개혁조치에 대해서 가장 모범적인 공사로서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주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는 견지에서는 기획예산처 눈에는 잘 들었는지 모르지만 농민의 눈으로 볼 때는 개혁에 성공한 기관이나 하는 점에서 회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인사운영 면에서 물론 지난번 노조가 성명을 낸 것은 자기네 입장을 밝히는 것이라고 이렇게 양해를 하는 그런 것을 백번 감안하더라도 일선기관의 얘기를 들어보면 정부가 구 농진공사 중심으로 인사가 이루어지고 농조라든지 이런 사람

들이 인사에서 소외되고 있는데 실제 도단위로 다니면서 모든 업무를 추진하고 적극적으로 물관리라든지 이런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나 하면 일선 농조 출신들이 사실은 더 잘 알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모든 공사의 지방조직이 다 위의 눈치만 보고 맨 국회의원, 농림부장관한테 얘기해 가지고 압력 넣어서 예산 따오는 것이나 기다리고 있는 이런 실정으로 움직인다고 하면 밑의 공사의 움직임에 대해서 회의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사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경영에 대해서도 잘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왜 농민이 출자를 해 가지고 나온 농조의 재산을 전부 팔아서…… 정부가 내야지 수세를 폐지하면서 전봉준 이래 수세가 없어졌다고 얘기하는 것은 당초 그 수세를 정부가 대준다는 그런 전제조건이지 농민이 출자해서 만들어 놓은 자산을 팔아서 그것으로 충당을 한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달리하고 지난번 국정감사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문제의 시정이 있지 않을 경우에는 앞으로 농업기반공사의 모든 문제는 대단히 어려움에 직면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미리 경고해 두는 바입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동료 농림위원들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철저하게 관심을 가지고 같이 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그 다음에 농협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현재 농협의 여러 가지 업무현황에 대해서 모든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모처럼 어렵게 우리 농림위원회에서 당을 초월해서 농민을 위해서 부채경감대책법안을 만들었습니다.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여기에는 한나라당도 없고 민주당도 없고 자민련도 없습니다. 이것은 오직 농민을 위해서 한마음이었는데 이 부채경감에 대해서 회장께서 열심히 이 문제를 하시겠다고 업무보고에 되어 있는데 제가 일선에 다녀보면 지부장에 따라서 또 조합장에 따라서 이것을 이해하고 열의를 기울이는 사람에 따라서 엄청나게 농민의 이득에 차이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장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좀 특별시상제를 만들어서라도 모처럼 어렵게

만들어진 부채경감대책이 농민의 피부에 와 닿아서 이것이야말로 제대로 되고 있다는 것이 인식될 수 있는 선의의 경쟁체제를 만들어서라도 완성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저께 농림부장관한테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만 광우병사건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일본처럼 전략이 있는 나라는 자국의 농산물을 보호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온통 언론에 말려 가지고 독일산 미친 소가 넘어서는 것을 계속 TV에 방영하는 바람에 우리 소가 그 모양으로 된 줄 알고 쇠고기 소비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뭐니뭐니 해도 소비자들이 그래도 농협은 믿습니다. 아직까지는 농협의 신도불이라는 것을 믿고 있고 지난번 鄭大根 회장님께서 우리 농협은 절대로 외국산 농산물을 취급하지 않는다는 결의를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살려서 농협의 하나로마트 3,000개 매장에서 ‘한우는 보증합니다’, ‘광우병도 보증하고 한우도 보증합니다’ 하는 것을 대대적으로 선전을 해서라도 우리 국민이 믿고 찾을 수 있는 한우를 찾으려면 가까운 농협마트에 가기만 하면 있다는 공신력을 이번 기회에 제고하는 것으로 하면 어떠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인데 그 문제도 참고해서 전국의 매장이 이런 것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유통공사사장님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한냉의 민영화 문제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농협이 공룡인데 그것을 주면 더 공룡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경제사업이 독립이 되어 있으니까 모처럼 정부가 신뢰를 얻고 있는 LPC가 농협의 축산경제사업으로 통합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일원화해서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해주시고 재원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 정부가 비료계정 적자로 농협에 안 갚은 돈이 1조나 됩니다. 그 외상을 처리해서라도 주는 방향으로 해서 이것이 일원화된다고 그러면 한냉의 당초의 공익목적도 살고 민영화 취지도 이해되고 또 지난번에 산업자원부가 비료회사 남해화학을 농협에 주어가지고 잘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아울러 농협도 그것을 적극적으로 인수하려고 하는 의지를 보여 가지고 과거에 축협이 가지고 있던 LPC하고 한냉의 LPC가 같

이 보조를 맞춰서 우리나라 한우를 보호할 수 있는 유통대책으로 나가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는데 농림부가 응하지 않는다면 아마 여기 있는 전 위원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농협의 개혁과 경제사업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고양물류를 처음 고양시하고 계약 체결한 것을 신문에서 봤습니다. 회장이 나가셔서 고양시장하고 했는데 성남시에 이어서 두 번째 지방자치단체가 획기적으로 농협을 통해서 농산물유통을 개혁하려고 하는 시범사례가 되는데 지난번 성남시가 문을 열 때 제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온통 모든 성남 시민이 다 거기에 오게끔 하는 대대적인 홍보가 선행됐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오는 주부들한테 채소가 됐든 호박이 됐든 쌀 농산물이 있으면 그것을 덤으로 주어서라도 정말 거기 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분당사람들한테 선전이 됐더라면 그런 외국의 경쟁업체라든지 재벌기업의 유통업체들하고 경쟁에서도 선점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놓치지 않았느냐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물류센터 개장 전에 모든 고양시민한테 이것을 주지시켜 가지고 정말 싸게 덤을 주고 이렇게 해서라도 일단 고양농협의 물류센터가 문을 열 때는 고양의 주부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올 수 있는 만반의 대책으로 해 나가주시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유통회사 문제에 대해서 존경하는 辛卿植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물론 이것이 통합해 가지고 단일구매방식으로 나가는 장점도 없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농산물만은 공산품처럼 규격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또 그 산지에서 나는 상품을 팔아주어야 되는 농협의 당위성 때문에 지난번 충북지사도 만났는데 충북조합이 출자를 한 회사이기 때문에 도지사를 비롯해서 모든 공무원과 그 지역 농민이 합일적으로 청주물류를 지원을 했는데 이것이 농협중앙회의 단일회사가 된다면 우리는 앞으로 그런 의욕이 없어질 것이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전농이 밤낮 농협에 대해서 공격하는 것이 뭐냐 하면 중앙회 중심으로 간다, 모든 것을 왜 중앙회가 갖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을 생각해서라도 되도록이면 농민들이 출자할 수 있

는 자회사로 만들어나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선의의 경쟁도 되고 더 좋지 않느냐 해서 농림부장관한테도 그 문제를 얘기를 했는데 회장님께서 다시 한번 이 문제를 심도 있게 생각해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장단점을 辛卿植 위원한테 내면서 저한테도 내주시고 이 문제를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료회사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잘 나가고 있는 축협사료, 지금은 농협사료가 됐습니다만 거기에다 기존에 농협이 가지고 있던 일반사료회사의 약 20%의 시장채어까지 합치면 모든 사료를 주도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데 농림부가 이것을 전부 단위조합으로 주라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것은 경영의 ABC도 모르는 조치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농민의 손에 가고자 한다면 중앙에 있는 회사를 회원조합 중에서 사료를 활용하는 회원조합이 출자를 해서 움직이는 사료회사로 만들면 되지 운영은 통합해 가지고…….

지금 세계적 추세가 통합하고 우리나라 구조개혁이 그 방향으로 가는데 농협사료만은 거꾸로 세계적 추세와 우리 대한민국의 기본정책하고 반대되는 방향으로 농림부가 이끌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쁘게 말하면 현재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민간사료업계의 로비에 의해서 역행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좀 안 좋은 개연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의심이 들 정도의 정책을 취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농협이 단호한 입장을 가지고 나가주신다면 농수산위원님들은 내가 설득을 해서 농림부의 정책이 잘 나가도록 할 의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의욕을 가지시고 그 문제에 대해서 대처해 나가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咸錫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孫泰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孫泰仁委員 孫泰仁 위원입니다.

먼저 농업기반공사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시화호의 담수화는 정부에 의해서 포기선언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수 천억을 쏟아 붓고도 수질개선이 실패했기 때문에 사업 자체가 백지화되는 이러한 우를 범하는 정책이 국민들로부터 분노를 금치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농해수위원회에서 말씀드리기가 참 여러 가지로 눈치가 보이고 어렵기는 합니다마는 새만금간척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좀 깊게 해보아야 되

고 이것이 중단이나 재개나 이런 문제에 접해서 중단하는 한이 있더라도 또 다시 전철을 밟는 우를 범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환경부에서 지난해 말에 그동안의 환경대책을 종합평가한 결과 농업용수 수질개선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것이 정평입니다. 결국 확실한 수질보전대책 없이는 이 사업을 재개할 수 없다는 것이 환경부 내부적인 의견입니다. 또 경우는 다르겠습니다마는 해양수산부에서도 부정적인 반응입니다.

그런데 농업기반공사에서는 간척사업을 추진하는 시행기관이 되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수질개선대책에 관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본 위원한테도 이상없다는 설명을 몇 번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기반공사에 농경지 조성이라는 주임무가 주어진 이상 수질개선에 관해서는 더 이상 관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한 마디로 말씀드리어서 환경부가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면, 총리실의 물관리정책조정위원회에서도 결국 오늘날 사업재개나 중단이나를 발표하게 되어 있는 날이 오늘입니다마는 또 3월로 미루고 있습니다.

미루는 이유는 환경부에 다시 재검토를 지시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크게 증폭되고 있고 더더욱 환경 전문가들의 이야기는 이제는 확고하게 수질개선대책이 있을 수가 없다 시화호의 전철을 밟는다 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농업기반공사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수질개선대책에 관한 농업기반공사의 입장을 유보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사장님, 어떻습니까?

○農業基盤公社社長 文東信 이것은 지금 저희가 검토하는 것이 아니고 농림부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孫泰仁委員 농림부에서 검토를 하든 농업기반공사에서 검토를 하든 어쨌든 오늘 여기에 화옹호에 관해서도 시화호 오염원과 비교해 가지고 자료를 내놓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새만금간척문제에 관해서도 저희들한테 자료를 많이 주었지 않습니까?

수질개선대책에 관해서는 농림부장관께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제 말씀은 농업기반

공사에서는 이러한 자료를 안 내주시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동의합니까?

○**農業基盤公社社長 文東信** 수질문제는 저희가…….

○**孫泰仁委員** 아니지요. 화옹호 문제도 제가 조금 있으면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비교해 가지고 내놓으면서 수질개선에 자신이 있는 것처럼 하고 새만금간척사업에 대해서도 농업기반공사에서 저희 위원들한테 수질개선에 대해서는 걱정 없다는 그러한 설명을 왜 일일이 하고 다녔었느냐?

그래서 본 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 “이 수질개선과 간척사업에 관해서 농업기반공사가 십자가를 뭇 생각을 하지 마라!” 그 이상 설명을 안해도 되겠지요?

○**農業基盤公社社長 文東信** 저희가 이미 정부에다 수질개선대책안을 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안 된다면 저희도 방법이 없겠습니다마는 검토 중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위원님께 어떻게 답변해야 될지 좀 확실치가 않습니다.

○**孫泰仁委員**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미 환경부에서도 부정적이라 이 말입니다. 도저히 방법이 없다는 쪽으로 자꾸 기울어지고 있고…….

물관리정책조정위원회에서 이 사업에 관한 발표를 하게 되어 있는 것이 오늘 날짜 아닙니까? 그런데 또 3월로 미루어졌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제가 농업기반공사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업에 관해서 추진이다 수질개선이 어떻게 이런 말씀은 더 이상 안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하는 말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화옹호문제도 그렇습니다. 화옹호문제도 뒤늦게 1,300억원이 소요되는 수질개선대책을 세워 봤지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1,300억을 투입해 봐야 화옹호에 유입되는 3만t의 오폐수 중 반 정도밖에 처리할 수 없는 시설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수질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썩기 시작하면 계속 썩게 마련이고 거기에 대해서 엄청난 돈을 투입하더라도 개선될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여튼 총리실에서 결정이 내려지겠습니다마는 새만금간척사업 추진에 관해서는 아주 부정적인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전복의 꿈이기는 합니다마는 이것이 재개된다 하더라도 어쨌든 이것에 대해 국민적 여론이 비등할 것이라라는 데

대해서 미리 어떤 대비 내지는 그에 대한 예상을 해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입니다.

답변을 더 이상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에 농협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실조합문제인데요. 지금까지 경영지도를 해왔습니다. 98년부터 49개 조합이 20개 조합으로 합병되었고요. 또 20개 조합 중에서 작년 6월말까지 자본잠식이 되어 있는 조합이 6개 조합입니다.

그래서 오늘 현황보고에서도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금감원하고 농림부, 농협이 작년 10월에서 11월까지 부실조합에 대한 실사를 실시했지요?

○**農業協同組合中央會長 鄭大根** 예, 그렇습니다.

○**孫泰仁委員** 그런데 2000년6월30일 재무제표기준으로 해서 부실 우려가 있는 209개 조합 중 40개 조합을 제외한 169개 조합이 자본잠식 등 부실조합으로 드러났습니다.

부실 정도에 따라서 정상화, 합병, 청산을 시행할 예정입니다마는 농림부가 아직 공개를 안 하고 있지요? 3월달에 공개하지요?

○**農業協同組合中央會長 鄭大根** 지금 169개 조합 중에서 통합해야 될 조합 또 완전히 해산해야 될 조합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孫泰仁委員** 그것이 3월에 발표됩니까?

○**農業協同組合中央會長 鄭大根** 글썬, 경영 정상화할 수 있는 조합이 어느 정도 되느냐 해서 집중적으로 경영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 3월말까지는 아마 전체조합 숫자가 나올 것입니다.

○**孫泰仁委員** 여기에 대한 구조조정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공적자금 투입을 기대하는 것 아닙니까?

○**農業協同組合中央會長 鄭大根** 그렇습니다.

○**孫泰仁委員** 그러면 공적자금을 투입하려면 법개정이 필요하지요?

○**農業協同組合中央會長 鄭大根** 그렇습니다.

○**孫泰仁委員** 그러면 공적자금에 대한 지금 농림부의 대책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農業協同組合中央會長 鄭大根** 저희가 알고 있기는 농림부가 지금 공적자금을 투입할 수 있도록 법안을 만들어서 의원입법으로 지금 검토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孫泰仁委員** 예상되는 액수가 7,000억입니까, 1조 5,000억입니까?

○**農業協同組合中央會長 鄭大根** 저희는 한 1조 2,000억 정도 지원이 되어야 일선조합 부실문제를 완전

히 해소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孫泰仁委員 일반은행처럼 회수율이 기대가 됩니까?

○農業協同組合中央會長 鄭大根 아마 일반은행보다는 회수하는 비율이 높을 것입니다.

○孫泰仁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咸錫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朴容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容琥委員 朴容琥 위원입니다.

업무계획을 보고서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반공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농업기반공사가 지난 99년 매입한 김포매립지 330만평, 원금은 고사하고 이자만도 연간 600여억원 지금 그래서 매입 당시부터 2000년 말까지 차입이자가 852억, 전체 차입규모가 7,207억원 거의 1조원에 육박하는 그런 돈입니다. 결국 이 차입금과 이자가 정부재정으로 매우어 질 수밖에 없어서 국민부담으로 남을 것이 명약관화한 사실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반공사측도 국토연구원에 용역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대로 50%에 가까운 용지가 상업용으로 매각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매각될 경우에 용도변경은 있을 수 없다 하는 정부의 신뢰성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또 그리고 현대의 서산매립지와 의 형평성 문제도 또 제기될 것이 뻔합니다.

농업기반공사는 농지를 최대한도로 보존한다는 그런 문제 또 국민에게 부담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딜레마에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하루빨리 이자부담을 덜고 수입을 창출해 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와 앞으로의 대책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孫泰仁 위원님께서 지금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화옹호 문제입니다.

그 사업내용은 이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다 생략하고 화옹호 상류지역에서 유입되는 하수와 축산폐수에 대한 처리시설이 미처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물막이공사를 끝내면 화옹호는 또다른 제2의 시화호가 된다는 여론이 지금 비등하고 있습니다.

또 방조제 유실을 우려해서 선 공사 완료 후에 환경기초시설을 갖추어서 수질을 개선하겠다는 것이 기반공사의 입장으로 서로 대립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업기반공사는 제2의 시화호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라도 화옹호 방조제 공사는 환경기

초시설이 갖추어진 뒤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화호에 대한 문제입니다.

정부는 지난 13일에 85년 농업용수와 공업용수 확보라는 목표로 담수화를 추진한 지 16년만에 해수호로 전환을 결정했습니다. 1억8,000만t의 수자원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은 공염불에 그치게 되었고 방조제건설비라든지 하수처리비 이렇게 합쳐서 1조원이 넘는 혈세를 낭비한 그런 결과가 되었습니다.

더 큰 문제점은 조금 전에 孫泰仁 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시화호담수화 계획 포기가 화옹지구라든지 구봉지구 또 지금 말썹이 되고 있는 새만금 등 진행되고 있는 간척사업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지금 그런 얘기가 비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사장의 견해와 앞으로의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대답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통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본 위원이 국감에서 지적을 했듯이 우리나라 김치의 세계시장 수출현황을 보면 일본이 단연 7,646만 달러, 미국이 58만 달러, 홍콩 34만 그리고 기타 국가가 146만 달러로 일본이 97%로 이렇게 편중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일본시장에 편중되다 보니까 한국업체끼리 과당경쟁으로 인한 채산성이 악화되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제는 일본시장뿐만 아니라 신규시장을 개척해서 수출시장을 다변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여기 업무보고에서도 김치수출국가를 일본 중심에서 미주지역, 동남아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수출업체에 대한 시장개척용 판촉비 지원 등 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데 여기에 대한 사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주시요.

얼마 전에 냄새 없는 김치가 개발이 되어서 아주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치도 배추김치 위주에서 갓김치라든지 또 더덕김치, 버섯김치, 총각김치, 강화의 순무김치 이런 종류를 다양화해서 고급화하고 수출선도 다변화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사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통공사의 자회사, 조금 전에 업무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한국냉장과 노량진수산시장

은 올해 안에 민영화하기로 정부의 공기업 경영혁신 기본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한국냉장의 경우는 98년부터 2000년까지 3년간 346억원의 적자가 발생했고 차입금을 보더라도 자본금의 8.6배나 됨으로 해서 민영화작업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난 12월에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 결과가 지금 나와 있습니까?

○農水産物流通公社社長 金東泰 예,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지금 나와 있는데 아직 결산이 안 끝났기 때문에 영업실적에 대한 것은 반영이 안 되어가지고 2월말이면 나올 것 같습니다.

○朴容琬委員 그것이 나오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農水産物流通公社社長 金東泰 그렇게 하겠습니다.

○朴容琬委員 상반기의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한 정리라든지 무수익·저수익 자산을 우선 매각해서 하반기에 민영화하겠다 이렇게 업무보고서에 나왔는데 현재 무수익·저수익 자산은 어떤 것들이 있고 매각추진 현황은 어떤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구조가 취약한 기업에 대한 원매자 물색이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민영화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 민영화를 앞두고 직원들간에 도덕적 해이가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협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농림부 업무보고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마는 지난 12월에 농협과 국제종합기계주식회사가 농기계사업 공동협력을 위한 전략적 제휴를 체결했지요?

거기에는 ‘더욱 싼 가격과 더욱 철저한 사후봉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는 여기에 회의적인 견해를 가진 사람이 많이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농협과 국제간의 전략적 제휴문제는 농기계의 실 수요자인 농민이 얼마나 싸게 농기계를 구입하고 또 구입한 농기계에 대한 사후봉사를 얼마나 철저하게 받을 것인가 하는 것이 되어 있습니다.

농협은 판매장려금 인상분을 농민들에게 어떻게 환원할 것인지를 분명하게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농협이 기계판매수수료를 15 내지 16%로 증액함으로써 해서 경쟁대리점의 경영여건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일선대리점에서는 파업할 태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우리 농민들

의 피해가 더 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농림부장관은 농민들이 직접적인 가격인하 효과를 느낄 수 있도록 판매장려금 인상분을 가격에 반영을 해서 농민들의 실구입가를 낮추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이것은 연말에 가서 현물로 농민들에게 이익을 환원하겠다는 농협의 견해와는 좀 배치되는 그런 대답인데 농민들에게 어떻게 환원하겠다는 것인지 자세히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협에서 사후봉사가 향상된다고 주장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후봉사를 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 농협이 농기계 구입자금의 대출업무도 수행을 하고 전략적 제휴에 의한 국제 농기계 판매 사업도 하게 되면 정책자금집행의 불공정 시비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정책자금을 집행할 수 있는 방안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금감원이 지난해 10월 농협 종합검사 결과 채권 운용역 또 상호신용기회부부부장, 자본시장팀장 등 3명의 직원을 수뢰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지요?

그 내용은 이미 알고 계시지요?

○農業協同組合中央會長 鄭大根 예.

○朴容琬委員 그 내용은 여기서 다 얘기할 것이 없이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연합속보에도 오늘 나왔는데 이 세 사람이 검찰에 고발이 되었는데 그러나 한 달 여에 걸친 검찰조사 결과 지난 2월초에 3명은 무혐의 처리되어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이처럼 금감원이 농협에 대해서 직원들의 문책을 요구하고 그 내용을 검찰에 수사의뢰한 사건이 무혐의로 된 그런 일은 농협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감원은 검찰의 무혐의 처리에 대해서 그것은 법률상의 문제일 뿐 3명은 내부규율을 위반하고 수익률을 자의적으로 적용한 만큼 문책하는 것이 맞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그 3명의 당사자들은 재심을 요구할 계획인 것은 물론이고 행정소송이나 피해보상도 요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금감원과 검찰의 처분이 상반된 상황에서 농협의 처리원칙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앞으로라도 이같은 일의 재발방지는 물론이고 농협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분명한 입장을 밝히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여겨지는데 회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 주시고 또 한편에서는 농협직원들 사이에서 이번의 금감원 조치에 대해서 농협 길들이기가 아니냐 하는 말이 적지 않은데 여기에 대해서 회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咸錫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金洪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洪春委員** 거제 출신 金洪春 위원입니다.

여러분의 애국적인 노력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文東信 농업기반공사사장님께 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인사말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경영을 잘 하고 해서 우수기관으로 이렇게 선정이 되고 하는 데에 대해서 축하를 드리고 또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통합초기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질적인 조직원들의 통합 때문에 갈등이 있다, 그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하는 것이 보고서에도 나와 있어요.

보니까 농진공노조는 민주노총이 뒤에서 지원을 한다고 할까 또 농조노조는 한국노총의 지원을 받고 이런 상황 속에서 아마 사장께서 갈등해소를 위한 화합의 한마당을 실시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보고서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것이 상당히 애로가 많지 않겠는가 능히 짐작이 갑니다.

이런 때일수록 그야말로 사심 없이 어느 쪽에 편견이 없이 그러나 소신과 철학을 가지고 이런 일을 해결해야 될 것이다, 앞으로 그 전망이 어떠냐 이 점을 제가 질의합니다.

그 다음에는 여러 동료 위원들께서도 관심을 가집니다마는 새만금간척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은 현장에 가보았고 가서 우리나라의 역사적인 대역사구나 이것이 성공적으로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개인적인 소감을 가졌습니다.

또 외국에도 그와 같은 큰 역사가 이루어져서 지금 관광으로나 모든 면에서 성공적으로 세계사람들의 부러움을 받고 있는 곳이 있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이 이미 이 보고에 보면 보상을 100%를 다 해 버렸고 공사비도 8,000억원 이상 넣었고 이

렇게 어마어마한 일을 해 놓고 가다가 중지 곧 하면 아니 간만 못하는데 이것을 그냥 도로아미타불을 만든다 이것이 얼마나 국가적인 낭비가 되겠느냐, 무엇인가 보완책을 강구를 해서 이것은 추진을 해야 될 일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부가 이런 일을 소신 없이 좌고우면하고 있으면 끝이 없다 이것이지요. 우리나라에 과거에 포항·울산공단이라든지 경부고속도로도 그렇게 간단히 만인의 찬성 속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철학을 가지고 제대로 하면 끝까지 밀어 붙여야지요. 그러나 환경을 파괴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 사장의 소신과 또 그러한 것을 정부가 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설득과 이해를 시키는 것도 또 기반공사의 책무다 이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겠는가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鄭大根 중앙회장님께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여러 가지로 지금 풍조가 많이 해이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옛날에 70년대 새마을운동할 때 잘 살아보자, 근검절약하고 자조·협동하고 이런 정신이 많이 해이되었습니다.

별로 잘 살지도 못하면서 너무 잘 사는 사람들 흉내만 내고 그러한 풍조가 저는 농어민 사회에도 침투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농업인들의 새로운 의식개혁, 절약하고 더 열심히 하고 이런 노력을 하는 데에 대한 농협으로서의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것이 없다 이것입니다.

저는 그런 노력을 어떤 것을 하고 있는가, 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가 이런 점을 여쭙어 봅니다.

지금 보면 강원도에도 무슨 폐광을 카지노로 만들어 놓으니까 그 지방자치단체는 세금수입이 조금 들어오는지 몰라도 온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패가망신 한다는 이런 것을 볼 때에 국민의 정신계도를 위해서 이것은 독약이 아니냐 느껴집니다.

우리 농민들이 다시 한번 허리띠를 졸라매고 60년대, 70년대 그때의 정신으로 돌아가도록 의식을 개혁하는 것도 우리 농협의 중요한 업무의 한 일부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점에 대한 의견을 묻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며칠 전에 지방시찰을 갔다가 밀 가공하는 조그마한 공장을 방문한 일이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보리보다 빵을 많이 먹으니까 밀이야말로 제2의 주곡이 아니냐, 그렇다면 밀을 재배하는 분들에게 뭔가 인센티브, 유인책을 주

어서 재배를 독려하고 우리 밀을 가공해서 빵을 만들면 값은 좀 비싸더라도 이것이 건강에 좋고 말하자면 뭐 여러 가지 외국의 약 넣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되면 저는 값이 조금 비싸더라도 그것이 상당히 경쟁력이 있어 가지고 소비가 촉진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점에서 앞으로 밀을 재배하도록 독려할 용의가 없는가?

그 다음에 하나는 부실조합이 아주 과탄이 되는 것을 미리 미리 잘 챙겨서 대비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지방에 보면 신흥이 망해 가지고 예금했던 농어민들이 울고불고 하는 것을 볼 적에 왜 미리 미리 대비책을 세우지 못했느냐 이런 점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농협에도 여러 가지 부실이 있다면 미리 떨고 이러한 조치를 공적자금만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부터 잘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이런 점에 대한 어떤 예방책, 개선책에 대한 의견을 묻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농협이 단위조합장 선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마는 지방의 수협이다, 농협이다 이 선거가 우리 유권자들을 매우 오염시키고 지역에 면 단위로 분열을 가져오고 하여튼 선거의 폐해가 여기서 나타나고 이 선거가 나아가서 국회의원 선거, 도의원 선거 이런 큰 선거에까지 대단히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일선 단위조합은 중앙회장이 임명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공명선거를 위한 나름대로의 조합의 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요즘 미국 대통령당선자가 국방장관 린스펠드를 지명하면 곧 의회에서 인준 히어링이 열리는 것이 아니에요. 한참 뒤에 하는데 왜 그리 늦는가 알아 보니까 지명자의 그동안 세금낸 것, 무슨 탈법한 것 없는가, 빛이 없는가 여러 가지…… 또 국방부하고 관계되는 방위산업체 주식을 갖고 있으면 다 팔아야 됩니다.

이런 조치가 다 이루어진 다음에 그 서류가 오면 의회에서 청문을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참 걸려요.

이 농협의 조합장들도 농협 돈을 너무 많이 써서 연체를 하고 있다든지 여러 가지 자체적으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 정도로 말하자면 좋은 조합장을 선택하기 위한 이러한 노력 또 가장 기초선거로서 공명선거를 할 수 있는 노력을 할 용의가

없느냐, 대책은 없느냐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산림조합중앙회장님께는 이것을 하나 질의합니다.

여기 보면 이제 산림의 여러 가지 생산성이라 하는데 기존 산림의 보호도 중요하지 않느냐?

대도시 근교에 있는 산림의 형질을 변경시키려고 산주가 야금야금 베어서 고사를 시킵니다. 그래 가지고 얼마 있으면 이것을 택지로 변경한다든지 또 서울 도심지 내에도 산소공급원인 이런 임야가 조금 있으면 이것도 그렇게 해요.

이것이 물론 산림조합의 책무가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와 관계가 있겠지만 산소공급원으로서의 그린벨트를 유지하고 국민보건을 생각하고 환경을 생각할 때에 산림조합도 그런 면에 있어서 어떤 발언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정부 내에서의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 데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좀 연구를 해서 역할을 할 용의가 없느냐 이점에 대한 질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咸錫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金泳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泳鎭委員 金泳鎭 위원입니다.

농협에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500만 농어민의 3대 숙원이다 그렇게 우리가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농어가 부채경감특별법 제정 그 다음에 농림부로의 마사회 이관 그 다음에 농어업채해대책법 개정 이 세가지가 우리 농어민들의 한결같은 숙원이었습니다.

사실상 이것이 우리 농민단체가 지금까지 주장한 하나의 이슈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작년 말에 우여곡절 끝에 농어가부채경감특별법이 통과되고 무려 4조5,000억에 달하는 농어민에 대한 경감혜택이 부여되게 되었습니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이후에 온 나라가 야단이 날 때 우리 농정사에 보면 최초로 그때 농어가부채경감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을 때도 1조6,000억 정도만 수혜금액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비하면 결코 적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최근에 언론보도나 또 현지 농촌에 가서 여론을 들어보면 이 농어가부채경감특별법을 통한 조치가 시행되는 과정에서 아직 농민들에게 잘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잘 전달이 안 되고 있는데 어떤 보도가 아주 자극적으로 나갔느냐 하면 ‘농가부채특별법

시행했는데 지금 신청된 것이 겨우 3.6% 밖에 안 된다.’ 이런 보도가 메인뉴스에 나갔어요. KBS 9시 뉴스를 타고 전국에 나갔습니다. 심지어 외면하고 있다는 멘트까지 나갔어요.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아주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농림부장관에게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단단히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농협이 ‘3.6% 밖에 농가부채 신청이 안 됩니다.’ 하는 자료를 제시 안 하면 알 기관이 없어요.

이런 보도가 중간에 나가 가지고 아주 모처럼 우리 여야가 또 정부가 결단을 내린 이런 관련법 개정을 통한 조치가 현지에서 과소평가 된다는 농민들에게 피부에 와 닿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인식되도록 자꾸 이런 보도가 나가는 것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강력한 주의를 좀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하나 드립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이번에 폭설이 내려 가지고 당정회의도 하고 여야가 관계법도 개정해서 오늘 상임위에서 지금 채택을 했습니다마는 과거에 비하면 상당히, 예를 들어서 20%의 국고보조가 35%로 상향됐습니다. 제가 14년째 지금 농수산위에 있습니다마는 국고보조가 20%에서 한꺼번에 15%가 인상된 예가 없습니다.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철거비까지 다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선지급, 과거에는 준공되었을 때 나갔는데 지금은 농민이 원하는 대로 피해복구자금을 공정에 따라서 선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조치를 계속 해서 농민들의 요구를 입법을 통해서 반영하고 있는데 보도에 또 뭐가 이번에 나왔느냐 하면 ‘내가 1억 6,000만원의 피해를 입었는데 나한테 농협에서 5만원 용자해 가라고 통지가 나왔습니다.’ 농민 모습하고 같이 멘트가 그대로 나갑니다. 그러더니 나중에 기자가 이것 보십시오 하고 이것을 딱 들어 보이는데 농업협동조합 직인이 찍혀 있었고 5만원 용자배정통지서 그대로 가지고 무슨 서류를 해 가지고 오시오, 이렇게 그대로 나가요.

그러니까 전국의 국민들이 안방에서 그것을 그대로 보고 나도 봤어요. 아주 기가 막혔어요. 나중에 그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 하고 조사를 해서 알아보니 농협이 100억의 폭설지원자금을 5% 저리 자금으로 해서 지원한 것이예요.

그러면 농림부와 농협의 홍보기능은 뭐하는 것

이나 이거예요. 이런 왜곡된 보도가 계속 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입니까?

대처를 좀 단단히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내용도 좀 따져 보세요. 여기에 대해서 주의를 촉구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렇습니다.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 그 다음에 농어가부채경감특별법 제정에 따른 시행과정에 있어서 116만 우리 농민들이 농·축·수협을 통해서 필요한 자금을 지금 공급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시행되는 조치를 몰라 가지고 신청을 안 했다는 얘기는 한 건도 나와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협이 마치 대출금 채무자 명단을 가지고 채권확보를 위해서 확인을 받으러 다니듯이 아니면 농협이 우편요금을 들어서라도 전 농가에, 배달증명까지 첨부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모든 채무를 가지고 있는 채권자 명단을 보고 이 조치를 다 통보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농민들이 이런 조치에 대해서 오해가 되거나 혹은 실기를 한다든지 그 신청이 저조하다든지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하게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ICA총회 준비가 지금 농협에서 추진되고 있는데 굉장히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전통적인 농업국으로서 더구나 이 WTO시대에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미국을 비롯한 케언즈그룹 수출국들의 시도를 이번 기회를 통해서 조금 말끔히 씻는 그런 계기로도 삼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준비상황에 있어서 한 가지 좀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제농어업을 하는 수입국 의원들이 지난번에 시애틀에서 10개국 농림수산위원장 긴급회의 했는데 거기에 우리 한국 국회의, 저희 농림위원들이, 구체적으로 말하면 저와 여기 金洪春 위원님 그 당시에 尹漢道 위원님, 朱鎭旻 위원님 등 여섯 사람이 그때 시애틀에 갔습니다. 가 가지고 국제농어업 의원연맹을 결성하자는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그 10개국 농수산위원장들이 합의를 하고 작년 5월에 우리 국회의가 주도한 가운데 국제농어업의원연맹을 결성해서 창립하고 지금 활동 중에 있습니다.

FAO나 WTO로부터도 우리 이 기구와 연대를 해서 앞으로 농업의 발전에 기여하자는 제안도 오

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농협의 계획에 보면 많은 해외협동조합 및 국제농업기구와의 연대 교류협력을 강화한다고 하는데 여기 FAO라든가 WTO라든가 모든 기구가 들어 있어요.

IPAAF를 우리 국회가, 우리 농업하는 의원들이 제안해 가지고 40개국의 120명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여기에 같이 연대한다는 계획 자체도 없어요. 이런 것은 조금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IPAAF 총회도 금년 6월에 국회에서 2차 총회를 다시 하게 됩니다. 그때 ICA에서도 대표를 파견해 주시고 지금 회장을, 우리 鄭 회장님하고 브라질의 어떤 분이 공동 회장으로 되어 있지요? 그 공동 회장의 개막연설도 우리가 요청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회가 주도한 IPAAF와 농협중앙회가 지금 준비 중에 있는 ICA 총회 준비기구가 연대해서 효율적으로 WTO에 대응하는 이런 모임으로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ICA 총회 준비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오늘은 제가 시간이 제약되어 있기 때문에 확인할 수 없으니까 회장님께서 관계자에게 지시해 가지고 유기적인 연대를 해서 보고도 좀 해주시고 자료도 내주시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農業協同組合中央會長 鄭大根**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ICA에도 참여해서 하겠습니다.

○**金泳鎮委員** 그 다음에 농협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최근에 농림부장관께서 발표까지 하셨는데 정책자금의 취급기관을 다양화하겠다, 그래서 양질의 서비스를 수혜자인 농민에게 제공하도록 하겠다 하는 목적으로 농협이 지금까지 농림부가 지원하는 정책자금 취급기관을 전담했는데 이것을 일반시중은행에까지 확대시키겠다는 방침이 발표가 됐어요. 저는 이 발표를 듣고 어안이 병병했습니다. 이것이 도대체 웬 말인가? 현재 농협의 대 농민서비스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진단 결과 이렇게 나온 것인가?

제가 어제 농림부장관에게 도 이 문제에 대해서 따졌고 다시 재검토를 요청했습니다만 농협은 이 문제에 대한 견해가 없는 것인지 아무런 협조요청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일방적으로 언론에 보도되어서 기정사실화해도 되는 것인가, 아니면 여야 위원들에게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해서 협조요청을 하고 정책적인 변화가 되려면 검토가 필요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일선 시 단위 도단위 농협 같은 데서는 시·군급고 유치를 위해서 일반 시중은행하고 얼마나 피 터지는 경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농림부장관이 이 발표를 덜렁 내놓으면 어느 기관에서, 일선 시·군의회라든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농협에 이것을 맡기겠습니까? 그랬을 때 파생되는 문제를 회장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農業協同組合中央會長 鄭大根**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金泳鎮 위원께서 농협의 경영상황이나 농협과 농업인 관계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시는 분이니까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과연 그것이 정책적으로 옳은 방안이나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연구해서 농업인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金泳鎮委員** 아니요, 회장이 그렇게 답변하면 안 돼요. 이미 정책적으로 TV에 발표를 해서 그것이 문제가 있다고 여기서 지적하면서 피해 내지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기관의 장에게 묻고 있는데 ‘그러면 당신이 그것을 판단해 가지고 필요한 조치를 해주시오’, 그 말 아니에요? 그런 피동적인 답변이 어디에 있어요?

이제는 농협도 필요하면 입을 열어야 합니다. 입을 열어서 아닌 것은 ‘아니오’ 하고 말하세요. 농협이 아프다고 말할 때 여야가 혹은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같이 원군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 답변해 보세요. 이것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농협중앙회장 왜 말을 못 합니까? 농림부장관에게 바른말을 하시라 그 말입니다. 그래야지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을 검토해 가지고 필요한 조치를 해달라고 마치 공을 토스하듯 그렇게 답변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농협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을 밝히세요.

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만 유통공사에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6페이지에 보면 해외시장개척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하셨는데 유통공사가 지금까지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서 한 노력이 있습니다. 지금 사장께서 알고 계신 대로 뉴욕을 비롯한 시카고, LA, 워싱턴 등지에서 우리 교민들이 자생적으로 모국 농수산물박람회를 개최하고 합니다. 물론 유통공사가 각 시·도에 연락해 가지고 출품도 하고 그랬어요.

올해가 20주년이 되는 해라고 합니다. 20주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대대적인 기획을 해서 모국농산물을 해외시장에 알리는 큰 박람회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통공사에서 이것을 주채관으로부터 특별하게 파악을 해 가지고 유통공사가 여기에 보고된 대로 해외 농수산물 시장개척에 이런 좋은 전진기지를 십분 활용해야 됩니다. 여기에 당신들이 뭐가 필요하나, 우리 정부가 뭘 도와야 되느냐, 그런 문제를 좀 판단을 해 가지고 오늘 즉답을 하지 마시고 다음 위원회 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반공사에 아까 존경하는 金洪春 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중간에 문제가 발생하는데도 정부가 정한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무조건 밀어라, 저는 그런 말은 안 합니다. 그러나 새만금사업에 관한 것은 모든 면에서 현재 정부가 이것을 자꾸 공사의 계속여부를 미룸으로 인해서 문제를 자꾸 배가시키고 있습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어요. 우리도 대단히 유감의 뜻을 표명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농업기반공사가 이 문제는 분명한 입장입니다…….

지난번에 시화호 문제하고 관련해 가지고 이틀간을 TV에 계속해서 비치면서 거기 멘트나 결론은 새만금사업 문제를 제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는 정부의 목소리나 그 사업을 하는 담당기관의 입장이 없어요. 대단히 안타까웠습니다.

그전에 고속전철에 대해서 SBS가 ARS방식을 통해서 국민에게 여론조사를 했어요. 6대 4로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 여론 일부가 확인된다고 해서 그것 안 합니까? 아니잖아요. 경부고속도로도 과거에 60년대에 할 때 엄청난 반대가 있었어요. 심지어 88올림픽에 대해서도 반대가 있었지만 했어요. 한 결과 어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일을 추진하는 담당기관이 신문에 반론이 나오면 그 반론이 난 것에 대한 또 다른 반론을 여러 가지 독자의 소리라든가 혹은 홍보매체를 총동원하고 노력을 해 가지고 자꾸 부정적인 방향으로 빠져들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더 했으면 좋겠다. 또 지금 미루고 있잖아요?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咸錫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朴在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在旭委員 朴在旭 위원입니다.

먼저 농업기반공사의 직원 통합 문제에 대해 질

의하겠습니다.

농업기반공사는 다른 기관의 공기업 개혁 모델이 될 정도로 구조조정이 원만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월 단행된 3급 이상 간부 승진에 대해 전 농지개량조합 측은 편향적 인사라고 주장하며 사장 퇴진과 총과업 강행까지 주장하고 있어서 그동안 성공 이면에 가려져 있던 문제들이 수면위로 떠 오른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팽배하고 있습니다. 사장께서 이러한 사태를 보고 받은 적이 있으면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경영혁신과 변신을 통해 농업기반공사가 복지 농어촌건설의 중추기관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농지개량조합 측과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원만한 노조통합을 이루어내야 한다고 보는데 사장께서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새만금호 사업에 대해 묻겠습니다.

사장께서는 남북한 통일시대에 대비한 미래의 식량안보와 수자원 확보를 위해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업이기에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을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현재 환경단체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강행방침을 세우고 오늘 물관리정책조정위원회를 열어 결론을 내릴 방침이었으나 시화호의 담수화 철회 및 새만금호는 제2의 시화호라는 지적을 의식하여 발표를 연기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정부는 새만금호의 경우 시화호에 비해 물순환 주기가 유입하천 수질 등이 다섯 배 정도 양호하게 나타나 농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 수질관리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는데 문제는 현재 상태에서 문제가 아니라 공사가 완공되고 나서 발생할 수질오염이나 환경문제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사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눈앞에 보이는 문제만 해결하면 된다는 근시안적 사고로 인해 많은 국가 예산이 낭비되었습니다.

공사가 완료된 이후에도 앞으로 계속해서 농업용수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수질조건이 충족되고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확신할 수 있는지 전문가인 농업기반공사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농수산물유통공사에 질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수산물 가격 안정화와 규격화를 위

해 추진하고 있는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운영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정부의 유통개혁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농산물산지유통센터는 산지에서 수집, 선별, 등급화, 예냉, 가공, 포장, 저장, 운송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생산자 조직을 육성하여 도매시장 중심의 농산물 유통과 보완적 관계를 유지함과 동시에 고질적인 농산물 규격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1995년 시행된 이래 2000년까지 총 166개의 유통센터가 설립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분포를 보면 지역 농협조합이 64개, 지자체가 7개, 영농법인 등이 95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사가 2000년 실시한 99년 운영실적 분석보고서를 보면 총 130개 사업장 중 우수사업장은 농협단위조합이 6개소로 8.6%, 영농조합법인이 10개소로 16.7%를 차지하고 있으며, 부진사업장은 농협단위조합이 3개소로 4.3%, 영농조합 법인이 7개소로 11.7%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의 실적 분석을 보면 부진사업장이 7.7%를 차지하고 있는데 조합의 경영능력 외에 산지별 생산작물의 특성에 따라 냉동 창고의 가동률과 제품의 규격화률이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 별도의 보완책을 연구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농수산물유통공사가 그동안 실시한 운영분석 실적평가에서 부진사업장으로 선정된 사업장에 대해 어떤 조치를 내리고 있는지, 지원실태, 경영정상화 교육 및 사후관리 조치내용, 부진사업장을 보통사업장이나 우수사업장으로 전환시킨 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협중앙회에 대한 질의에 앞서 공정거래위원회가 13일 발표한 내용을 보면 광고와 다르게 만든 비료 제품 42억7,000여 억원, 13만8,000t을 판매한 농협중앙회와 7개 비료회사에 대해 법 위반 사실을 신문에 공표하도록 명령했다는 발표를 접하고 농협이 농민을 기만하는 이러한 현실에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며 농협관계자 여러분은 깊이 반성하고 농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농협중앙회로 거듭나기를 촉구하면서 수입 생우위탁관리법인 설립과 관련하여 농협의 입장에 대해 물어보겠습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생우와 쇠고기가 자유롭게 수입되게 되었습니다.

현재 한육우 사육두수를 보면 98년 238만3,000두에서 2000년 12월 159만두, 2001년 12월 전망 158만두로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으며 한육우 자급률

또한 98년 75.3%에서 2000년 53%, 2001년 전망 38%로 급격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농민신문에 “외국소가 몰려온다.”라는 기사를 보면 4월에 호주산 생우 700두가 첫 수입이 되는 것을 시작으로 매월 700두씩 연내에 5,000두 수입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농협 鄭 회장님께서 4월 중에 700두 규모의 생우가 수입이 되고 연속적으로 한 모선씩 정기적으로 수입이 된다는데 생산자 단체의 대표로서 느끼신 감정이 어떤지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나 다를까 경북 어느 지역의 농협 조합원들이 우선 수익이 생긴다는 이유로 수입되는 생우의 위탁 관리인이 되겠다고 해서 영농법인을 만들어 참여의사를 밝히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농협 회장께서는 이런 사항들을 파악하고 계시는지 이런 사항들을 잘 파악해서서 나 망하는 줄 모르고 우선 수익이 된다고 우리 축산업을 우리 스스로 망치는 일이 없도록 사전 예방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농협 조합원이 수입 생우를 위탁 사육하지 않고 우리 축산물 생산에 전념할 수 있는 대안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우리 농협 조합원과 축산관련 단체 회원들이 수입생우 위탁사육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물론 철저한 검역을 통하여 국내 가축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에 건의하고 조합원들이 우리 한우를 지키는 데 앞장설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농협의 위성 홈쇼핑 TV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국정감사시 농협 홈쇼핑 TV사업 참여에 대하여 질의하였으나 답변이 명확치 않아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39 홈쇼핑에서 농수산물 판매실적이 턱없이 저조하고 또한 감사원 감사지적사항으로 중도포기 지분을 회수한 사실이 있지요?

그 당시 39 홈쇼핑 주주로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39 홈쇼핑이 당초 약속과는 달리 농수산물 판매를 외면하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바라보기만 하다가 결국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39 홈쇼핑이 94년 방송허가를 받기 위해 만들었

던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농·축·수산물과 중소기업 제품 판매를 위한 방송시간을 전체의 67.8% 이상으로 편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실제 농·수산물과 식품까지 포함해서 8%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이런 쓰라린 경험이 있는 사항인데도 농·축·수산물을 해외로부터 엄청난 물량을 수입하여 우리 농민이 생산한 농·축·수산물과 경쟁하는 업체와 합자하여 TV 홈쇼핑 방송을 설립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행위라고 모든 농민단체들과 농민들의 의견이 들끓고 있습니다.

만약 39 홈쇼핑과 같이 실패한 선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재벌과 합자하여 또 다시 판매 부진을 면치 못하면 어떻게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인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협이 단독으로 TV 홈쇼핑 방송 설립을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아니면 재벌기업과 합자를 포기하고 전국농민생산자단체가 모두 참여하는 농수산물 전문 TV 홈쇼핑과 합자할 견해는 없으신지?

또한 지난 국정감사시 농협과 삼성물산이 49 대 51의 지분을 갖는다고 하였습니다마는 현재는 농협이 33.3%, 삼성물산이 19.3%, 기타 업체가 47.4%로서 당초 계획보다도 많이 변질되어 추진되고 있으며 사업승인이 먼저 나는 곳과 긴밀히 협조하여 농민에게 실익이 가도록 하겠다고 답변한 적이 있습니다.

농협회장께서 판단하시기에 어느 쪽이 실익이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무리하게 투기하듯 사업승인이 먼저 나는 곳에 투자를 하겠다는 것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거대 농협을 운영하는 鄭 회장의 모습은 아닌 것으로 아는데 회장의 본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솔직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咸錫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文錫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錫鎬委員 먼저 농협중앙회장께 물어보겠습니다.

요즘 일선조합에서 조합장선거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農業協同組合中央會長 鄭大根 예.

○文錫鎬委員 그 선거가 참 과열되었더라고요. 우리 지역에 가봐도 그렇고 다른 지역에서 들리는 얘기도 그렇고…….

그래서 자칫하면 그 선거 과열에 따른 후유증이 참 심각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왜 그런 과열상태에 있는지 혹시 그 원인을 파악해 보신 것이 있습니까?

○農業協同組合中央會長 鄭大根 파악해 본 적이 있습니다.

○文錫鎬委員 간단하게 답변해 보시지요.

○農業協同組合中央會長 鄭大根 농협조합장 선거 뿐만 아니라 지방의회 의원이라든지 선거 전체가…… 현재는 농협조합장 선거가 왜 그렇게 과열되었나 이렇게 질의하시면 한마디로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과열된 첫째 분위기는 솔직히 말해서 현재 풍토가 그런 것 같습니다.

○文錫鎬委員 우리 선거문화, 풍토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일반적인 생각일 뿐이지 원인을 파악하고 분석하고 했다는 답변이라고 볼 수가 없네요.

○農業協同組合中央會長 鄭大根 심지어 마을 이장선거만 하더라도 과열되니까 지역에서 그래도 제일 경제책임자를 뽑는 것이니까…….

○文錫鎬委員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그것은 파악했다고 하지 마시고 그냥 그렇지 않겠느냐 이렇게 의견 말씀하시면 끝나는 것이지 뭘 그렇게 거창하게 답변하십니까?

일선조합장들이 받는 급여, 상무급 급여 받고 있지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農業協同組合中央會長 鄭大根 상무급의 90% 수준을 받고 있습니다.

○文錫鎬委員 그것 외에 관공비나 업무추진비 이런 식으로 받는 돈이 얼마나 됩니까, 알고 있습니까?

○農業協同組合中央會長 鄭大根 조합장이 받고 있는 관공비는 현재 없습니다.

○文錫鎬委員 업무추진비나…….

○農業協同組合中央會長 鄭大根 업무추진비도 조합장이 업무추진비를 쓸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文錫鎬委員 자유재량으로 쓸 수 있는 돈이 얼마나 됩니까?

꼭 개인적으로 가져가는 돈이 아니라 조합장이 어떤 판단에 의해서 어느 사업에 내가 써야 되겠다 이렇게 쓸 수 있는 돈이 얼마나 됩니까?

○農業協同組合中央會長 鄭大根 조합장이 어느 사업부분에 예를 들어서 조합장한테 할애되어 있는 업무추진비는 현재 없습니다.

○文錫鎬委員 그럼 제가 하나 물어 보지요.

일선조합장들이 초상집에 가보면 향춃대라는 것

을 갖다 놓거든요. 그리고 잔칫집이나 이런 데 가면 조합장 명의로 해서 조합원들한테 봉투를 건넵니다. 물론 선거법 때문에 1만5,000원 이하가 되겠지만, 그 돈은 개인 돈으로 하는 것입니까, 조합원 돈으로 하는 것입니까?

○**農業協同組合中央會長 鄭大根** 그 돈은 조합에 산에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조합장 앞으로 책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文錫鎬委員** 조합 앞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집행회 조합장이 하는 것 아닙니까?

○**農業協同組合中央會長 鄭大根** 조합장이 할 수도 있고 조합장이 결원시에는 전무가 할 수도 있습니다.

○**文錫鎬委員** 물론 그런데 그러한 성격의 돈, 즉 조합의 항목 여하에 상관없이 조합장이 좀 생색을 내면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돈이 얼마나 됩니까, 파악해 보셨어요?

○**農業協同組合中央會長 鄭大根** 그것은 제가 일선 조합장할 때 제가 말았던 조합은 한 300만원이었습니다.

○**文錫鎬委員** 한 달에 300만원이요?

○**農業協同組合中央會長 鄭大根** 아니요. 1년 전체에 그렇습니다.

○**文錫鎬委員** 그것을 한번 파악해서 가지고 저한테 자료로 내 주세요.

○**農業協同組合中央會長 鄭大根** 알겠습니다.

○**文錫鎬委員** 일선 농민들 얘기는 조합장이 그와 같이 자유재량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돈이 엄청나게 많다, 조합에 따라서는 월 한 700만원 내지 1,000만원 가까이 된다 그래서 너도 나도 돈을 써서라도 당선되고 보자 하는 것 때문에 과열되었다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중앙회장께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니까 자세하게 만들어서 한번 내시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하셔서 걱정한 것인지 줄여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선조합 문제가 참 심각합니다. 알고 계시지요?

○**農業協同組合中央會長 鄭大根** 예.

○**文錫鎬委員** 제가 굳이 수치를 말씀드리지 않아도 상당한 조합들이 지금 부실한 상태에 있다, 자본잠식은 물론이고 자산보다도 부채가 많은 그러한 조합들이 지금 수백 개에 이르고 있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아까 보고에는 자체 정상화를 유도하고 그것이 안 되면 합병하거나 정리하겠다 이렇게 포괄적이고 막연한 계획을 지금 보고하고 계신데 그 구체적인 일정을 지금 마련하고 계십니까?

○**農業協同組合中央會長 鄭大根** 지금 농림부하고 부실조합정리대책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농림부가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文錫鎬委員** 언제까지 마무리하실 것인데요? 이 자리에서 말씀해 보세요. 약속하세요.

이 문제는 작년 상임위 때에도 그렇고 국정감사 때에도 그렇고 이것이 너무 심각하고 문제를 놔두면 놔둘수록 눈덩이처럼 부실이 커지기 때문에 결국은 농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농협중앙회도 더불어서 손해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대출금 지금 있잖아요. 또 궁극적으로는 공적자금 투입이나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민들한테 피해가 간다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해 주셔야 다시 우리 조합도 제 기능을 할 수 있고 국민들에게 누를 끼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프로그램, 계획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히세요. 어떻게 하실 것인지 언제까지 하실 것인지를 밝히세요.

○**農業協同組合中央會長 鄭大根** 이 부분에 대해서 농협이 독자적으로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힘은 없습니다. 이것은 정부가 반드시 개입해서 공적자금도 지원하고 제반 법률 등으로 부족한 점을 서둘러 개선해야 됩니다.

○**文錫鎬委員** 그것은 물론 알고 있고 농림부장관한테도 제가 촉구를 했습니다마는 농협중앙회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됩니다.

일선조합이 얘기할 수 있는 방법은 농협중앙회밖에 없잖아요. 농민들이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누가 있겠습니까? 중앙회장이 나서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자세하게 내용을 적어서 저에게 서면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반공사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작년에 경영수지가 적자였나요, 흑자였나요?

○**農業基盤公社社長 文東信** 지금 재경부에서 결산 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추계하기에는 20억 정도 흑자로 알고 있습니다.

○**文錫鎬委員** 통합직후에 1,250억 정도의 적자가

예상된다 그렇게 예상한 자료를 제가 봤는데 어떻게 해서 20억 흑자가 났을까요?

혹시 이것 아닙니까? 제가 어떤 자료를 보니까 작년엔 불용자산을 998억 매각을 했다 그랬는데 사실이지요?

○**農業基盤公社社長 文東信** 예. 그것도 일부는 기여를 했습니다마는 전부는 아닙니다.

○**文錫鎬委員** 이것 팔아 가지고 흑자 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農業基盤公社社長 文東信** 아닙니다. 중요한 요인이 많습니다.

○**文錫鎬委員** 그러면 이런 것 빼고 순수하게 경영개선을 통한 흑자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農業基盤公社社長 文東信** 제가 볼 때는 600억 정도 됩니다.

○**文錫鎬委員** 그러면 실사가 나오면 그 자료를 저한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흑자 났다고 대대적으로 선전을 하시고 한 모양인데 사실 이 흑자라고 하는 것이 이와 같이 불용재산 매각을 통해서 흑자 난 것까지 우리 흑자 났다, 경영 잘 했다 이렇게 선전할 수 있는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진짜 뼈를 깎는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단 1억이라도 제대로 이렇게 흑자 낼 수 있으면 그것이 더 소중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20억 났다고 절대 자랑하지 마십시오. 외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용이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물리적 통합은 되었는데 화합적 통합이 덜 되었지 않느냐 이런 지적들을 많이 합니다.

특히 존경하는 朴在旭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과거 농조출신 직원들이 인사나 급여에 있어서 아직도 홀대 당하고 있다 이런 문제가 심심치 않게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번 승진인사에 있어서 농진공 출신들만 우대가 되었다 이런 비판을 받고 있는데 물론 나름대로 사정이 있을 것이요. 그 사정에 대해서는 저에게 자세한 자료를 한번 내서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구요.

여하튼간에 경영자의 입장에서는 화합적 통합하려면 책잡히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됩니다. 비판의 소지를 근원적으로 없애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노조가 지금 세 개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것을 빨리 하나로 통합하는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

서서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서 제가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농수산물유통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국냉장 그리고 노량진수산시장을 민영화하겠다, 유통공사가 이렇게 경영합리화를 위해서 민영화하는 것은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전에 국정감사에서 그런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마는 한국냉장 같은 경우에는 단순한 어떤 기업이라기보다는 공적기능을 많이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農水産物流通公社社長 金東泰** 예.

○**文錫鎬委員** 보관하고 처분하고 출하조정을 통한 가격유지 이런 기능까지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의 공적기능을 과연 어떤 기관이 담당할 수 있을 것이냐, 이것을 민영화했을 때에 민간기업이 할 수 있겠느냐 못합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보완책은 마련이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민영화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일괄해서 어느 기업에 파는 방법도 있을테고 또 코스닥이나 증권거래소에 상장하는 방법도 있을테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텐데 그런 방안에 대해서 현재 어떤 방안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지 여러 가지 방안의 장단점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비교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산림조합중앙회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제1임산물종합유통센터가 여주에 있던가요?

○**山林組合中央會長 李允鍾** 예.

○**文錫鎬委員** 제1임산물종합유통센터가 그동안 누적된 적자가 31억 9,000만원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山林組合中央會長 李允鍾** 맞습니다.

○**文錫鎬委員** 물론 종합유통센터의 기능이 단순히 기업적인 측면으로만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이렇게 적자가 자꾸 나고 하면 결과적으로 조합원들 피해 아니겠습니까? 경영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또 제2임산물종합유통센터는 무엇입니까? 이것 또 건립한다고 하는데 여기는 적자 안 나겠어요?

○**山林組合中央會長 李允鍾** 같은 내용입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제1유통센터가 적자가 나지 않

도록 대책을 지금 수립하고 있고…….

○**文錫鎬委員** 그 대책이 무엇인지 좀 밝혀 주시고 이와 같이 막대한 적자에도 불구하고 다시 제2의 유통센터를 지으려고 하는 취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좀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咸錫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朱鎮旿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朱鎮旿委員**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간단하게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반공사는 계획이 성공적으로 되었다 자화자찬했는데 사실 찬사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방금 우리 文 위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경영개선은 600억밖에 안 되고 불용재산 매각해 가지고 998억 이익이 나서 흑자가 된 것 같은데 그것이 일부분에 불과했다 이것을 듣고 저는 사실상 굉장히 우려를 합니다.

조그만 회사도 두 개를 인수를 하면 그 구성원 들끼리 화합적 결합이 되는 것이 보통 어렵지 않습니다.

저도 서울신탁은행만 20년 거래를 했는데 30년 전에 합병이 된 은행도 서울은행과, 신탁은행과 하고 계속 싸워요. 해수부 통합 5년이 되었는데 아직 까지도 감사장에서 늘상 해양부 출신이다, 항만청 출신이다, 수산청 출신이다 그렇습니다. 그냥 사람 모은다고 해서 되는 것 아니니까 각별히 신경을 써서 검허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새만금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화호 이것은 건설부에서 했지요? 수자원개발 공사, 농진공에서는 방파제만 했고 1차적인 책임은 없었는데 비슷한 사업하니까 기반공사 입장에서 보았을 때에 수자원에 어떠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農業基盤公社社長 文東信** 대책을 완벽하게 세우지 못하고 공사를 추진한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朱鎮旿委員** 그러면 새만금은 대책을 완벽하게 세우고 시행을 하실 그런 생각이신 모양이지요?

○**農業基盤公社社長 文東信**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朱鎮旿委員** 그러면 그 대책을 세우는 것이 한 달 연장하면 대책이 세워집니까? 농수문제, 환경문제 등등 간단치가 않고 감사장에서 지금 2년, 3년 끌어오고 있는데 한 달 연기한다고 해서 대책이 세워집니까?

○**農業基盤公社社長 文東信** 아까도 말씀 올렸습

니다마는 어쨌든 공사 입장에서는 수질개선대책안을 정부에 제출해 가지고 그 자체가 검토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어떻게 말씀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대책에 따라서 저희는 추진을 하겠습니다.

○**朱鎮旿委員** 유지관리하는데 작년에 600억, 올해 1,000억 헛돈만 자꾸 들어갑니다.

또 우리 농해수위원회에서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의사개진을 수삼년째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책을 세운다니까 세우려면 철저히 세우되 한 달만에 된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농수산물유통공사에 묻겠는데 지난번 국정감사할 때 딱지거래하고 난 뒤에 전부 특감을 하고 대책을 마련한다 그러셨는데 대책이 마련되었습니까?

○**農水産物流通公社社長 金東泰** 예.

○**朱鎮旿委員** 이제 없습니까?

○**農水産物流通公社社長 金東泰** 기본적으로 물량이 부족해서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최대한 노력을 하는데 눈에 띄는 것은 거의 다 근절을 시키고 있는데 정부하고 협의해 가지고 원천적으로…… 가공공장에다 물량을, 원료를 제대로 못대주는 형편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소하면 근절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앞으로 전자입찰로 바꾸려고 합니다. 준비기간이 좀 필요하기는 하지만 그렇게 되면 거의 근절될 것으로 봅니다.

○**朱鎮旿委員** 보고서 한 장 저한테 보내주십시오.

○**農水産物流通公社社長 金東泰** 예, 지난번에 한번 보좌관계는 설명을 드렸는데…….

○**朱鎮旿委員** 하겠다고 하는 보고만 왔지 이렇게 시행한다는 보고를 못 받았기 때문에 확인차 물어본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한냉, 노랑진시장 이것 숨이 급합니다. 2월말까지 감정평가를 완료하고 3월에 기업 IR하고 4월에 매각하고…….

요새 경기가 엄청나게 나빠 가지고 더 더욱 더 1차 산업, 수산업 관계되는 회사는 흑자 낸 기업 없는데 팔라고 하니까 시간 맞추어서 팔려고 하는 것입니까, 어떤 민영화 방안에 대해서 세부적 검토를 하고 파는 것입니까?

○**農水産物流通公社社長 金東泰** 세부적으로 검토는 하고 그리고 IR전문업체도 이제 결정해 가지고…….

○**朱鎮旿委員** 왜냐하면 농수산시장 같은 경우에

외형은 140억밖에 안 되는데 땅값은 1,500억입니다.

○農水産物流通公社社長 金東泰 맞습니다.

○朱鎮旻委員 그러면 시장하려고 사는 사람도 있고 땅 사려고 사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러면 본래의 공적인 기능을 하기를 국가에서도 원하고 또 생산자도 원하는데 이것 부적절한 사람한테 넘어가서 되겠느냐 하는 우려가 없지는 않거든요.

○農水産物流通公社社長 金東泰 그래서 민영화가 쉽지는 않지만 정부방침이 그렇고 하니까 우리가 최대한 준비를 해 가지고 또 잠재 원배자들을 물색해서 공정하게 활성화된 입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朱鎮旻委員 농협에 아까 흡쇼핑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긴 이야기는 치우고 농협유통하고 삼성하고도 하고 있고 농협하고 농협단체도 하고 있고 3개 뽑는데 20개 회사가 신청을 한데 농협은 두 다리 걸쳐놓았는데 장관은 강요가 아니고 지도를 해서 한쪽 편으로 정리된 것 같이 이야기를 하던데 회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農業協同組合中央會長 鄭大根 흡쇼핑 방송은 사실상 저희 본회에서 추진한 것이 아니고 자회사인 농협유통에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朱鎮旻委員 농협유통도 들어보니까 지분이 50% 넘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지배주주가 되기 때문에 그것도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간에 대외적으로 문제없이 해주십시오.

그리고 소신 있게 하신다고 저는 참 찬사를 보냈습니다. 하도 답합을 많이 하니까 국제종합기계하고 OEM으로 농기계 생산을 해서 값싸게 공급한다 참 잘 되었는데 지금 농기계업체들이 로비를 해서 다른 소리가 난다는 소리가 들립니다.

○農業協同組合中央會長 鄭大根 아무리 다른 소리가 난다 치더라도 농기계값 인하를 위해서 하는 정책이니까 이것은 저희 농협에서 소신을 갖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朱鎮旻委員 소신 갖고 해야 돼요.

사실 동양의 그 친구 내 친구입니다. 내 친구이기 이전에 더 좋게는 자민련총재의 동서니 뭐니 해 가지고 상당히 힘이 좋다 그래 가지고 복잡하게 농협이 후퇴를 했다 이런 소리가 들려 가지고…….

○農業協同組合中央會長 鄭大根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朱鎮旻委員 鄭 회장이 하시니까 그럴 턱이 있는가? 소신 있게 미시겠지요.

○農業協同組合中央會長 鄭大根 그 대신 여기에 참여하겠다면 어느 업체든지 문을 열어 놓겠다, 어느 업체한테 독점 지우지는 않겠다 이렇게 계획된 것입니다.

○朱鎮旻委員 대출금 인하 문제 말입니다. 요새 담보 있는 대출은 시중은행도 7%, 8%이고 당좌대월도 8%입니다. 수신금리 자꾸 내려가잖아요. 농협도 역시 수신금리 한 1% 내렸지요?

○農業協同組合中央會長 鄭大根 예, 내렸습니다.

○朱鎮旻委員 그런데 왜 여신금리는 가만히 있습니까?

○農業協同組合中央會長 鄭大根 여신금리도 많이 내렸습니다. 조정하고 있습니다.

○朱鎮旻委員 상호금융 대출금리는 계속 10%, 11%인데, 당좌보다 비싸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農業協同組合中央會長 鄭大根 상호금융금리 부분에 대해서 존경하는 朱鎮旻 위원님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호금융에 대해서 금리를 전반적으로 다 내려라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농협에서는 현재 순수농업자금에 한해서는 은행권보다 낮은 조달금리 수준으로 우리가 공급하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朱鎮旻委員 그것 상세하게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왜냐하면 나도 신용금고를 해요. 예대금리 차이가 몇 %인지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몇 %입니까?

○農業協同組合中央會長 鄭大根 현재는 예대마진 차이가…….

○農業協同組合中央會長 趙又鳳 중앙회는 한 2.5%, 회원조합은 3.5에서 4%입니다.

○朱鎮旻委員 5% 가면 너무 많지요. 신용금고가 한 5% 되는데…….

○農業協同組合中央會長 鄭大根 5%까지 가지는 않습니다.

○朱鎮旻委員 사실 오늘 올 때 부실조합 정리 때문에 한소리 하려고 왔는데 와서 저희 지역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들었습니다.

농협에서 163개의 부실조합 특별감사를 하고 3월에 거기에 준해 가지고 청산을 하든지 회생을 시키든지 방향을 결정한다 그러는데 좋습니다.

그런데 결과를 보고 이렇게 썩었나 싶어서 놀라셨지요?

○**農業協同組合中央會長 鄭大根**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적자조합이 이렇게 많을 줄은 몰랐습니다. 거기에 축협조합이 한 80개 포함되어 있습니다. 축산조합은 적자요인이 어디에 있나 보니까 과거에 충당금을 제대로 적립하지 않고…….

○**朱鎭吁委員** 2년 동안 감사를 안 해서 그렇지요.

○**農業協同組合中央會長 鄭大根** 예, 그리고 금년도에 와서 금융감독원 기준에 따라서 재적립금을 하라고 하니깐 그런 적자가 많이 생겼는데 앞으로 회생될 수 있는 조합, 도저히 회생이 불가능한 조합을 선별해서 대책을 세워 나가겠습니다.

○**朱鎭吁委員** 대책을 세우는데 12월 말에 감사가 다 끝났고 3월에 종합적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국회에 한 번쯤 보고를 해 가지고 특별감사결과를 이야기를 해주면 나도 이렇게 놀라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農業協同組合中央會長 鄭大根** 예, 알겠습니다.

○**朱鎭吁委員** 그래서 이 회의가 끝나면 농해수 위원들한테는 특별감사결과를 대외비밀인 것 같은데 대략 요약적인 것만이라도 좀 주어야 될 것 아니냐, 왜냐하면 턱도 없이 희망 없는 것은 청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역 이해가 다 걸려 있고 농민들이 걸려 있기 때문에 공적인 자금을 좀 어떻게 줄 수 있느냐 그런 법까지 만든다, 두 가지 법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모른다 말이지요.

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은 없다 이것이지요. 공적자금이 꼭 필요하면 줄 수 있도록 농민을 다 같이 걱정하는 농해수위원 아닙니까? 같이 좀 고민을 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될텐데, 감사결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적자금 좋습니다. 그런데 턱없는 것은 청산하는 것이 더 좋으니까 청산도 과감하게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農業協同組合中央會長 鄭大根** 예.

○**委員長 咸錫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鄭長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鄭長善委員** 먼저 농협중앙회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장 어려운 시기에 중앙회장을 맡고 계십니다마는 지금 어떻게 하시느냐에 따라서 농협뿐만 아니라 나중에 회장님 개인 본인의 평가에도 큰 영향이 있는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RPC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지금 농협이 운영하고 있는 미곡종합처리장 195개소의 2000년도 결산결과를 보면 54%에 달하는 105개소가 적자를 봤습니다.

중앙회장님, 맞지요?

○**農業協同組合中央會長 鄭大根** 예.

○**鄭長善委員** 99년도에는 190개의 RPC가 20억원의 흑자를 냈습니다마는 2000년도에는 수지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것을 보면 지금 쌀 계절진폭이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제작년에는 7%였던 것이 작년에는 3%로 계절진폭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매출이익률이 제작년에 2.6%이던 것이 작년에는 1.9%로 떨어졌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쌀 재고는 올해에 1,118만석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적정 재고량의 2배 가까이 되어서 쌀 재고 처리가 심각한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쌀 재고에 대한 적절한 처리방안이 나오지 않는 한 RPC의 적자문제는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農業協同組合中央會長 鄭大根** 맞습니다.

○**鄭長善委員** 그런데 이 미곡처리장은 WTO에 따라서 우리 정부가 앞으로 수매를 점점 못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중심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런 상태로 가면 더 심각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나중에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고 정부하고 어떤 협의를 하고 있는지, 저는 양정정책 전반에 대해서 변화가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협의 의견이 어떤 것인지 어떤 건의를 하고 있는지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쌀을 보면 지금까지 어떤 지역쌀로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경기쌀로 둔갑이 되고 있고 질보다는 양 위주로 하고 결의 표시는 지역을 속이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가서는 우리나라 양정이 발전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지역으로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등급으로 표시하는 변화가 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양정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농협의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元喆喜** 위원님께서 사료문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는 아까 비교표를 달라고 했었는데 시간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안 하나는 중앙회와 회원조합이 공동출자해서 하나로 묶되 중앙에 자회사로 하는 방

안이 하나 있을 수가 있겠고 또 하나는 단위조합이 공동출자하되 중앙회를 흡수해서 만드는 방안 두 가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비교해서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것이 장점이 크고 농기업 개혁 관련해서 어느 것이 유리한지 나중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협부실 문제가 심각합니다. 아까 文錫鎬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부실조합과 건전조합을 하나로 묶을 때 동반부실될 위험이 높습니다. 따라서 저는 선 구조조정 그다음에 후 통합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나중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업기반공사 사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화옹지구에 대해서 설명을 대략적으로 받았습시다마는 제가 볼 때도 시화호하고 다른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화호처럼 그렇게 큰 문제가 되리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마는 그래도 완벽한 대책이 조치되지 않으면 환경문제는 우리가 항상 예측한 것보다 결과가 나쁘게 나오는 것이 거의 다반사입니다. 그래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수질개선대책을 보면 화옹지구는 대개 하수 담수량이 평택호 예산 3분 2 가량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택호 경우는 안성천 같은 큰 하천이 계속 유입되기 때문에 빨리 배출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화옹지구는 그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래 담수를 시켜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염저감시설을 보면 인공습지 그다음에 수초 저류지, 침강지, 인공식물섬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 대개가 얼마만큼 저감시킨다고 나와 있는 것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검증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확실히 더 검증을 하고 실험을 해 가지고 확신할 수 있을 때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정은 정부에서 다 하고 농업기반공사가 공사를 하니까 나중에 책임은 농업기반공사가 져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농업기반공사에서는 정부나 또 유관기관에 대해서 확실한 담보를 얻어내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략적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환경저감이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보다 더 많이 오버되더라도, 엄살을 피워서라도 저는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축산대책을 물어 보았습니다마는 축산농가 중에 거의 상당수가 지금도 무허가입니다. 그래서 무허가 축산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라고 했더니 이것을 전부 수거해 갈 것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다 일일이 수거를 해가겠습니까?

이런 문제 등에 대해서 나중에 문제가 없도록 종합적으로 사장님께서 하나하나를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대에서 이런 것을 만들었는데 시화호와는 다른 완벽한 공사가 됐다는 소리를 듣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만금에 대해서 간단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만금 문제는 정권적 차원이나 여야를 다 떠나서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면 3월에 공식입장을 밝힌다고 했습니다만 어제 해양수산부에서는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갯벌에 대한 평가가 정확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외국에서는 논보다 100배 가량 높다고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용역기관에 따라서 이것이 들쭉날쭉입니다. 농림부에서 용역을 준 기관에서는 농지가 더 가치가 높다고 나오고 해수부에서 용역을 의뢰하면 갯벌이 훨씬 높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갯벌에 대한 정확한 가치가 나와 있지 않은 상태에서 판단하기 어렵다 하는 것이 해수부 입장입니다.

그리고 환경부도 환경저감시설에 대해서 아직 확신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국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인공습지 같은 대규모 저감시설이 아직 우리나라에서 실험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쌀 재고량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쌀 농지확보를 위해서 새만금 갯벌을 간척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쌀 재고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쌀 경작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꼭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제가 건축기술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현대기술로 봐서 현 상태로 유지시키는 것이 꼭 불가능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5년이든 10년이든간에 유보를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후배들이 보다 정확하고 여러 가지 기

준을 더 확실하게 마련해서 판단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이 문제는 여야를 떠나서 또는 이 시대의 단기적인 이익보다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咸錫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金龍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龍學委員 金龍學 위원입니다.

우선 농업기반공사 업무에 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김포매립지의 정부 토지이용방안이 아직 확정 안 됐다고 그랬는데 언제쯤 확정이 되나요?

○農業基盤公社社長 文東信 원래 계획은 작년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도 각 부처의 의견이 다 집계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龍學委員 본 위원이 작년도 국정감사시 이 부분에 관해서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던 것으로 저도 기억합니다. 기존에 나온 것 외에 별도의 것을 제가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저것 많이 고려해 주십사 하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정부의 토지이용방안 확정 후에 세부실시계획이 마련된다고 그런데 아직까지 언제쯤 이용방안이 확정될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가다가는 금년에는 김포매립지는 아무런 사업시행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農業基盤公社社長 文東信 저희들도 직·간접으로 빨리 해 줄 것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확정이 안 된 사항입니다.

○金龍學委員 그리고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이용방안을 확정하는 단계에서 농업기반공사에서는 아무런 역할을 못하나요? 무슨 얘기냐 하면 농업기반공사에서는 나름대로의 사용계획 같은 것을 건의할 수 없느냐 하는 얘가지요.

○農業基盤公社社長 文東信 저희가 김포매립지를 관리하게 된 것은 근본적으로 정부방침에 의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金龍學委員 그러니까 단순한 관리업무만 떠맡았다는 말씀이신가요?

○農業基盤公社社長 文東信 아닙니다. 그런데 지침에 보면 기본사항입니다. 국토이용을 효율화하고 경제적인 가치를 최적화 할 수 있는 관계에서 토지이용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농지이용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자라든가 앞으로 처리될 때

까지의 비용도 국고관리 차원에서 검토를 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 저희 기본입장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국토연구원하고는 저희들 나름대로 최적의 방법이 그런 정도가 아니냐 하는 것으로 안을 정부에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어떻게 결정할지는 두고 봐야 알겠습니다.

○金龍學委員 농업기반공사에서는 본 위원의 견해가 어떤 것인지는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農業基盤公社社長 文東信 예, 알고 있습니다.

○金龍學委員 어떤 결론이 나오든간에 이 부분에 관해서는 아마 그렇게 쉽게 단순하게 처리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새만금호가 문제가 됐듯이 농업기반공사의 김포매립지 관리문제도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여러 가지 점을 참작해서 가지고 원래의 목적에 맞게 잘 이용방안이 마련되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새만금사업에 보면 금년도 예산 중에서 사업공사비로 한 8,052억 정도가 배정이 되어 있네요. 이 8,000여 억원의 세부 공사 내역이랄까 큼직큼직한 것들을 대충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으니까?

○農業基盤公社社長 文東信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잘 기억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金龍學委員 그러면 나중에 세부사항 내역을 서면으로 저에게 제출해 주세요.

그 다음에 농수산물유통공사 업무에 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한국냉장은 올 하반기, 노량진수산은 올 상반기에 민영화시킬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한 마디로 순차적 매각인데 우선 노량진수산시장을 상반기에 매각해 가지고 그 매각대금으로 한국냉장의 부채를 좀 갚고 경영을 정상화시켜서 좀더 높은 값으로 매각하겠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런데 노량진수산시장은 3월에 하도록 되어 있지요?

○農水産物流通公社社長 金東泰 기업매각설명회를 합니다.

○金龍學委員 어떻습니까? 상반기 중에 매각이 가능한가요?

○農水産物流通公社社長 金東泰 지금 잠재적으로 살 업체들을 저희가 물색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朱鎭旻 위원 질의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쉽지는 않은 일이지만 저희가 상반기에 매각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金龍學委員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노량진수산

시장의 매각이 이루어지면 한국냉장의 매각도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거든요. 이렇게 간다면 노랑진시장은 빨라야 연말쯤, 한국냉장은 내년도,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중간에 어떤 변수가 생기면 민영화계획은 다시 취소, 이런 좋지 못한 모양이 나타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본 위원도 그렇고 여러 위원들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매각과정에서 일부러 시간을 끈다 하는 느낌을 주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업무를 처리해 주시기를 우선 당부를 드리고 한국냉장 매각과 관련해 가지고는 존경하는 元喆喜 위원님도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정말 한국냉장의 특수성을 고려하시고 또 축산업의 특수성을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뜻인지는 아마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에는 유전자변형농작물의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앞으로 점점 더 심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공사로서는 외국산 농산물을 수입·공급하고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이 우리 공사에서 외국산 농산물을 수입하면서 유전자변형농작물을 선별해 낼 수 있는 기술이 있습니까? 저는 그것이 제일 궁금합니다.

○**農水産物流通公社社長 金東泰** 저희가 자체 기술이 있는 것이 아니고 계약할 때 그런 조건으로 하고 또 국제적으로 공인하는 데서 그것을 입증하도록, PCR법에 의해서 단계별로 미국에서 해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국내에도 앞으로 PCR법으로 할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金龍學委員** 문제는 상대 농산물 수출하는 나라에서 계약규칙대로 계약내용대로 지켜주면 좋은데 만에 하나 우리나라를 알보고서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우리는 잘못하면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거든요. 어떻게 보면 약소국의 설움처럼 비쳐지는데 결국은 우리가 그것을 검출해 낼 수 있는 기술능력을 갖추고 있어야만 상대방에서도 우리를 속이지 못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이런 유전자변형농작물을 검출해 낼 수 있는 항구적인 방법 같은 것은 강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農水産物流通公社社長 金東泰** 우리 국내 항에 도착할 때 정부 검사를 받을 때 GMO에 대한 검사를 받기 때문에 우리가 별도로 그런 검사기술을 확보할 필요는 없습니다.

○**金龍學委員** 그러면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만약에 계약조건을 어기고 유전자변형농산물이

수입이 되어 가지고 문제가 됐을 때, 적발됐을 때 우리는 어떤 조치를 취하나요?

○**農水産物流通公社社長 金東泰** 클레임을 제기했거든요.

○**金龍學委員** 지금까지 계속 해오고 있습니까?

○**農水産物流通公社社長 金東泰** 지금까지는 시행을 안 했고 지금 계약은 잘 이행되고 있습니다. 작년엔 5만t을 수입했는데 지금 허용치가 3%인데 거의 1% 미만으로 잘 지키고 있습니다.

○**金龍學委員** 제가 당부드리는 것은 그런 일이 생겼을 경우에 눈치 보지 마시고 과감하게 클레임을 거십시오.

○**農水産物流通公社社長 金東泰** 계약인데 저희가 눈치 볼 수도 없고요. 그것은 철저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金龍學委員** 좋습니다.

하여간 그 부분에 관해서는 나중에 눈치 봤다는 얘기가 들리지 않도록 확실하게 소신을 가지고 일을 처리해 주십시오.

○**農水産物流通公社社長 金東泰** 잘 알겠습니다.

○**金龍學委員** 고맙습니다.

다음에 농협업무에 관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농기계 문제입니다.

국제하고 농협하고 서로 제휴해 가지고 농기계를 보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문제는 다른 업체에서 다 죽겠다고 지금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잘 아시지요?

그런데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고 국제가 아닌 다른 농기계 제작업체의 농기계를 구입한 농민들이 피해를 보게 생겼습니다. 애프터서비스고 뭐고 다 못하겠다고 두 손을 들고 나오겠다고 지금 으르렁대고 있는데 결국 농협이 벌인 일인가 농협에서 마무리를 좀 지어주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農業協同組合中央會長 鄭大根** 농협이 처음 이 사업을 추진한 배경은 농기계 값을 무조건 낮추겠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문호를 열어놓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우리하고 조건이 맞으면 어느 회사든지 우리가 계약을 해주겠다고 이렇게 개방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가격을 못 낮추겠다 해 가지고 계속 우리한테 협조를 못하겠다고 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그 이상의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金龍學委員** 문제는 그 회사가 아니라 현재 그 회사에서 생산한 농기계를 가지고 있는 농민들이 문제거든요.

○**農業協同組合中央會長 鄭大根** 농민들에 대한 애프터서비스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金龍學委員** 예, 그렇습니다.

○**農業協同組合中央會長 鄭大根**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농민의 피해가 없도록 농협 자체에 농기계수리센터도 있고 하니까 최대한으로 농협이 지금 방향을 잡아 나가고 있습니다.

○**金龍學委員** 바로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농협과 제휴하지 않은 다른 회사에서 제작한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는 농민들의 농기계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꼭 국제 제품만이 아니더라도 최악의 경우에 농협에서 애프터서비스도 해주어야 된다는 결론이 나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農業協同組合中央會長 鄭大根** 농기계 부분에 대해서 제가첨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특정업체인 국제에다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농기계 값을 전체적으로 하향 조정해서 농민에게 실익을 주겠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농협에서 어떤 특정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특정업체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잘못 오해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절대 농협이 그런 것은 아니고 일단 농민한테 이익을 주고 농민한테 조금이라도 더 싸게 공급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더 첨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핸드폰 전화기에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 중에서 필요한 것이 있고 필요치 않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핸드폰 전화기를 가지고 수신·발신만 하면 되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장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운기를 예로 보더라도 여러 가지 장치가 다 되어 있는데 필요없는 부분을 부착해 가지고 농기계 값을 올린 부분이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농민한테 필요없는 것은 빼서 농기계 값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농협이 연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농협 안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가 있으면 지금 어느 업체든지 다 참여시

켜 주겠다는 것이 농협의 본취지입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龍學委員** 예, 감사합니다.

○**委員長 咸錫宰** 농협이 잘하시는 일입니다.

○**辛卿植委員** 국제 것이 싸요?

○**農業協同組合中央會長 鄭大根** 그렇게 하면 값이 내려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委員長 咸錫宰** 다음은 張正彦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辛卿植委員** 잠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委員長 咸錫宰** 예,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辛卿植委員** 張 위원님, 미안합니다.

저는 어저께 농림부 본부할 때는 일이 있어서 못 왔습니다마는 본부라면 다른 일로 좀 빠질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농업기반공사나 유통공사나 농협이나 임협이나 농민들하고 가장 피부를 맞대고 호흡을 같이 하는, 농사에 있어서 농민을 위해서 제일 중요한 기관들에게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따지고 있는데 보시다시피…….

보세요. 지금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참 정직하신 張 위원님 혼자 앉아 계시는데 이것이 어디 외부에라도 소문이 나면 농림해양수산위원 보고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위원장님께서 빨리 의식을 채우도록 노력하시든지 아니면 정회를 하고서 다시 모이든지 해야지, 이래 가지고 어디 되겠어요?

○**委員長 咸錫宰** 출석성적이 농림해양수산위원회가 좋은데, 다 발언하시고 자기 불일 보시고 계십니다.

張正彦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張正彦委員** 민주당 소속 張正彦 위원입니다.

통합 농협을 아주 훌륭하게 경영해 가지고 있는 중앙회장, 저간의 노고에 격려를 보냅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축협이 통합되었는데 그 통합의 효과를 이제 짚은 일선 농민 조합원이 체감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중앙회장님, 지금 일선에 있는 우리 농민 조합원이 이 통합의 효과를 얼마나 체감하고 있는지 한 두 마디로 말씀해 주십시오.

○**農業協同組合中央會長 鄭大根** 통합의 효과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張正彦委員** 아니, 지금 일선에 있는 우리 농민 조합원들의 입장에서 이것은 잘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지?

○**農業協同組合中央會長 鄭大根** 축산물 판매량이 전년도에 비해서 한 600% 이상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특히…….

○**張正彦委員** 아니, 일선의 우리 농민 조합원들의 지금 여론이나 그 체감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 것 인지?

○**農業協同組合中央會長 鄭大根** 축산물을 예로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축산물 판매량만 하더라도 농협 전체매장에서의 판매량이 축산조합 혼자 있을 때보다는 지금 현재 한 600% 증가되었고 예를 들어서 닭도 과거에 축협에서 관리할 때보다는 판매량이 570% 더 늘어났습니다.

그로 인해서 농민들의 농산물 유통판매사업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상당히 효과가 있었지 않느냐 이렇게 보아집니다.

○**張正彦委員** 상당한 예산과 또 시련을 겪으면서 큰 통합작업을 이루었는데 일선에 있는 우리 농민 조합원들이 바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주문의 뜻입니다.

○**農業協同組合中央會長 鄭大根** 예, 감사합니다.

○**張正彦委員** 중앙회장님, 일선의 우리 농민 조합원들이 예금금리는 내리면서 대출금리는 왜 안 내리느냐 하는 원성이 매우 높습니다.

朱鎭軒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농협이 올 들어서 정기예금금리를 0.2~0.5%포인트 인하해서 4~5%대의 금리시대를 맞았지만 중앙회의 대출금리와 일선조합 상호금융 대출금리는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따라서 농협이 예·대마진 챙기기에만 급급하다고 하는 이 여론을 중앙회장은 아시지요?

○**農業協同組合中央會長 鄭大根** 알고 있습니다.

○**張正彦委員** 농협 일선조합 상호금융 정기예탁금의 평균금리도 지난해 말보다 평균 0.6%포인트 이상 인하되고 있고 하향조정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출금리 인하는 좀 그러하지를 않아서 시중은행들은 가계대출금리를 계속 인하하는 추세인데도 유독 농민 조합원을 상대로 하는 농협의 상호금융 대출금리는 변동이 없어서 이러할 때……. 가뜩이나 어렵지 않습니까? 농산물 소비부진으로 고통을 겪고 있고 농민 조합원들의 입장에서는 매우 시련을 겪고 있는데, 시중은행 예·대마진보다 오히려 낮아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중앙회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협사옥신축을 왜 추진하는가 하는 이런 여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농협이 축협과 통합을 해서 상당한 사무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농협중앙회는 현재 사옥을 양재동 신사옥으로 이전한다는 계획을 백지화하고 지난해 12월에 이를 현대자동차에 매각을 했지요?

○**農業協同組合中央會長 鄭大根** 예.

○**張正彦委員** 그때 매각한 대금은 얼마입니까?

○**農業協同組合中央會長 鄭大根** 2,300억원입니다.

○**張正彦委員** 그것은 적정한 가격이었나요?

○**農業協同組合中央會長 鄭大根** 우리가 당초 투자한 전 자금은 지금 정확한 계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1,800여억원이었습니다.

○**張正彦委員** 좋습니다.

지금 신축을 해야 할 입장에서 걱정했는가도 검토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農業協同組合中央會長 鄭大根** 존경하는 張正彦 위원님께 지금 신축하는 부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런 큰 평수가 아니고 우리 본부에 짓는 평수는 자금을 앞으로 한 400억 정도 투자할 작정입니다.

그러면 현재 저희가 계산할 때에 양재동 건물을 2,300억원에 팔았으니까 그 매각대금 이자만 하더라도 이삼년 후에 한 400억 정도는 나오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신축을 당장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설계를 해서 계획을 한다면 한 3년 후에 완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사무소가 사실상 협소하니까 그런 자원 가지고 하는 것은 경영에 큰 압박이 안 오니까 한번 고려를 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張正彦委員** 연면적 9,000평 규모로 지상 16층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農業協同組合中央會長 鄭大根** 그렇지 않습니다. 연면적 8,000평 미만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공사규모는 400억 미만이 될 것입니다.

○**張正彦委員** 아무튼 3개월 전에 중앙회장님이 한 말씀이 있습니다.

고정자산 규모를 줄여서 농협사기를 찾겠노라고 그렇게 하시고 중앙회장이 큰 조치를 했는데 3개월도 되기 전에 또 사옥을 만들겠다고 하는 이런데 당혹하는 마음이 있어서 또 주변에 그런 여론

이 있어서 말씀을 올립니다.

한 가지 간단한 예를 드리겠습니다.

일선의 회원조합에서 농약판매사업을 하고 있는데 농약을 사 가지고 간 어린아이가 약해를 입었을 때 말하자면 사가서 그것으로 어린아이이지만 음독을 했다든지 했을 때 상당히 우려되는 책임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약해에 대한 보험 같은, 일선에 있는 회원조합이 이러한 상황일 때 극복할 수 있는 중앙회의 어떠한 조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통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해외에 농업무역관이 7개소가 있지요?

○農水産物流通公社社長 金東泰 5개국에 7개소가 있습니다.

일본은 동경, 오사카 두 군데 있고 미국에는 뉴욕하고 LA에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에는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 그리고 싱가포르, 중국 이렇게 7개소가 있습니다.

○張正彦委員 미주쪽 여기의 영업실적에 대해서 소상한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냉을 축산물 유통 주체로 개편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주문을 합니다. 지난해 구제역 발생으로 돈육수출이 중단되고 또 국내축산업 경영난이 매우 심화되고 있었습니다.

만약 이러한 상태가 지속된다면 올해 쇠고기 완전수입개방까지 겹쳐서 국내 축산업이 위기국면에 처할 것입니다.

사장은 이러한 상황을 참고로 해서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부는 공기업 한냉을 올해말까지 민영화를 완료할 방침으로 알고 있는데 사장께서는 한냉 민영화 실천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그런 복안을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따라서 한냉을 수입개방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민간기구로 개편해야 한다는 여론에 대해서 사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또 元詰禧 위원이 주문을 한 것이 있습니다마는 노량진수산물 기호매각방식으로 우선 민영화하고 한냉은 별도로 농협자회사로의 민영화를 통해 축산전문기구로 확대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서도 사장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咸錫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李方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方鎬委員 농업기반공사사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시화호 때문에 여러 가지로 국민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고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화옹지구 문제로 상당히 또 걱정을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보고서에 보면 그렇게 크게 대수롭지 않게 거의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업무보고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거기 수질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아까 사장님께서 보고하실 때는 거의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하셨는데 기반공사에서 총리실에 제출한 수질개선대책보고서라는 것이 있습니까?

○農業基盤公社社長 文東信 그것은 새만금만 있습니다.

○李方鎬委員 화옹지구는 없습니까?

○農業基盤公社社長 文東信 화옹은 지금 도하고 협의해 가지고 역할분담을 해서 환경대책에 대해서는 환경부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어떻게 승인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대책을 내놓은 상황인데 3월까지의 환경부가 결정을 해서 통보를 해 줄 것 같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할 것입니다.

○李方鎬委員 기반공사에서 보고서 낸 것은 없다는 말이지요?

○農業基盤公社社長 文東信 저희가 작성을 해 가지고 도를 경유해서 거기에서 환경부에 제출을 했습니다.

○李方鎬委員 환경부에 제출한 내용이 있지요?

○農業基盤公社社長 文東信 예, 있습니다.

○李方鎬委員 그 내용의 핵심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農業基盤公社社長 文東信 핵심은 보고서에…….

○李方鎬委員 알겠습니다. 핵심 정도는 사장님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초 금년 연말까지 될 것을 지금 2004년까지 연장을 해 가지고 방조제공사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계속해서 수질이 지금 오염되고 있다 말입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유입되는 양이 3만여t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처리용량이 1만5,000t 정도로 되어 있고 또 남양천이라든지 자안천이라든지 유입되는 그 지천들의 수질 역시도 연도별로 보면 계속 오염도가 높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볼 때에 과연 이것이

당초에 계획한 그러한 수질을 유지하면서 목표를 달성하고 합목적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러한 담수호가 될 수 있겠느냐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튼 여기에 대해서 시간이 없으니까 자세하게 서면으로 답변해서 내용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협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통합농협의 기치는 아무튼 조합원들에게 커다란 시너지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고 그 당시에 홍보도 했고 또 그것이 기본적인 목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과연 그러한 시너지효과가 있고 또 통합농협이 될 때에 농민들에게 약속한 여러 가지 약속들이 잘 시행이 되고 있는지, 물론 지난 7월에 통합하여 출범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효과가 나타나기는 좀 시간이 이르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지금까지 당초에 약속한 여러 가지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 약속과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대비해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지난 10월에 보면 농협개혁 2단계 추진계획이라고 해 가지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당초에는 통합이 되면 연간 경영관리비 절감을 3,000억 정도, 수지개선 1,000억 정도 이런 효과가 있고 그리고 불요불급한 고정자산 매각대금이 약 5,000억 내지 6,000억 정도 된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다 정리가 되고 이것이 다시 일선조합으로, 농민들에게 많이 환원될 것이라고 설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농림부하고 동시에 발표한 10월의 2단계 추진계획에 보면 당초의 이런 이야기들이 거의 빠지거나 아니면 계수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당초에 보면 불요불급한 고정자산매각을 5,000억 내지 6,000억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불과 몇 개월 뒤에 발표한 2단계 추진계획에 보면 그것이 3,400억 정도로 이렇게 큰 차이가 나요.

그리고 또 수지개선이라든지 그리고 경영개선효과가 한 4,000억 정도 난다고 했던 이야기들은 그 뒤에는 다 빠져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내용이 빠진 이유가 무엇이며 그리고 또 불요불급한 고정자산 매각대금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그것도 좀 자세하게 서면으로 나중에 다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그 당시 통합효과로서 영농자재라

든지 이런 것이 가격인하가 되어서 그것이 또 우리 농민들에게 여러 가지 도움이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매사업이라든지 생활물자사업이라든지 배합사료 이런 등등 이런 것이 전부다 원가절감이 되고 그래서 1년에 1,300억 이상의 원가절감 효과가 난다 이것이 다시 또 우리 농민들에게 공급가격을 인하하는 효과가 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고 진행상황이 어떤지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합원들의 저리자금 지원입니다.

조금 전에 여러 위원께서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마는 지금 모든 외국계의 금융기관들이 금리인하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 담보라든지 부동산담보는 자기들이 찾아와서 사정을 할 정도로 경쟁을 하고 있고 그것이 7% 됩니다.

그런데 지금 농협중앙회 여신금리가 몇 %입니까?

○**農業協同組合中央會常務 趙又鳳** 8.25%입니다.

○**李方鎬委員** 그것이 프라임 레이트입니까, 일반 애버리지입니까?

○**農業協同組合中央會常務 趙又鳳** 애버리지입니다.

○**李方鎬委員** 아무튼 지금 시중 금융기관보다는 2% 이상 차이가 난다고 보아야 되지요?

○**農業協同組合中央會常務 趙又鳳** 1금융권보다 오히려 저희가 낮습니다.

○**李方鎬委員** 아무튼 시너지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것을 통합을 해서 여러 가지 금융개혁을 해서 국민에게 그리고 농민에게 약속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거대한 조직이 시중금융기관과 경합을 해서 아니면 외국계 금융기관과 경합을 해서 아직 금리 차이가 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금리인하가 될 수 있는 경쟁력 확보방안 그리고 특히 일선조합에 저리자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여러 가지 약속을 했고 또 그것을 통해서 조합의 부실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장치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일선조합이 부실조합이 많이 나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중앙회의 여러 가지 방침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2단계 협동조합 개혁추진에 보면 구

체적으로 조합에 대해서 저리자금을 어떻게 해 주겠다는 그런 것이 다 빠져 있어요. 당초에는 다 되어 있는데 왜 2단계에서는 강한 의지가 포함되어 있는 그런 구체적인 계획은 다 빠져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 제가 지난번에 공적자금특위위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자료를 많이 접할 기회가 있어 가지고 봤습니다.

사실상 공적자금이 쓰여지는 과정을 보면 정말 도덕적 해이가 이루 말할 수 없고 그러한 공적자금을 관리한 정부 그리고 은행, 기업, 기업주 정말 이것이 법률로서 단죄해야 될 그런 많은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농협도 공적자금을 쓰는, 어떻게 보면 불명예스러운 그러한 기관이 되었는데 그런 가운데에서 작년 12월에 노사협의하면서 4.9% 인상이 되어 있고 또 금년 1월에 특별상여금으로 해서 100% 인상을 했습니다.

지금 농민들의 소득은 떨어져 가고 또 농촌사정은 어렵고 이런 가운데에서 농협중앙회 경영상황은 이 지수에 보면 상당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적자금을 받는 입장이고 농민들은 이렇게 어렵고, 농·축·산이 어려운데 직원들의 월급은 12월에 협상을 타결하면서 7월로 소급적용해 가지고 이렇게 결정을 하고 또 금년 1월 들어서 특별상여금으로 해 가지고 100% 인상해서 지급하는 이러한 사항들을 과연 농민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겠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유를, 사정을 서면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보면 99년도 감사원 감사에 보면 직원들에 대해서 인센티브 상여금을 300% 지급을 했습니다. 인센티브라고 하는 것은 일 잘하고 또 업적의 차이에 따라서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인센티브 상여금을 일률적으로 지급을 했다 그 말이에요. 아무런 업적의 차이라든지 직급의 차이 없이 다 지급했다 그러면 어떤 면에서 이것은 결과적으로 직원들에 대한 임금보전의 방편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시정지시를 했어요. 지시 받은 바 있지요?

그런데 지금까지 지적사항이 개선이 전혀 안 되었다라는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임금도 소급적용하고 또 특별상여도 그대로 지급하고 여러 가지 이런 사항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통합농협으로 출발해서 지금 많은 농민들이 정말 처음 당초 이야기한 대로 우리 농민들에게, 우리 일선 단위조합에 통합농협이 많은 지원을 하고 장기저리자금 아니면 농민들에게 조금 더 다가오는 그런 많은 서비스를 하리라고 기대를 했는데 아직까지 일선에 미치는 체감의 분위기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회장이 인식을 하시고 좀더 우리 농민들에게 또 일선 조합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는 그러한 농협중앙회가 되어 주실 것을, 금년 한해 열심히 해서 그런 한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연초 업무보고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크게 질책은 안 하겠습니까마는 금년 한해 여러분들 하시는 이러한 것을 격려를 하고 지켜보겠습니다. 열심히 해서 어려운 농민들의 정말 가까운 이웃이 되는 그러한 농협중앙회가 되기를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委員長 咸錫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崔善榮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善榮委員 崔善榮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끝까지 질의를 드리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우선 간단한 데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림조합중앙회장님께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목재가공공장이 지금 이천에 있지요?

○山林組合中央會長 李允鍾 예, 그렇습니다.

○崔善榮委員 그런데 2차로 지금 동해시 망상동에 짓고 있는데 국정감사할 때나 평소에도 많이 논란이 되었던 얘기지만 이왕에 시작을 하셨으니 제1 목재가공공장과 같이 적자가 나지 않고 참 좋은 경영이 되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산림청 사업을 지난번에 법으로 무슨 수의계약도 할 수 있다 법이니 뭐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열심히 막아드렸습니다. 그랬는데 산림조합에서 직접 직영을 하는 것인지, 임대사업 같은 것을 임대사업부가 있어서 직접 하는 것인지, 공사를 산림청에서 일반 지역의 업자에게 주는 것인지…….

○山林組合中央會長 李允鍾 저희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崔善榮委員 그러면 연간 산림청 사업을 대행해서 산림조합에 플러스가 얼마가 되는지 금액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山林組合中央會長 李允鍾 예.

○**崔善榮委員** 유통공사사장님, 한냉이나 노랑진수 산시장 민영화한다는 것은 지금 시대에 바람직하지만 또 다시 공사로 한다고 그러셨지 않습니까? 공사로 다시 발족을 할 계획으로 굳어져 가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農水産物流通公社社長 金東泰** 전혀 그런 것 없습니다.

○**崔善榮委員** 왜 어디 국정감사 가서 그 얘기가 한참 나왔었는데요.

그리고 지사가 있는 데가 일본에 두 군데 중국, 미국 등 해서 일곱 군데 아닙니까? 거기의 인원비례 또한 사업계획 대 실적이 정말로 인건비도 안 나오고 마이너스가 되어서 지사라고 이름만 걸고 비용만 들면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데 그 인원이 다시 들어와서 여기서 발령을 받는다고 하면 소용이 없고 그 지사에 한해서는 아주 문닫는다 하면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채찍이 되지 않을까 해서 지사에 대한 운영이라고 할까 계획을 좀 단단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농업기반공사는 아까 어느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까운 데 있으니까 우리 지역을 말씀드리면 통상 대의원이다 이런 농조에 깊이 가담을 했다 그럴까 잘 다니던 친구들 얘기는 좀 조금 있다 해도 되겠다고 합니다.

기반공사에서 다 쓰고 직원은 농조 직원 다 털고 자기들 먹고살기 위해서 우리 재산 다 팔아간다 이런 얘기가 팽배하답니다. 그래서 불용재산 팔아 쓰는 것은 팔아 쓰는 것인데 그것도 시기적으로 몇 달도 안돼서 1년 이내에 여기저기 농조는 재산이 많은데 그것을 다 팔아간다고 아주 불평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술적으로 그런 불평이 없도록 좀 감안해서 연차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처분하는 것은 좋은데 한꺼번에 많이 이루어지니까 그런 현상이 나지 않나 우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농협중앙회장님께 말씀을 드리겠는데 원체 방대해서 말씀을 드리려면 너무 많습니다.

간단한 것부터 묻겠습니다. 회원조합 건물을 짓는데 중앙회가 짓는 것도 아니고 교류센터에서 짓는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農協協同組合中央會長 鄭大根** 교류센터에서 짓지는 않았는데요.

○**崔善榮委員** 교류센터라고 하던데요?

○**農協協同組合中央會長 鄭大根** 인테리어 같은 그

런 조그마한 부분적인 것을 교류센터가 관계를 하고 있지요. 참여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崔善榮委員** 저는 거기서 짓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元 위원님 하고도 얘기했는데 농림부와와의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4촌쯤 됩니까, 8촌입니까?

그러니까 농림부 산하기관입니까, 별도법인이었습니까?

어떤 때 보면 사촌 같고 어떤 때 보면 이상하게 남 같고 또 논농업직불제에 따른 자금지급 창구가 지금 다원화되었지요? 아까 바깥에서 들으니까 金泳鎮 위원이 말씀을 많이 하시던데 청와대 이런 데 오실 때는 4촌 같이 가까워 보이고 이런 것을 볼 때는 남만도 못하고 그래서 관계를 아주 확실히 위원님들이 알 수 있게 설정 좀 해주시는 날이 있기를 바랍니다.

산하기관도 아닌데 꼭 국감 받아야 하고, 국감도 좋습니다. 정책자금 지원 받은 것을 어디다 썼는지, 물에 탔는지 논에 부었는지 모르니까 그런 것 감사 받는 것은 좋은데 운영, 인사까지 다 받는 것을 보면 그것 참 이상한 기관이다 하는 느낌을 갖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에 구조조정이라고 해서 아까 언제까지 500개 지사무소를 통·폐합한다고 그랬는데 부친하고 우리 오정하고 두 군데가 지금 없어졌는데 거기 예를 들면 저 오지의 회원조합보다 더 큼니다. 예수금부터 흑자라고 할까 한 11명, 12명이 나가 있는 분소에 한 180억, 150억 예금 가지고 상호금융하면 살만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없애버립니다.

그러면 나는 4촌도 아니고 동생도 아니니까 없어지는 것은 좋지만 그 인원이 실업자입니다. 한쪽에서는 실업자 만들어 놓고 한쪽에서는 무슨 실업자취업창구를 만든다고 뭐 가르치고 취업 알선하고 난리를 칩니다.

그것은 중앙회장님이 책임질 일이 아니고 정부가 책임질 일이지만 한쪽으로는 실업자를 계획대로 만들고 또 실업자구제라고 합니까 보호하는 창구를 만들어서 야단법석입니다.

지금 중앙회의 상호금융 지원을 받는 일선 조합수는 대개 몇 개나 됩니까?

○**農協協同組合中央會長 鄭大根** 상호지원자금을 받는 조합은 1,000개 조합…….

○**崔善榮委員** 그러니까 자기조합에서 예금 가지고

대출할 수 없는 조합, 중앙회에서 여기…….

○**農業協同組合中央會長 鄭大根** 상호금융이 부족해서 지원을 받는 조합은 현재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몇 개 안 됩니다.

○**崔善榮委員** 많이 좋아졌습니까?

그런 데는 합병을 안 하려고 해도, 쉬운 말로 없는 사람은 합병을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 결과가 그저께 농림부 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위험수위에 와 있습니다.

조합장 수당이 많아서 96년, 97년 IMF 이전까지는 조합장 해봐야 한 100만원 주었는데 지금은 전무급이라고 그러니까. 전무급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4,000인가 5,000 곱하기 4년 하면 2억 그레 가지고 선거에, 그저께 농림부 때 한 속기록 한번 보시면 가구당 10만원 심지어 30만원씩 돌리고 내년도에 지방의회 선거도 있는데 먼저 하면서 제일 흐려놓는 것이 이 단위조합장선거라고 우리 위원회에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 위험수위에 와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조합장선거가 금년에 많이 있습니까?

○**農業協同組合中央會長 鄭大根** 예, 금년에 한 450개 조합이 있습니다.

○**崔善榮委員** 내년에는 더 많은데 그것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내가 해봐도 어떻게 막을 수 있는 무슨 좋은 아무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다음 선거에 들어가는 지방의원이나 그 다음에 국회의원 선거에 들어가면 한 1,200명, 1,500명 되는 조합에서 셋, 넷이 싸워서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나오는 말처럼 2, 3억씩 쓴다고 하면 한 10억을 뿌리는데 그렇게 받다 보니까 국회의원이라고 선거에 나와서는 얼굴만 비치니까 선거에 참여도 안 하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은 것 같아서 장관한테 막 농협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의라고 할까 질타가 많았습니다.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영어를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BIS비율을 높여야 된다고 지금 출자상한을 3,000만원씩 만들어 놨습니다. 단위조합 출자는 적을수록 좋습니다. 나는 옛날에 100만원 이상 가져오는 사람들 안 받았습다. 우리 농협이 괜히 그 사람 안전하게 돈 장사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3,000만원씩 하니까 요즘에 어떻게 도로로다 한 2,000평 들어가는 사람, 500평 들어가는 사람들, 줄부들 3,000만원씩 평평 넣습니다. 안전하게 10% 장사해 주지요. 조합에서 배당 뭐해서 또

1순위지요. 풀어놓고 보니까 정말 있는 사람 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개발된 리에 가면 출자배당을 가지고 나갈 때 봉투가 이렇게 크고 옛날부터 있는 부락에 가면 봉투가 요만큼 입니다. 10만원, 20만원 출자했으니까 1인당 주어봐야 1만원, 2만원, 100명 있어야 100만원이니까 요만큼 가지고 나가고 이런 큰 개발된 부락, 1,000만원, 3,000만원 되는 개발된 부락에 나갈 때는 이용금배당, 출자배당 합쳐서 보따리로 하나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있는 사람 돈 장사 시켜주는 것이 출자 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출자를 얼마 늘이라고 그러지 한도를 자꾸 늘이니까 이것 3,000만원씩 평평……. 아주 여기 출자해 놓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다시 조정해 주었으면 합니다.

말씀드릴 것은 많습디만 시간도 있고 또 농협은 항상 제가 건의도 드릴 수 있는 기관이어서 이상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咸錫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李相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培委員** **李相培** 위원입니다.

기반공사사장님께 새만금사업을 정부에서 확정시켜 놓고 지금 또 한 달 발표를 연기했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대단위 농업개발사업, 이것이 지역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만 여기 일곱 군데 계획을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왜 영남지역에는 하나도 없습니까? 다 완료되어서 그렇습니까? 한 개 지역도 없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림조합중앙회장님께 묻겠습니다.

이것은 산림청하고 같이 하시겠지만 지금 묘목 생산을 하고 있는데 전에 생산하던 묘목을 계속해서 생산하고 수종이 바뀌어지지 않았는데 이것을 유실수로 한다든가 조경수로 한다든가 이런 방법은 없습니까? 특히 감나무가 산림청 소관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산림조합에서 관심을 가지고 유실수의 보급을 확대하는 방법, 전에는 밤나무도 했습니다만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통공사사장께 묻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축산물 돼지고기, 닭고기는 작년엔 7,800만불이 수출실적인데 금년에는 어째서 800만불밖에

는 안 됩니까?

○農水産物流通公社社長 金東泰 구제역 때문에 금년에는 아직 돼지고기 수출이……. 9월 이후에 청정지역이 되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그것이 아직 확실치 않기 때문에

○李相培委員 800만불 어치는 어디로 갑니까?

○農水産物流通公社社長 金東泰 돼지고기 한 400만불, 닭고기 한 400만불, 돼지고기는 홍콩하고 필리핀에 주로 나갑니다.

○李相培委員 그리고 한국냉장에서 한국축산용 기어이 새로 만들려고 하는 것으로 신문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까 元喆喜 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한국축산을 농협에서 인수하는 방법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 국정감사 때도 얘기가 있었었습니다만 사장께서는 금년 상반기까지 이제 서너 달밖에 안 남았는데 상반기까지 민영화를 한다고 그리고 또 유통공사의 자회사인 한국냉장에서는 계속해서 한국축산을 자기들이 서로 설립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어째서 계속해서 안 맞습니까?

○農水産物流通公社社長 金東泰 한냉 민영화는 연내이고 노량진수산은 가능하면 상반기에 매각하는 것으로 해서 하는데 공사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李相培委員 한국축산은 신문에 잘못된 것입니까?

○農水産物流通公社社長 金東泰 예,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李相培委員 농협회장께 물겠습니다.

회원농협예금 가운데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금리가 지금 10.5%에서 7.5%로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이것을 조합조달금리 대비하면 역마진이 발생하는데 기본금리 인하분만큼을 정부에서 장려금으로 금리를 인상해주면 결국은 농민예금 이용에는 변동이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농촌지원 측면에서 그런 생각은 안 가지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회원농협에 특별대환대출, 이것이 98년 IMF 때 실시되었다가 2000년말로 종결이 됐는데 금년에는 농촌상황이 더 나빠졌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연기합니까?

○農業協同組合中央會長 鄭大根 연기해야 될 부분은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李相培委員 그 다음에 미곡종합처리장은 지적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행 5%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건조저장시설을 조합원들이 많이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5%를 금리를 낮추는 방

법은 없는지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협의 시·군지부에서도 지점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단위농업협동조합에서는 지소를 내고 있고 그레가지고 요새는 예금을 많이 받아도 걱정입니다만 여하간 예금을 유치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는 중앙회하고 단위조합하고 서로 경쟁이 되어 가지고 군청소재지, 시청소재지 정도 되면 작은 데라도 지점도 한 서너 개, 지소도 서너 개 이렇게 되거든요. 이것은 아주 보기가 안 좋습니다. 이것을 일원화하는 방법을 강구를 해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공적자금을 수협에서도 1조2,000이나 받았고 상호신용금고에서도 받았고 신협에서도 받았고 이러니까 단위농협에서는 왜 이런 것을 받을 수 없느냐 하는데 대해서 걱정들을 하고 있는데 중앙회 차원에서 법을 개정한다든지 무슨 방법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 폭설로 인해 축사하고 시설하우스 피해가 엄청난데 농림부도 물론 대처를 하겠지만 농협에서 같이 좀 힘을 합쳐서……. 이것이 전국적인 현상이 아니니까 그 지역에는 상당한 부담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역별로 좀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咸錫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張誠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張誠源委員 농협에 대해서 질의하했는데 신용대표이사 나오셨습니까?

○農業協同組合中央會長 鄭大根 예, 대신 신용상무가 나와 있습니다.

○張誠源委員 두 분 중에 한 분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주신 자료 46페이지를 보면 회원조합 예수금이 77조 나와 있는데 이것은 29페이지 2000년말 회원조합 예수금 77조, 맞는데 중앙회의 경우는 46페이지에는 55조로 나와 있는데 29페이지에는 63조로 나와 있어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이지요?

○農業協同組合中央會長 鄭大根 지금 현재 중앙회 예수금…….

○張誠源委員 아니, 통계가 이렇게 상당한 차이가 나거든요. 55조하고 63조하고…….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말하자면 이런 기본통계가 중앙회의 이익관리라

고 그럴까 이런 것하고 상당히 관련이 있는 것인데,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누구 안 나오셨어요?

○農業協同組合中央會長 鄭大根 평잔기준으로 아
마…….

○張誠源委員 평잔기준으로? 평잔기준으로 해도 마
찬가지라야지…….

이것은 2000년말입니까?

○農業協同組合中央會常務 趙又鳳 예.

○張誠源委員 그러면 앞의 것은요?

○農業協同組合中央會常務 趙又鳳 앞의 계수는
저희들의 신탁계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張誠源委員 신탁계정이요?

○農業協同組合中央會常務 趙又鳳 예.

그리고 뒤의…….

○張誠源委員 신탁계정도 마찬가지로, 신탁계정도
예수금에 다 들어가야지요.

○農業協同組合中央會常務 趙又鳳 자료에서 앞
에는 신탁계정을 포함한 총예수금이고 뒤에는 은행
계정만 표시된 것입니다.

○張誠源委員 은행계정만?

○農業協同組合中央會常務 趙又鳳 예.

○張誠源委員 그러면 회원조합도 마찬가지로 아니
예요? 회원조합은 다른가요?

○農業協同組合中央會常務 趙又鳳 아니, 회원조합
은 상호금융 하나로 되어 있고 중앙회는 신탁계정
과 은행계정 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張誠源委員 그러면 신탁계정은 어디로 들어가
요? 신탁계정도 자금의 조달은 마찬가지로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도 포함시켜야지…….

예를 들어서 계정은 달리한다 하더라도 자금의
조달에는 다 포함시켜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것을 빠뜨리셨네요. 그러니까 신탁이 빠진 것입
니까?

○農業協同組合中央會常務 趙又鳳 예, 신탁이 빠
진 것입니다.

○張誠源委員 알겠습니다. 그러면 신탁이 빠진 것
으로 알고…….

중앙회가 자금운용을 대출금 45조, 유가증권 21
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습니까? 자금의 건전성 관리 측면에
서 볼 때 이런 구조가 건전한 것입니까? 자금운용
의 이러한 구조가 건전한 것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좀 불건전해 보이는데……. 특히
유가증권시장이 지금 대단히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상황에서 자금운용을 이렇게 하시는 것이 좀 불안
정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유가증권 21조원은 무엇무엇인가요? 예를 들어
서 회사채, 국채…….

○農業協同組合中央會常務 趙又鳳 저희들은 국·공
채를 제일…….

○張誠源委員 국·공채를 많이 하고 계십니까?

○農業協同組合中央會常務 趙又鳳 예.

○張誠源委員 국·공채를 얼마나 하고 계세요?

지금 국·공채를 매입해 가지고 계시는데 대체로
유통수익률 얼마대에 많이 하셨어요?

○農業協同組合中央會常務 趙又鳳 지금 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마는 작년도에는 국채의 경우에 8~
9%대 때에 저희들이 많이 샀습니다.

○張誠源委員 작년 언제쯤입니까?

○農業協同組合中央會常務 趙又鳳 작년 2~3월…….

○張誠源委員 작년 2~3월에는 그보다 더 되지요.

○農業協同組合中央會常務 趙又鳳 약 9.5% 내지…….

○張誠源委員 10%였지요?

그러면 그것을 해 가지고는…….

지금은 국·공채 유통수익률이 한 5% 되지요?

○農業協同組合中央會常務 趙又鳳 예, 5%대로 떨
어져 있습니다.

○張誠源委員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으셨네요?

○農業協同組合中央會常務 趙又鳳 벌었습니다.

○張誠源委員 그 다음에 거기에서는 벌었지만 주
식에서는 좀 많이 손해가 났겠지요?

○農業協同組合中央會常務 趙又鳳 그렇습니다.

○張誠源委員 주식은 얼마치나 사셨어요?

○農業協同組合中央會常務 趙又鳳 저희들의 주식
은 현재 1,000억 정도로 유지됩니다마는…….

○張誠源委員 1,000억?

○農業協同組合中央會常務 趙又鳳 예.

○張誠源委員 그러면 아주 적은 셈이네요?

○農業協同組合中央會常務 趙又鳳 적습니다. 총유
가증권의 1% 내외 수준입니다.

○張誠源委員 비교적 보수적으로 잘 운용을 하신
거네요?

○農業協同組合中央會常務 趙又鳳 저희들이 유가
증권부분은 포트폴리오를 아주 잘 구성해 가지고
보수적으로 잘 운용을 하고 있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출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자금이 유가증권
으로 지금 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張誠源委員 좌우간 엉뚱하게 한꺼번에 돈 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안전성 위주로 보수적으로 운

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전 페이지에 보면 종합수지 현황이 있잖아요? 여기에서 중앙회 것만 가지고 말씀드리면 2000년 것을 전부 내놓으시지 왜 2000년 하반기 것만 내놓으셨나요? 2000년 상반기는 별로 안 좋으셨나요?

○**農業協同組合中央會常務 趙又鳳** 상반기는 통합 시점이기 때문에 출범하고 나서 중앙회는 따로 결산을 했습니다.

○**張誠源委員** 그런데 회원조합 것은 다 내놓았는데…….

○**農業協同組合中央會常務 趙又鳳** 회원조합은 중앙회…….

○**張誠源委員** 그러니까 좋은 것은 내놓고 좋지 않은 것은 내놓지 않으신 것인가요?

○**農業協同組合中央會常務 趙又鳳** 축협은 적자가 났고 저희 중앙회는 상반기에 흑자를 냈습니다.

○**張誠源委員** 그런데 법인세를 왜 이렇게 많이 내시려고 합니까? 지금 왜 이렇게 많이 정해 놓으셨어요? 아직 법인세를 내신 것은 아니지요?

○**農業協同組合中央會常務 趙又鳳** 법인세는 지금 세무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張誠源委員** 그러니까 당초에 167억원을 계획해서 계상해 놓았는데 1,078억원, 왜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나온 거예요?

○**農業協同組合中央會常務 趙又鳳** 과거에는 회원조합을 위한 상호지원자금이라든지 회원경영손실 지원자금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지도사업비 예산에서 따로 전용을 했습니다마는 이제는 세법 개정과 회계제도 개선에 따라서 회계제도가 바뀌어 가지고 잉여금 처분을 통해서 적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만큼 세금을 더 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저희들이 세법 개정을 통해서 세금을 좀 적게 물도록 할 예정입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앞으로 위원님들의 협조를 저희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張誠源委員** 충당금 적립은 제가 보기에 다른 금융권 은행들보다도 조금 비율이 적은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農業協同組合中央會常務 趙又鳳** 충당금 말씀입니까?

○**張誠源委員** 예, 1조6,000억원…….

○**農業協同組合中央會常務 趙又鳳** 충당금 적립 금액은 적은 것은 아닙니다. 금액은 저희들의 대출금 잔액이 얼마나 하는 그 율에 의해서 증가하기 때

문에 저희들이 금융감독원에서 정한 채권충당적립 비율기준의 103.5%를 적립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0% 이상을 적립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충당금을 충분히 적립했습니다.

○**張誠源委員** 충당금 운용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農業協同組合中央會常務 趙又鳳** 그것은 채권의 상각시점이 발생할 때 저희들이 상각하면서…….

○**張誠源委員** 아니, 충당금 운용을?

○**農業協同組合中央會常務 趙又鳳** 충당금 운용은 원가가 없는 자본과 마찬가지로이기 때문에 바로 경영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것을…….

○**張誠源委員** 아니, 현금으로 하고 있느냐, 어떻게 하고 있느냐?

○**農業協同組合中央會常務 趙又鳳** 아닙니다.

그것은 유가증권으로 운용할 수도 있고 대출로 할 수도 있고 다른 어떤…….

○**張誠源委員** 유가증권으로 주로 많이 하고 있지요?

○**農業協同組合中央會常務 趙又鳳** 예, 그렇습니다.

○**張誠源委員** 유가증권 무엇으로요? 국·공채?

○**農業協同組合中央會常務 趙又鳳** 유가증권은 주로 국·공채로 많이 하기 때문에…….

○**張誠源委員** 회원조합의 금년도 수익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작년에는 말하자면 많이 손해가 났는데…….

○**農業協同組合中央會常務 趙又鳳** 저희들의 일반 회원조합도 2000년말에 충당금을 많이 적립하고도 경영이 나아졌습니다.

다만 축협은 아까 회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동안에 각종 충당금을 계속 적립하지 않았는데 금년부터 회원조합은 신용대출충당금 50%, 퇴직급여충당금 90%를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인해서 축협의 손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張誠源委員** 예, 알겠어요.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지금 은행들이 저금리 경쟁을 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농협의 금리 경쟁력은 어떻습니까?

○**農業協同組合中央會常務 趙又鳳** 일전에도 신문에 났습니다마는 저희 중앙회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오히려 수신금리를 거의 주도할 정도로 잘 리드하고 있고요.

○**張誠源委員** 그런데 지금 대출금리가 역시 높단 말이예요.

○**農業協同組合中央會常務 趙又鳳** 회원조합 말씀

입니까, 중앙회 말씀입니까?

○張誠源委員 중앙회…….

○農業協同組合中央會常務 趙又鳳 중앙회는 다른 은행에 비해서 절대 높지 않습니다.

○張誠源委員 그렇습니까?

○農業協同組合中央會常務 趙又鳳 예, 아주 경쟁력이 있습니다.

○張誠源委員 경쟁력 있어요? 회원조합은요?

○農業協同組合中央會常務 趙又鳳 회원조합은 상호금융 금리가 지금 전체적으로 다소 높습니다. 그러나 시나 대도시는 오히려 제1금융권보다 낮게 운영하는 조합도 있습니다만 다만 농촌 조합은 조금 높은 편이어서 농촌 지역이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은 금융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張誠源委員 여러 가지로 농협의 사업이 다 중요하다는데 특히 이런 상황에서는 신용부문이 중요하니까 잘 좀 하시기 바랍니다.

유통공사 사장님!

제가 얼마 전에 외지를 봤더니 일본에서 지금 야단 났더라고요. 왜 그러느냐? 중국의 농산물 중속국이 되겠다 그래서 야단이 났는데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도 이렇게 가다가는 중국의 농산물 중속국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안 들어오는 것 없이 그냥 다 들어와 가지고?

○農水産物流通公社社長 金東泰 화훼도 그렇고 채소도 상당히 걱정을 하는데 지금은 중국이 일본 쪽으로 많이 가고요. 꽃은 우리가 비쌀 때 중국에서 들어옵니다만 작년 12월까지도 꽃이 제법 들어오다가 농민들이 유통업체에 항의도 하고 해 가지고 금년 들어와서는 다행히 유통업체에서 자제하는데, 장기적으로 봐 가지고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좀…….

○張誠源委員 그런데 중국은 우리하고 생산요소랄지 예를 들어서 토지 같은 것을 중국의 경우에 사회주의이기 때문에 전부 무상으로 대여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WTO경쟁여건에 같이 놓고 경쟁을 시킨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인건비가 싼 것은 말 할 것도 없고 말하자면 토지비용이 전혀 안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앞으로 더군다나 중국이 WTO에 들어오는데 이렇게 같이 놓고 경쟁을 하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완전히 중속국이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農水産物流通公社社長 金東泰 우리는 농지세가 거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로입니다만은 중국은 오

히려 그것은 많은 것 같습니다.

○張誠源委員 농지세가요?

○農水産物流通公社社長 金東泰 예.

○張誠源委員 좌우간 농림부차관도 하시고 하니까 정말로 이것이 큰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농림부하고 잘 협력하셔서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시간이 없어 가지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咸錫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許泰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許泰烈委員 許泰烈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농협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농림부가 최근에 농업정책자금 지급은행을 여태까지 농협으로 단일화해서 해 오다가 이것을 일반 금융기관에도 허용하겠다 하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신·경분리라는 농협이 안고 있는 근본적인 구조개혁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이러한 정책은 우리 농협하고 사전에 충분한 의견조율이 되어서 시작되는 것입니까?

○農業協同組合中央會會長 鄭大根 우리하고 사전에 상의 없이…….

○許泰烈委員 농림부에서 일방적으로 발표를 했다, 그러면 여러분이 거기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것 아닙니까?

○農業協同組合中央會會長 鄭大根 의견이 있습니다.

○許泰烈委員 나중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본을 잠식한 부실 일선조합 통폐합 문제가 지금 초미의 관심사항으로 대두가 되고 있는데 97년이래 통폐합 작업을 꾸준히 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결과를 보면 흔히 구조개혁 한다고 막 합치고 없애고 이래야 무슨 개혁이 되는 것 같은 이런 생각을 갖는데 97년이래 죽 해 온 결과를 보면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결국 부실을 확산시키는 효과도 상당히 있었다, 부작용이 더 있었다 이렇게들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농협에서 해야 될 부실 일선조합 통폐합문제에 대해서는 여태까지의 경험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잘못되었던 것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좀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농가부채경감으로 농협이 담당해야 될 금액이 약 15조 남짓 되는 모양인데 그렇습니까?

○農業協同組合中央會會長 鄭大根 예, 그렇습니다.

○**許泰烈委員** 그런데 2월14일 현재로 받아본 것이 약 7,600억 정도 신청이 들어왔는데 확정처분 나간 것이 한 3,400억 나갔다 말이에요.

그런데 농업경영개선자금 이것은 거의 기계적으로 처리가 되니까 농업경영개선자금 말고는 여러분이 확정처분 나간 것이 33억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농협에서 담당해야 될 것에 비하면 0.0 몇 포인트밖에 안 되는 실정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 농해수 위원들이 여야 없이 어렵게 이것을 만들었는데 이렇게 실적이 저조하면, 우리 농민들은 그 당시에 데모하시고 할 때에는 숨이 넘어갈 것 같이 했는데 막상 해 보니까 실적은 별로 이렇게 안 나오면 이것이 또 정책하고 현실하고 너무 괴리가 있는 것 아니냐, 혹시 여러분의 노력이 부족하였는지 그런 것은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도 어떻게 할 것인지, 전망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언제쯤이면 해당되는 농가부채 경감조치가 실질적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농업경영종합자금제도 작년에 시범적으로 한 1,600억 정도 했는데 금년부터는 이것이 무려 1조2,000억 규모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작년에 국감에서도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 농업경영종합자금은 참 정밀한 경영분석이나 지도 또 각종 거기에 대한 보정제도의 개선 이런 것이 기반이 안 만들어지면 또 하나의 새로운 부실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런 자금제도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자금이 꼭 성공을 해야 되겠다고 작년에 국감할 적에 제가 일선에 이 돈을 받아 쓴 사람들을 샘플링해서 제가 대화도 해 보고 했는데 상당히 좋은 평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600억 했는데 금년에 1조2,000억이라는 자금을 가지고 이것을 시작하기 때문에 결코 이것은 실패되어서는 안 될 사업이다. 그래서 회장님께서 이것을 직접 지휘를 하시고 챙겨보시고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농협만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마는 각종 금융사고가 농협이 부쩍 늘었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農業協同組合中央會長 鄭大根** 예.

○**許泰烈委員** 이것이 도덕적 해이 상황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기강확립이 되지 않고서는 회장님도 나중에 보통 책임이 아닐텐데 여기에 대해서는 축협하고 통

합하는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갈등도 많이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도덕적 해이라든지 기강해이라든지 이런 것이 만연이 되어서 이런 것이 일어나는가 하는 걱정이 됩니다. 이것도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조합장선거가 금년에 굉장히 엄청난 숫자의 선거가 있는데 아까 여러 동료위원들도 걱정을 했습니다마는 또 회장께서도 보고서를 통해서 공명선거가 되도록 하겠다 했는데 역시 이것은 선거전문관리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 선거관리업무를 위탁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農業協同組合中央會長 鄭大根** 위탁하는 것보다도 조합장선거제도를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許泰烈委員** 그런데 선거제도를 지금 바꾼다고 언제 바뀌지겠느냐 말입니다. 이번 선거가 왜 중요하냐 하면 내년에 아시다시피 6월에 지방선거 있고 12월에 대통령선거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국회의원으로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여러분이 또 어떻게 생각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농협선거가 선거풍토를 흐리는 아주 대표적인 선거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유권자라고 그럴까 선거인 숫자가 적어서 그런지 아주 돈거래 단위도 커지고 이래 가지고 지방선거에 그대로 넘어가 가지고 결국 이 선거풍토를 혼탁하게 하는데 아주 선도적인 역할을 이 조합장선거가 하고 있다 이렇게 다들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번에는 지방선거를 바로 눈앞에 두고 하고 또 대통령선거도 다가오는데 조합장선거 잘못 치르면 이것 보통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鄭회장님은 일선 조합장도 하셨고 지금 중앙회장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특별히 이번에 지휘력을 좀 발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단순히 구두선으로 공문서에 ‘공명선거 철저히’ 이렇게 공문이나 내려보낸다고 될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 제도개선을 해야 되고 정 안 되면 이번 선거관리업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다가 위탁해 가지고 정말 철저히 부정선거하는 사람에게 징벌을 가하는 이런 제도적인 개선을 좀 강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기반공사에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212명을 정원감축을 했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여러분은 항상 숫자만 들고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212명을 정원을 감축을 했는데 그중에 152명, 벌써 몇%입

니까? 거의 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것이 전부다 현장일선에 근무하는 4급, 5급 기사 이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현장에 가서 삼 들고 진짜 현장 일선을 뛰면서 농민의 어려움을 풀어주고 할 이 사람들은 다 잘리고 중앙에서 펜대 들고 있는 사람은 그대로 있으면 이것이 무슨 구조조정입니까?

그래서 아직 통합 1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계시겠지만 우리 文 사장께서는 이 점을 잘 유념해서 가지고 진정으로 원하는 농민들의 요구는 여러분이 일선에서 서비스해 주는 여러분 직원을 보고 싶어하지 중앙에 앉아서 기획하고 어찌고 문서나 생산하고 무슨 공문이나 자꾸 내려보내는 그런 사람들을 원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유통공사, 작년 국감에서 낙하산인사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한 것 기억나시지요?

○農水産物流通公社社長 金東泰 잘 압니다.

○許泰烈委員 산하단체인 한냉이나 노량진수산시장, 그 당시 30대에 이사로 근무하다가 불화를 일으켜 가지고 견책을 당해 쫓겨난 사람이 오히려 한 직급이 올라 가지고 감사로 들어오는 그런 해피망측한 일을 그때 지적을 했는데 지난 1월 5일 한국냉장에 상무라고 또 하나 오셨는데 이 사람은 또 특정정당의 웅변연사를 하던 사람을 데려다 놓았습니다.

우리 국회를 어떻게 보는 것입니까? 물론 이것은 우리 金 사장이 불가항력일 수도 있을 것이요. 국회의 국감에서 그렇게 지적을 해 놓았는데 이것이 아, 나 죽겠다 식으로 또 하는 것입니까?

金 사장께서는 지난번 국회 국감에서 이런 지적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사람의 이력서까지 갖고 있는데 무슨 전문성이라고는 웅변한 것 말고는 아무 것도 없어요. 대선 유세지원, 구단장 전부 다…… 지금 광우병으로 축산이 얼마나 어려운데 거기에 상무로 내일 모레 민영화한다는데 이런 사람 넣어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물론 우리 金 사장이 불가항력일 수도 있다고 내가 봅니다. 그런데 金 사장이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반대논리를 피력한 적은 있습니까? 이렇게 해놓으면 국회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까?

○農水産物流通公社社長 金東泰 그것은 국감뿐 아니고 신문에서도, 저도 해당이 됩니까라는 낙하산

인사가 늘 시끄러우니까 다 알고 있고 다만 김기태 상무는 한냉사장의 추천을 받아 가지고 제가 임명하게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경력도 있고 또 도의원을 한 경력도 있고 대한상이군경회 이사도 하고 있는데 여기에 꼭 적합한 인물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마는 한냉사장이 추천을 했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계속 제가 지켜보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잘 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동안에 한냉이 민영화 문제로 해 가지고 상당히 이완되었는데 새 사람이 들어와 가지고 근무기강이라든지 그런 것을 상당히 잡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상당히 하고 있는 일은 열심히 잘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국감에서 그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다시 되풀이되어서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許泰烈委員 그러면 국감 하나마나이고 오늘 이런 상임위도 하나마나입니다. 아무리 지적을 해도 마이동풍이니 이런 것 해 보면 뭐합니까?

그 다음에 산림조합에 좀 묻겠습니다.

여주 임산물센터 작년에는 어떻습니까?

○山林組合中央會長 李允鍾 결손이 났습니다.

○許泰烈委員 또 결손이 났으면 4년째 연속적자네요.

○山林組合中央會長 李允鍾 예.

○許泰烈委員 그런데 160억 들여 가지고 동해시에다 제2의 임산물센터를 하는데 이것도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기억이 나지요?

그러면 여주가 수도권에 그 좋은 위치에 있어도 4년째 적자를 면치 못하는데 우리가 부실농협을 이야기하지만 이것도 자본잠식 될 것 아닙니까?

그럼 국내임산물 시장, 좁은 시장에 강원도에 또 하나 만들면 여주는 더욱더 적자를 벗어날 길이 없는 것 아닙니까?

○山林組合中央會長 李允鍾 그렇습니다.

○許泰烈委員 그렇습니다가 뭐니까? 그런 사업을 왜 추진하느냐 말이에요.

○山林組合中央會長 李允鍾 거기에 대한 타당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許泰烈委員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답변하세요.

적자가 계속 나는데 무슨 놈의 타당한 이유가 있어요?

○山林組合中央會長 李允鍾 국가적으로는 이득이 되고 조합으로서도 결손이 되고 그렇습니다.

○許泰烈委員 그런데 작년에 임도사업을 산림조합이 독점을 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작년에 임도건

설에 km당 산림청에서 인정하는 단가가 6,300만원에서 금년에 11% 올려 가지고 7,000만원 했지요?

작년에 산림조합에서 임도를 건설한 것이 당초 계획목표가 1,400여km였는데 그 목표를 초과해서 건설했어요. 그런데 나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단가가 약해서 도저히 수지가 안 맞습니다 했는데 오히려 목표는 산림청 목표보다 더 많이 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산림훼손으로 인한 여러 가지 산사태 문제라든지 임도의 부실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는데 이것이 이런 것에 다 기인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6,300만원이 부족해서 7,000만원으로 올려줬는데 6,300만원 가지고 오히려 목표치보다 더 많이 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부실이 들어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山林組合中央會長 李允鍾 그것은 내용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수한 km수하고 신규하고를 합쳐서 했기 때문에 보수하는 데는 단비가 덜 들어가서 결과적으로 총체적인 km수가 늘은 결과가 됐고 그 보수단비는 신설단비보다 훨씬 적습니다.

○許泰烈委員 그래서 어제 내가 산림청 할 적에 시간이 없어서 질의를 못했는데 한전과 이동통신 회사들이 송전탑이라든지 통신중계기 같은 것을 산에 많이 건설합니다. 그러면 이제 산림복구비용을 받는다고요.

그래서 산림조합에 임도건설 독점적 지위를 주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개방을 시켜야 될 것 아니냐, 개방을 시켜 가지고 한전 송전탑 세우는 그 건설회사가 이왕 올라간 장비 가지고 임도도 같이 건설하면 단가도 약하게 할 수 있고 더 완벽한 공사를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것은 물론 산림조합에서 답변할 문제는 아니에요. 내가 산림청하고 이야기를 할텐데 이런 점을 제가 지적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산림조합에서는 내가 지금 지적한 이 문제들을 한번 검토하기 바랍니다.

○委員長 咸錫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辛卿植 위원님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辛卿植委員 늦게까지 너무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농업기반공사 文 사장님께 이것은 제가 지역에

다니면서 보고 느낀 것이기 때문에 무슨 큰 정책보다도 주민들하고 기반공사하고 피부에 와 닿는 그런 문제로 생각하시고서 힘을 모아서 거기를 도울 수 있으면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수로에 잡초가 나서 이것을 제거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그냥 놔두고 또 수로가 오래 되니까 전부 무너져 가지고 흙이 쌓이고 그래서 이 수로에 풀이 없으면 물이 한 시간이면 도착할 거리에 대개 3시간 내지 3시간 반이 걸린다고 그래요. 그렇게 잡초 때문에 수로가 제 구실을 못해요. 이 수로의 잡초를 제거하는 대책을 꼭 세워야 되겠습니다.

첫째는 오래 되어서 부서진 수로를 좀 다른 예산을 써서라도 고치고 그리고 지금 잡초 난 것을 빨리 인력을 동원해서 제거하는 그 작업이 상당히 기반공사로서는 위에서 몇 백억짜리 하는 것보다도 더 급하다고 모두 얘기하더라고요. 그것을 아시고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農業基盤公社社長 文東信 알겠습니다.

○辛卿植委員 또 하나는 저는 나중에 이것을 알았는데 기반공사는 도지부는 지사장, 군은 지부장 그런데 지사장하고 지부장이 같은 1급이라면서요?

○農業基盤公社社長 文東信 그렇습니다.

○辛卿植委員 도하고 군하고 급이 같아 가지고 되겠어요?

지금 군지부장 1급을 내릴 수 없으면 특급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도지부장을 올려주든지 해야지 도지부장 밑에 군지부장이 여럿 있을 것 아니에요? 회의를 소집해도 도지사하고 군수하고 같은 급이고 경찰국장하고 경찰서장 같은 급이면 그 조직이 제대로 돌아가겠어요?

그것 생각해 본적 있었어요?

○農業基盤公社社長 文東信 예, 저희 문제점입니다.

○辛卿植委員 외교관들 보면 특임관 이런 것이 있잖아요. 그런 특1급이라든지 그런 명칭을 붙여 가지고 월급을 조금 몇 %를 더 주더라도 하여튼 우선 의자 앉는 데서라도 상징성이 있어야지 똑같은 1급 가지고 그 회의가 제대로, 조직 운영이 되겠어요?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것은 도울 테니까 그것 좀 안을 한번 만들어서 올려봐요.

○農業基盤公社社長 文東信 알겠습니다.

○辛卿植委員 그리고 제가 기반공사 어떤 간부한

테 얘기를 들으니까 지금 도지부, 군지부에 기본적인 운영자금이 아주 모자라대요. 예산을 얼마나 어떻게 깎아 가지고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들이 일을 해야지 그냥 상징적으로 앉혀만 놓아 가지고 되겠어요?

야당으로서 돈 안 주어 가지고 일 안 시키고 예산 깎는 것이 좋은 일이고 그것을 주장을 해야 하지만 제가 예산 얘기를 들어보니까 딱하더라고요. 일을 시킬 수 있도록 해야지 그렇게 깎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진짜 군지부장, 도지부장 구실을 못 하더라고요.

사장이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인사잡음 관계는 다들 지적을 하셔서 제가 더 얘기를 안 하겠어요.

그 다음에 농협 鄭 회장님께 말씀을 드리겠는데 종합유통센터 건입니다.

전국에 대형농협유통센터가 5개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 중에는 흑자 나는 데도 있고 적자 나는 데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을 그냥 일괄해 가지고 이제 단일화해서 지금 대규모 유통센터를 자회사 형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독자체제로 운영되던 것을 일사분란하게 만들겠다는 것인데 이것이 운영하는 면이라든지 규모면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농업협동조합, 협동조합은 꼭 이익만 남기고 돈만 벌자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선 지역의 인적 유대라든지 지역연고라든지 여러 가지가 얽혀 가지고 협동조합이 체구실을 하는 것인데 그렇게 지금 전부 단일화하고 대형화하자, 거기에만 몰두해 가지고 잘 되고 흑자 내는 지방에 있는 대형 농협유통센터도 중앙유통센터의 자회사화 하는 작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은 재고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축협하고 통합할 때 농림부장관이 뭔가 자꾸 개혁을 해야할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것저것 책상 위에서 안이라고 만들어 낸 것 중에 하나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대형 지방유통센터를 단일화해서 효율화하겠다 이런 식으로 아마 농림부나 농협에서 안을 낸 것 같고, 장관하고 중앙회장 두 분이 이것은 생색내는 것이고 그럴 듯하니까 발표한 것 같은데 이것을 실제로 반대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너무 서두르지 말고 신중히 해 가지고 진짜 이 혜택을 잘 따져야 돼요. 지금 대형화 해 가지고

중앙에서 일괄구매해 가지고 일괄공급한다 그러는데 한 예를 들어서 지금 청주주변에도 배가 많이 돼요. 그런데 거기 유통센터에 청주배라고 죽 갖다 놓고 저쪽에다가 나주배 갖다 놓으면 배 사갈 사람들이 맛보기 전에 우선 선입감과 그 이름 가지고 이왕이면 나주배 사갈 것이라고요.

쌀들 죽 냈는데 청주쌀이다, 오창쌀이다 어디 쌀이다 해놓았는데 거기에 이천쌀이다, 여주쌀이다 있어 봐요. 그것 한두 푼 더 주고 이천쌀 사가는 것이 심리라고요.

농협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그 지역 농민들 도와주자고 그런 것 하는 것인데 그렇게 엉뚱한 타지역 농산물 팔아주기 위해서 자기 지역 것 희생되는 이런 농업유통센터라는 것이 뭐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대형마트가 여기저기 서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일괄로 대형화해야겠다, 논리는 그럴 듯한데 제가 우리 지역을 예를 들어서 좀 미안한데 청주, 청원을 보면 지금 이마트인가 뭐가 들어와 가지고 대 혼잡을 이루고 있고 롯데에서 하는 큰 마트도 들어와서 잘 되고 있어요.

그 속에서 지금 하나로마트가 연간 수억씩 흑자를 내고 있다고요. 이런 것을 왜 마구잡이로 잡아 가지고 끌어넣어서 잘 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하면 아까 金龍學 위원께서 농기구 지적을 하셨는데 제가 아까 물어봤잖아요. 내가 요며칠 전에 청주 갔다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지역에서 농기구 판매하는 사람들이 왔더라고요. 와 가지고 ‘정말 너무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왜 그래요?’ 하니까 지금 농협에서 국제농기계라는 데에다가 용자를 많이 해주었는데 이것 떼이게 되어 가지고 농협에서 막후에서 그것을 인수해서 운영한다고 그러는데 모든 각 농협마다 국제 것만 팔아라 지금 이렇게 되어 있대요. 그러니 이럴 수 있느냐 하고 아주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실무이사들한테 좀 알아 봤어요. 그랬더니 그것은 유언비어다 사실은 안 그렇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지방에서는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농협에서 농기구는 국제 것만 써라 이렇게 지금 전국적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그 사람들 지금 움직임이 굉장해요. 단체로 데모를 한다 뭐 한다 이러는데 이것이 사실 오해라면 왜 이런 오해가 생겼나, 왜 그렇게 농

협이 국제만 끼고 도나 거기에 대해서 좀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咸錫宰**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시작 후에 5시간 10분이 경과했습니다. 그리고 답변준비시간도 필요하고 해서 잠시 정회하고 9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12분 회의중지)

(21시06분 계속개의)

○**委員長 咸錫宰**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文東信 사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답변하시는데 金東泰 사장, 鄭大根 회장, 李允鍾 회장 네 분 답변하실 때 여러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함께 묶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고 현재 좌석에 계시는 위원님 위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 계신 분에 대해서는 답변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文東信 사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農業基盤公社社長 文東信** 농업기반공사사장입니다.

농업과 우리 공사의 발전을 위하여 저희 공사의 여러 가지 현안사항들을 염려해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안들에 대하여는 저희 공사 전 임직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성실히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공통적인 질의사항을 종합적으로 답변 드리고 나머지 사항은 서면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체적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孫泰仁 위원님, 金淇春 위원님, 金泳鎭 위원님, 朴在旭 위원님, 朱鎭旻 위원님, 鄭長善 위원님, 金龍學 위원님, 李方鎬 위원님, 李相培 위원님께서 새만금사업의 신중처리 문제와 늦어지는 사유, 수질개선 대책, 토지이용계획 등에 대해서 사장의 소신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새만금사업 추진여부 결정이 늦어지는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9일 정부가 새만금사업에 대한 대책 발표를 3월말로 연기한다고 밝힌 것은 현재 새만금호의 수질에는 별 문제가 없으나 만경수역의 경

우에 갈수기에 수질변화가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간척사업의 선진국인 일본과 네덜란드의 친환경개발 및 관리실태를 조사해서 사업추진에 참고토록 하기 위해 연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질개선대책에 대해서는 이미 민·관공동조사단에서 검토분석한 바와 같이 새만금호의 수질개선대책을 계획대로 추진할 경우 수질은 화학적 산소 요구량 총인 등 농업용 수질기준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습니다만 다만 새만금호를 만경수역과 동진수역으로 분리할 경우에 만경호는 총인이 0.103ppm으로 다소 상회하고 있으나 농업용수 기준치에 접근하고 있어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토지이용계획에 대해서 새만금 내부 간척지는 당초의 사업취지에 맞게 환경친화적인 농지를 조성한다는 것이 우리 공사의 확실한 입장이며 복합산업단지로 개발할 계획은 결코 없습니다.

새만금사업 추진에 대한 사장의 소신에 대해서는 우리 공사에서는 정부가 환경친화적인 방법으로 개발하도록 조속히 결정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추진방안이 결정되면 민·관공동조사단에서 제시한 대책 등을 반영해서 환경친화적인 방향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孫泰仁 위원님, 朴容璠 위원님, 鄭長善 위원님, 李方鎬 위원님께서 화옹지구 환경기초시설이 병행되지 않으면 제2의 시화호가 된다는 걱정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옹담수호 수질개선대책은 담수호 상류 대책과 담수호 호내 대책으로 분류해서 화성군과 우리 기반공사가 각각 수질대책을 수립해서 환경부에 승인요청한 상태이며 3월경에 환경부에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상류유역대책으로 환경부와 화성군에서 시행할 내용을 말씀드리면 하수처리장 2개소, 축산폐수장 1개소, 하수관거정비 66km가 되겠고 담수호 내에 농림부와 저희 공사에서 시행할 것은 인공습지 3개소, 수초저류지 11개소, 침강지 3개소, 인공식물섬 15개소, 생태공원 1개소 등 260ha이고 현재 이 계획에 대하여 환경부에서 검토 중입니다.

따라서 화옹간척공사 시행과 병행하여 담수호 상류 및 호내 수질개선대책을 추진한다면 사업이 완료되는 2012년에는 화옹 담수호는 농업용수로 적절한 수질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朴容琥 위원님과 金龍學 위원님께서 김포매립지에 따른 문제점 등에 있어서 앞으로의 처리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張正彦委員 안 계신 위원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하십시오.

○農業基盤公社社長 文東信 예,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元喆喜 위원님, 文錫鎬 위원님, 朱鎮吁 위원님, 崔善榮 위원님께서 작년에 매각처분한 자산 998억원의 사용처와 공사의 경영안정기반 구축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된 것은 물관리예산의 확보문제와 관련된 조치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과거 농조에서는 매년 자산을 매각해서 660억 정도를 물관리에 사용한 바도 있습니다. 물관리에 대한 연간 총비용은 저희가 작년도에 농촌경제연구원에 용역을 맡겨서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2,440억원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농업용수 사용료 300억을 작년부터 받지를 못하고 반면에 정부예산도 900억 정도가 지원되다가 작년에는 643억으로 대폭 줄어들은 것이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불가피하게 작년에 경영비를 인건비 절감, 관리성 경비 절감, 수조제거 등 공공근로사업 활용에 따른 유지관리비 절감, 또 불용자산을 매각하는 것으로 충당을 했습니다.

그러나 불용자산 매각만으로는 앞으로 근본적인 물관리 대책을 확보하지 못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을 작년도에 위원님들께서 결의해주셔서 물관리비용을 643억에서 1,024억으로 확대를 했고 그리고 자체적으로 물관리 전문화나 기술개발을 추진하여서 경비도 절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근본적인 대책을 위해서는 저희가 불용자산으로 가지고 있는 자산들은 가능하면 매각해서 적립금에 넣어 가지고 물관리의 효용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元喆喜 위원님, 金淇春 위원님, 朴在旭 위원님, 文錫鎬 위원님, 朱鎮吁 위원님께서…….

○朴在旭委員 서면으로 해도 돼요.

○農業基盤公社社長 文東信 예,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머지 개별적으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실하게 작성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咸錫宰 여기에서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새만금 간척사업에 관해서는 작년 국정감사 때 우리 위원회에서 그 사업이 계속 진행되어야 한다는 결의안을 채택해 가지고 정부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이 점 기억해 주시고 확실하게 소신껏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農業基盤公社社長 文東信 예, 감사합니다.

○李方鎬委員 질의사항은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農業基盤公社社長 文東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委員長 咸錫宰 다음 金東泰 사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農水產物流通公社社長 金東泰 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입니다.

한국냉장 민영화에 대해서 元喆喜 위원님, 朴容琥 위원님, 文錫鎬 위원님, 朱鎮吁 위원님, 金龍學 위원님, 張正彦 위원님, 崔善榮 위원님, 李相培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민영화 추진의 구체적 진행상황과 한국냉장의 경영 정상화와 한국냉장을 농협에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안과 기타 코스닥 등록 상장 등 다른 방안의 민영화에 대한 검토, 한냉이 민영화된 후에도 우리 축산업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양해하시면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냉장과 노량진수산시장은 정부의 공기기업 민영화방침에 따라서 금년말까지 민영화를 완료할 계획이었으며 지난해까지는 민영화를 위해서 조직 및 인력 감축, 한국축산 흡수합병, 비핵심사업의 정리 및 민간위탁 등 구조조정과 경영혁신을 통해서 민영화 기반을 조성하는 데 노력했고 금년부터는 민영화 추진을 위해서 자산 및 기업가치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월말까지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국냉장의 자회사인 노량진수산시장의 민영화를 위한 기업설명회를 3월 중에 개최하고자 기업 설명회를 맡을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금년 4월 중에는 노량진수산시장에 대한 기업매각방식의 민영화 공고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한국냉장 자산으로 활용도가 저조한 공장, 창고 등 저수익 자산을 우선 매각하기 위해서 자산매각 전문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위

탁할 계획입니다.

한국냉장의 경영상황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결손이 발생하고 차입금이 1,600억원을 상회하는 등 재무구조가 취약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코스닥 등록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국냉장은 자회사인 노량진수산시장을 상반기 중에 민영화해서 그 재원으로 경영을 정상화하여 하반기 중에 기업매각방식으로 민영화를 추진해 나가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농협이 인수하는 방안도 적극 협의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朴在旭 위원님께서 산지유통센터 운영실적 평가와 보완책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운영실적 부진사업장에 대한 보완책으로 최근 실시한 조치 실적은 운영이 부진한 7개소에 대해서 산지유통센터별로 취급품목, 경영여건 등 사업장의 특성에 맞도록 학계 및 연구기관의 전문가를 활용해서 부진부문에 대한 구체적인 경영 컨설팅을 실시하는 한편 운영 활성화를 위한 자금지원, 운영관리자 집합교육 실시와 경영정보를 제공해서 조속한 정상화 노력을 했습니다.

99년도에 22개 부진사업장에 대해서 컨설팅을 실시한 결과 14개 사업장이 취급물량 증대, 조직 활성화, 사업수지 등이 개선되어 2000년 평가시 보통사업장으로 전환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張正彦 위원님께서 아까 자료요구하신 해외 농업무역관 영업현황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張正彦委員 참고로 왜 그 자료를 요청하느냐 하면 미주쪽 일부지역에 영업실적도 없고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유명무실하게 그렇게 설치되어 있다 하는 얘기가 내부에서 들려서 거기에 대한 판단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소상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農水産物流通公社社長 金東泰 저희가 하는 일이 정보수집이고 계량화 하기 어려운 것이 되다 보니 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자세하게 하고 있는 일을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咸錫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鄭大根 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農業協同組合中央會長 鄭大根 농협회장입니다.

농업·농촌발전을 위한 평소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의 고견과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농협운영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농업인으로부터 사랑 받는 농협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질의한 사항부터 보고드리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서면으로 성실하게 별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許泰烈 위원님, 金泳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01년 농가부채경감특별대책의 원활한 추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농협회장으로서 농업인을 대표해서 농가부채경감특별법을 만들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월19일 현재 부채대책 추진실적은 20.4% 수준에 달하며 급속히 신청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앞으로 정부와 협의해서 신청서류를 좀더 간소화시키고 홍보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농가별로 개별통지 등을 통해서 대상농가가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해서 영농기 이전에 부채대책 추진효과가 가시화 되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 드립니다.

다음 許泰烈 위원님, 金泳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정부의 농업정책자금대출창구 다변화에 대한 농협의 입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책자금 창구 다변화가 농업인의 금융편익을 증진하고 농업정책자금 금융 효율화에 도움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되겠지만 높은 위험성과 낮은 수익성으로 특징되는 농업금융을 이윤추구가 목적인 일반은행에 개방할 경우에 상당한 시행착오와 부작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용력이 약한 영세소농은 자금지원에서 소외되는 반면 대농에게는 자금지원이 집중될 수 있고 지도금융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최근의 정책방향이 후퇴해서 전반적으로 정책자금의 효율성이 저하될 것으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책자금 창구의 다변화 요구는 농업인의 실업증진을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며 제반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사전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李相培 위원님, 孫泰仁 위원님, 許泰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향후 부실조합의 처리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1,387개 회원조합 중에서 경영부실이 우려되는 조합이 209개 조합이 있습니다. 이 209개 조합에 대해서 전년도 10월과 11월 중에 실시한 경영실태조사결과 169개 조합이 경영부실상태로 나타나 있

습니다.

중앙회는 이들 조합에 대해서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서 현재 경영지도를 실시하고 있지만 단기간 내에 부실을 정리해서 조합원에 대한 실익제공 등 조합의 본래 기능을 회복하는 데에는 상당한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회는 조합의 부실을 조속히 정리하고 조합을 재편해서 협동조합 본래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부실조합 정리방안을 강구하고 있고 이를 위해서 정부와 협동조합구조개선특별법 제정과 예금자보호법 개정 등을 긴밀히 협의하고 어느 시기에 가서 이 모든 준비작업이 되면 농림위원회에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앞으로 정부의 부실조합 정리방안이 확정되는 대로 그에 따라 신속히 조치해 앞으로 농림위원회와 이 문제도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부실조합정리를위한구조개선법 제정 등이 시급한 만큼 여러 위원님께서 적극 지원해 주시기를 이 자리에서 부탁드립니다.

부실조합정리에 있어서 경영상태로만 판단할 수 없는 지역여건이나 조합원의 편익 등을 감안해서 조합원 실익을 중심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도 이 자리에서 올리는 바입니다.

다음 張正彦 위원님께서 농협사옥 신축추진 경위에 대해서 간단히 물으셨습니다.

새 농협법에 따라서 3개의 협동조합이 하나의 농협으로 다시 태어났으나 각기 제도나 문화가 달라 완전한 통합조직체로서 일사불란한 사업체제를 구축하기에는 상당한 시일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서는 구축협, 구인삼협 직원들을 서대문 본부에 현재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대문 본부에 있던 구농협 직원 일부를 인근 건물을 임차해서 배치하고 있고 이런 관계로 한 지붕 밑에 세 가족이 한데 모임으로 인해서 통합의 시너지효과가 나는데 지금 세 가족이 한 자리에 못 모여 있고 흩어져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서대문 본부, 임광토건, 용산, 성내동에 분산배치되어 있는 사무소를 한데 모음으로써 부서간 업무협조가 원활해지고 일선 회원농협에서의 본부방문 업무처리도 한 곳에서 이루어져 불편을 다시 해소할 수 있지 않느냐 이래서 신사옥 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사옥 규모는 양재동유통센터 매각대금의 한 20%를 농협중앙회가 부담을 해서 지금 현재의 장소에

강당이 있는 그 자리를 신축을 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朴在旭 위원님께서 위성TV 홈쇼핑사업 참여에 대한 농협의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농협은 생산자단체로서 농산물판매 확대와 농업인에 대한 보다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TV홈쇼핑방송사업에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회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농협유통이 지난해 6월 삼성물산과 합작사업 추진협약을 체결하고 9월에는 동 사업추진법인으로 하나로쇼핑넷을 설립한 바 있습니다. 본 회의 TV홈쇼핑사업에서 농수산물과 공산품 등을 종합취급하는 것이 사업성과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업성도 있고 또 수익성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서 기존 TV홈쇼핑시장 선점업체와의 경쟁 그리고 대규모로 소요되는 운영자금 조달, 기업 브랜드 가치에 의한 마케팅력 또 농수산물 관련 방영시간을 40% 이상 확보하는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주식회사 하나로쇼핑넷이 TV홈쇼핑 채널사업권자로 선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다음 崔善榮 위원님, 許泰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합장선거가 과열혼탁해지고 있는 것을 염려해 주시면서 농협의 공명선거 대책과 선거제도의 개선용의가 없는지를 회장인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조합장선거는 이사회가 조합원 또는 선거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하는 선거관리위원으로 구성된 조합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고 있으며 중앙회에서도 선거전담기구설치를 해 두고 공명선거표어, 포스터 제작 배포 또 공명선거 당부서한 발송, 부정선거신고센터 운영, 공명선거결의대회 개최 등 다각적인 공명선거제도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농림부, 행정자치부, 검찰청,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로 선거부조리 예방과 불법선거운동 단속을 위해서 공동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지역에서 과열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과열을 완화하기 위해서 조합장 선출방식 등은 일본의 예를 본다면 일본은 조합장선거를 이사회에서 호선제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런 조합장선거의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일본과 같이 이사회 호선 등 간선제를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되

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조합장선거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없느냐는 문제는 조합의 민주적 자율운영 원칙과 조합원에 의한 자율적 선거관리원칙을 지키면서 서로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조합원들끼리 조합장 자질도 검증할 수 있는 등 효율적인 선거관리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깊이 있게 검토해서 許泰烈 위원님, 崔善榮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항에 대해서 농협중앙회가 최선을 다해서 지도를 하고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張正彦 위원님, 李方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은행보다 높은 수준인 회원조합 상호금융의 대출금리를 대폭 인하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상호금융금리는 지난 1월말 현재 신규대출금리가 10.14%로 은행권의 9.63%에 비해서 0.51% 정도의 차이로 1금융과 지금 근접한 수준입니다. 사실 대출금리는 지속적으로 하락하여서 99년말 대비 금년도 1월말까지 1.56포인트가 하락하였으며 동 기간동안에 예금금리 인하폭 0.80포인트보다 더 크게 하락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예금금리보다 더 많은 대출금리 인하가 가능했던 것은 98년도 이후 인원을 1만 5,208명에 달하는 28% 이상을 줄이고 불필요한 사업장을 정리하는 등 지속적인 구조조정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농업인의 농사에 필요한 순수농업자금에 대해서는 조달금리 수준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추가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상호금융이라고 해서 전체 1금융보다 여신금리가 더 높은 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도시권 조합이라든지 군소재지 조합, 도시형 조합은 상호금융 대출금리가 1금융권보다 금리가 더 낮은 조합도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도를 해서 읍·면조합도 여기에 상응하게 따라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라는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읍·면조합의 경영상태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해서 읍·면조합을 도시조합하고 맞추느냐 이 문제도 중앙회가 숙제를 갖고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李方鎬 위원님께서 회원조합에 대한 통합중앙회의 저리자금 지원확대에 관해서 물으셨습

니다.

○李方鎬委員 그것은 정확하게 서면으로 해 주세요요.

○農業協同組合中央會長 鄭大根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辛卿植 위원님께서 전국의 종합유통센터를 농협유통으로의 통합계획에 대한 농협의 의견과 통합추진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종합유통센터 통합은 통합농협 설립준비위원회의 권고에 따라서 운영 주체의 다양성으로 인한 중복기능을 해소하여 경영의 효율화를 기하고 종합유통센터가 외국의 대형유통업체에 대항할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농협 2단계 개혁과제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와 출자조합들이 지역특성이나 농산물의 특성을 감안하지 않고 농협중앙회가 일방적으로 하는 통합이다 이래서 많은 반대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특히 충청북도 관계자 또 주식회사 충북유통 주주조합장들이 지역 정서상 통합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경영의 효율성 제고에도 의문을 표시하면서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여론도 여기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비단 충청북도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유통센터에서도 충북과 같은 유사한 반발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해서 농협의 사업장은 존경하는 辛卿植 위원님 말씀대로 일반유통업체와 달리 강한 지역 연고성을 갖고 있고 또 통합추진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상당히 많이 있는 만큼 이 부분은 본 회가 계속 검토를 해서 장점이 많은 길을 택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朴容璵 위원님께서 지난해 금감원의 상호금융 감사결과 금감원이 검찰에 수사의뢰한 건에 대해서 검찰이 무혐의 처리를 했는데 이에 대한 농협의 처리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금감원의 수사의뢰 건에 대해서 검찰에서 무혐의 처리되었으나 금감원 감사결과에 근거하여 내부규정상 위규 또는 저촉여부는 인사위원회에서 검토 조치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인사규정 등 관련 내규에 따라서 해당직원에 대한 조치방향을 결정하게 됩니다라는 합리적 수준에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금운용분야 종사자에 대해서는 운영결과를 평가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보상대책도 강구 중임을 말씀드리면서 위원님의 각별한 관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서면으로 성실하게 보고토록 약속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咸錫宰 수고하셨습니다.

權五乙 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權五乙委員 답변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보충질의 한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화면을 통해서 농협조합장 선거제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제가 중앙회장님한테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정도가 상당히 지나쳤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실제로 4년마다 선거할 때 선거배당을 공공연하게 합니다.

한 표당 10만원, 20만원, 30만원 아예 선거배당을 공공연하게 해요. 이러다가 농협의 이미지에 상당히 타격이 있을 수도 있고 농협운영 자체에도 이것이 상당히 부담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점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정말 선거배당으로서 당락이 결정되지 않도록 조합원 수를 배로 늘리든지 아니면 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선출방식을 달리하든지 아니면 조합장의 예우나 자격에 대해서 손질을 하든지 그렇게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현재 국제농기계하고 농협하고 OEM 방식으로 농기계 독점공급계약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 수수료를 농협이 받아 가지고 농가에 환원하기 보다는 차제에 농기계 값을 아예 낮추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두 가지 점에 대해서는 중앙회장님이나 농협관계자 여러분들이 정말 심사숙고를 하셔서 가지고 대책을 마련해서 다음 기회에 한번 답변을 해주시든지 아니면 나름대로 어떤 복안이 있으면 서면상으로 답변해 주시든지 그렇게 해 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조합장 선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정말 정도가 지나쳤고 내년엔 지방자치단체선거도 있고 다음에 대선이 있고 한테 기본적으로 선거풍토까지 다 망치겠습니다.

또 하나 문제는 서로 조합장이 되면 기존 조합원을 퇴출시키고 또 새로운 조합원들을 선거를 의식해 가지고 가입시키고 하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

셨으면 좋겠습니다.

○農業協同組合中央會長 鄭大根 알겠습니다.

○委員長 咸錫宰 鄭大根 회장님 답변하셨는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李允鍾 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山林組合中央會長 李允鍾 오늘 저희 산림조합중앙회 업무보고를 통하여 애정어린 지적과 격려를 하여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업무에 반영하고 시정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처음에 답변드릴 것은 文錫鎬 위원님과 崔善榮 위원님, 許泰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유통센터가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제2유통센터를 새로 설립하려는 취지는 무엇이며 제1유통센터의 정상화방안은 무엇이나고 질의하셨습니다.

제1유통센터가 처음에 시작될 때 농발위서부터 이것은 적자를 예상하고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임야가 75%임에도 불구하고 목재수요량의 94%를 수입목재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무역수지적자가 연간 13억불, 1조5,000억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산야에는 24만㎡의 간벌소경재가 산야에 버려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버리지 말고 활용해서 뭔가 수입대체효과를 거두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제1유통센터를 건립하게 된 것입니다.

그 제1유통센터의 적자요인으로서 국산목재와 수입목재의 가격차이, 가공하는데 있어서의 수율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수되는 인건비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제품의 경쟁력이 부족합니다. 국산목재는 아무래도 소경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대경재로 만드는 것 같이 물품이 그렇게 좋은 미관을 갖지를 못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러한 악조건하에서 저희들이 연간 약 10억 정도의 수지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적으로 보면 3만㎡을 만일에 수입목재에 의존해서 그런 제품을 생산했다면 263만불 즉 31억원의 목재를 더 수입했어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연간 10억 정도 적자 나고 국가적으로는 31억의 이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산자에게는 산에다 버려야 할 폐단재를 이용함으로써 31억의 소득을 더 안겨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2유통센터도 이런 취지에서 합시다

는 여기는 저희들이 4만㎡을 목재가공했을 경우 350만불의 수입대체효과를 거두고 42억원의 농가 소득을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2유통센터에서 생산하는 것은 문화재나 사찰이나 고궁 등을 수리하는 목재를 생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고궁이나 문화재를 외국 목재로 수리한다고 했을 때 그것은 정서상으로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소 값이 비싸더라도 문화재나 고궁, 사찰 등은 우리나라 목재로 반드시 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2임산물유통센터를 설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1임산물유통센터의 정상화방안은 무엇이나?

일단 경영진단을 저희들 자체적으로 했습니다마는 더 신뢰할 만한 기관에 경영진단을 해서, 지금 저희들의 방안으로서는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책·결상이 전부 수입목재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치원 들어가면서부터 외국목재로 만드는 책·결상에서 공부한다는 것도 정서상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군이 쓰고 있는 탄피박스도 전부 다 수입목재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충분히 우리 국산목재로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저희들에게 후원을 해 주신다면 앞으로 경영수지도 개선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許泰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임도단비가 부족하다고 하여 11%를 인상하였으나 2000년도 사업실적을 보면 계획보다도 많은 물량을 실시하였는데…….

○許泰烈委員 그것은 서면으로 해주세요.

○山林組合中央會長 李允鍾 崔善榮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산림조합에서 실시하고 있는 토목사업은 연간 얼마 정도 되며 그것은 하도급을 준 것이냐, 직접 직영한 것이냐 하는 질의였습니다.

저희들이 연간 실시하고 있는 것은 1,640억원 정도의 물량이 되며 이것은 하도급 없이 저희들이 직영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李相培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산림조합에서 묘목을 생산함에 있어서 매년 같은 수종을 계속 생산하고 있는데 이를 유실수 등 좀더 수종개량을 해서 좋은 묘목을 보급할 의사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찬의를 표합니다. 지금 지정양묘를 정부에서 지정해 가지고 저희들이 100만본을 생산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자체 양묘를 해 가지고 유실수, 감나무·밤나무·대추나무 등이 되겠습니다. 약 1,000만본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정부지정으로 할 수 있는 데까지 해 가지고 좀더 싼 가격으로 임업인에게 공급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咸錫宰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이상 4개 기관에 대한 현황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2월23일 한국마사회에 대한 시찰일정이 좀 변경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문서로서 여러분에게 돌려드리기로 하고 23일 오후 2시에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이 자리에서 한국마사회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文東信 농업기반공사사장, 金東泰 농수산물유통공사사장, 鄭大根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李允鍾 산림조합중앙회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43분 산회)

○出席委員(21人)

權五乙	金洪春	金泳鎭	金龍學
文錫鎬	朴容琥	朴在旭	朴燾太
孫泰仁	辛卿植	元喆喜	李方鎬
李相培	張誠源	張正彦	鄭長善
鄭哲基	朱鎭旻	崔善榮	咸錫宰
許泰烈			

○出張委員(1人)

姜賢旭

○出席專門委員및立法審議官

수석전문위원	金基英
전문위원	張仁植
입법심의회관	李元鐸

○政府側參席者

농림부

장	관	韓	甲	洙
차	관	金	東	根
차	관 보	徐	圭	龍
농업정책	국장	金	周	秀
식량생산	국장	朴	海	相
축산	국장	盧	京	相
산림청				
청	장	申	洵	雨
차	장	金	容	漢
기획관리	관	孫	讚	俊
사유림지원	국장	曹	連	煥
해양수산부				
장	관	盧	武	鉉
차	관	洪	承	湧
기획관리	실장	金	成	洙
해운물류	국장	徐	廷	皓
수산정책	국장	姜	武	賢

○其他出席者

농업기반공사				
사	장	文	東	信
감	사	張	南	珍
기획	이사	李	柱	石
기반조성	이사	張	正	秀
기술지원	이사	林	炳	鎬
유지관리	이사	裴	榮	活
구조개선	이사	白	顯	基
농수산물유통공사				
사	장	金	東	泰
감	사	朴	判	吉
관리담당	이사	河	昌	正
유통담당	이사	李	東	熙
수출담당	이사	曹	芳	煥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회	장	鄭	大	根
농업경제대표	이사	盧	義	鉉
축산경제대표	이사	宋	錫	禹
상무	이사	趙	又	鳳
산림조합중앙회				
회	장	李	允	鍾
상임	감사	張	一	煥
상임	이사	朴	正	植
조합	감사위원장	金	正	明
관리	상무	崔	正	鉉
지도	상무	鄭	喆	仁
개발	상무	朴		炅